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STUDY ON THE SMALL GROUPS FOR THE VITALIZATION OF YOUNG ADULT:
WITH A FOCUS ON DANG-IL CHURCH**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에 관한 연구: 당일교회를 중심으로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ong Kil Park (박 종 길)

Lynchburg, Virginia

March 2020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Yunseop Kim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BSTRACT

A STUDY ON THE SMALL GROUPS FOR THE VITALIZATION OF YOUNG ADULT: WITH A FOCUS ON DANG-IL CHURCH

Jong Kil Park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for youth ministry in the chu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effect of small group ministry on faith growth and youth revitalization as a way to promote youth ministr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youth.

Today, while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is slowing and the number of members decreases, the youth group has also stopped growing, facing a crisis of spiritual growth and a crisis of existence itself. The decline of the young generation is not a problem only today, but at a time when the next generation is rapidly decreasing, the future is darker. Currently, there is a need for a realistic alternative to the revitalization of youth and faith growth.

Therefore, this researcher intends to face the reality of the ministry along with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youth ministry, and to clarify through a small group that a core ministry is necessary for activation. It will be suggested that small group ministry within the church is the essential ministry for church growth suggested by the Bible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growth of the faith of young people.

In order to discuss that small group ministry is the core of the youth ministry philosophy in the present time, I would like to do a real case study of biblical community and small group core ministries and small group activities. Based on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 plan to

revitalize the youth group through small groups as an improvement plan for church growth.

Abstract length: 265 words

ABSTRACT
초록

**A STUDY ON THE SMALL GROUPS FOR THE VITALIZATION OF YOUNG ADULT:
WITH A FOCUS ON DANG-IL CHURCH**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에 관한 연구: 당일교회를 중심으로

Jong Kil Park (박종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본 논문은 교회내 청년부 사역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청년의 이해를 기초로 청년 사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소그룹 사역이 신앙성장과 청년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교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부 역시 성장이 멈추고, 영적성장의 위기와 존립 자체에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청년세대가 감소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음세대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점에, 미래는 더 암울하다. 현재 청년부의 활성화와 신앙성장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년 사역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사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역이 필요함을 소그룹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교회안에서 소그룹 사역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성장을 위한 본질적 사역이며, 청년들의 신앙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소그룹 사역이 현시대에 청년부 목회 철학의 핵심임을 논하기 위해, 성경적 공동체성과 소그룹 핵심사역과

소그룹 활동의 실제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교회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소그룹을 통한 청년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 길이: 136 words

ACKNOWLEDGEMENT

감사의 글

지난 18 여년 동안의 목회 여정 속에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가족과 사람들을 통해 인도해 주셔서 계속 학업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명자로 사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부족한 종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부와 다음세대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마음과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이라는 논문을 위해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청년담당 목회자들과 청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금 청년목회에 대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당일교회 목사님과 청년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교회됨이 무엇인지, 예배공동체와 일상의 예배자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소그룹에 대해 많은 실천해 보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일교회와 청년부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논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학문적인 향상을 위해 마음을 다해서 지도해주신 이유정 교수님과 김윤섭 교수님, 행정의 일을 함께 맡아준 최영식 목사님과 김낙중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논문을 관두려고 할 때마다 격려로 이끌어준 나의 좋은 친구이며 아내인 권지예 사모와 힘내라고 외쳐준 자녀들과 나를 낳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ACKNOWLEDGEMENT	vii
감사의 글	
TABLES	xv
표	
ABBREVIATIONS	xviii
약어	
SUMMARY	xix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Purpose of Study and Statement of the Problem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2. Scope and Limitation	5
범위와 한계	
3. Biblical and Theological Basis	6
성경적, 신학적 근거	
4. Statement of Methodology	9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	
5. Review of Literature	11
문헌 검토	
CHAPTER 2: Understanding Youth and Small Group Ministry	16
제 2 장: 청년과 소그룹 사역에 대한 이해	
1. Understanding of Youth	16
청년에 대한 이해	
1) The General Definition of Youth	18
청년의 일반적 정의	

2)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Concepts of Youth.....	20
청년의 성서적, 신학적 개념	
3) Youth's Ecclesial Understanding	22
청년의 교회적 이해	
2. Understanding Small Groups	25
소그룹에 대한 이해	
1) General Understanding of Small Group.....	25
소그룹의 일반적 이해	
2) Biblical Concept of Small Group.....	27
소그룹의 성경적 개념	
3) Theological Concept of Small Group	32
소그룹의 신학적 개념	
3. Core Principle of Small Group	36
소그룹의 핵심 원리	
1)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Leaders	36
전문 지도자의 중요성	
2) Leader's Importance	38
리더의 중요성	
3) The Importance of Small Groups	38
소그룹의 중요성	
4) Small Groups of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44
소그룹의 순기능과 역기능	
4. Sub-conclusion.....	45
소결론	
CHAPTER 3: A Case Study on Small Group Types for Youth Growth.....	47
제 3 장: 청년부 성장을 위한 소그룹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1. A Case on Proposal and Activation of Case Studies.....	47
사례연구에 관한 제안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Growth Model for Youth through Disciple-raising Small Groups	48
제자양육 소그룹을 통한 청년부 성장모델	
1) Core Values	49
핵심가치	

2) The Actuality of Youth Group Meeting	50
청년부 모임의 실제	
3) Nurture System	52
양육 시스템	
4) Activity Details of Small Groups	53
소그룹 활동내용	
5) Evaluation	54
평가	
3. The Growth Model of the Youth Groups, Focused on Small Group Leaders.....	55
소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청년부 성장모델	
1) Core Values of the Youth Group	56
청년부 핵심가치	
2) The Actuality of Youth Group Meeting	57
청년부 모임의 실제	
3) Nurture System	59
양육 시스템	
4) Activity details of Small Groups.....	59
소그룹 활동 내용	
5) Evaluation	60
평가	
4. The Growth Model of the Youth Groups, Focusing on the Vision of Small Group	60
소그룹 비전을 중심으로 청년부 성장 모델	
1) Core Values of the Youth Group	61
청년부 핵심가치	
2) The Actuality of Youth Group Meeting	63
청년부 모임의 실제	
3) Nurture System	64
양육 시스템	
4) Activity details of Small Groups.....	65
소그룹 활동 내용	
5) Evaluation	66
평가	

5. The Growth Model of the Youth Groups, Focused on Organic Communities.....66	유기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청년부 성장 모델
1) Core Values of the Youth Group67	청년부 핵심가치
2) The Actuality of Youth Group Meeting68	청년부 모임의 실제
3) Nurture System69	양육 시스템
4) Activity details of Small Groups.....70	소그룹 활동 내용
5) Evaluation71	평가
6. Sub-conclusion.....71	소결론

CHAPTER 4: A Survey on the Correlation Activities of Small Group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Youth Group73

제 4 장: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활동 상관관계 설문 연구

1. Purpose and Procedure of the Survey73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Purpose of the Survey73	설문의 목적
2) An Object of Study73	연구 대상
3) Survey Methods75	설문 절차와 방법
2. Reliability Analysis.....75	신뢰도 분석
3. Survey Results77	설문 결과
4. Results on the Cross-Analysis88	교차분석 결과

1) The Effect of Leader Education Satisfaction on Service Commitment	89
리더교육 만족도가 봉사 헌신에 미치는 영향	
2) The Effect of Leader Education Satisfaction on Growth of Faith	90
리더교육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	
3) The Effect of Leader Education Satisfaction on the Improvement of Interest in Small Groups.....	90
리더교육 만족도가 소그룹 관심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4) The Effect of Idea that Small Group Activation is Necessary on Small Group Satisfaction.....	91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소그룹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 The Effect of Small Group Satisfaction with Faith Change	92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변화에 미치는 영향	
6) The Effect of Small Group Satisfaction on Faith Growth	93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	
5. Survey Contents of Local Small and Medium Church	94
지역 중소형 교회 설문 내용	
1) An Object of Study	95
연구 대상	
2) Leader Education Satisfaction and Faith Growth	97
리더교육 만족도와 신앙성장 결과	
3) Small Group Participation and Small Group Satisfaction	99
소그룹 참여 및 소그룹 만족도	
4) Activation of Small Groups and Growth of Faith.....	103
소그룹 활성화와 신앙의 성장	
6. Results on the Cross-Analysis	106
교차 분석 결과	
1) Cross-Analysis of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Domains.....	107
인구사회학적 영역의 교차분석	
2) The Effect of Small Group Satisfaction on Improving Commitment.....	108
소그룹 만족도가 헌신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7. Sub-conclusion on the Survey Results.....	109
설문 결과에 대한 소결론	

CHAPTER 5: A Study on the Growth of the Youth Ministry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s.....111

제 5 장: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청년부 성장 목회 방안

1. Small Group Core Principles and Importance of Youth Professionals.....	112
소그룹 핵심 원리 및 청년전문 사역자의 중요성	
2. Local Church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Focus on Dang-il Church)	114
지역교회의 상황과 특성 (당일교회를 중심으로)	
3. Core Values of the Youth Group	116
지역교회 청년부 핵심 가치	
4. Small Group Activation Essential.....	117
소그룹 활성화 필수요소	
1) Design Youth Worship (Restoring the Importance of Worship)	117
청년 예배를 디자인하라 (예배 중요성 회복하기)	
2) Raise a Ready Minister (Preparing the Ministry)	121
전문 사역자 준비하기 (사역자 준비 시키기)	
3) Set Up a Nurture System.....	125
양육 시스템 갖추기	
4) Activate Small Groups	127
소그룹을 활성화하라	
5) Small Group Sharing (Example of Sharing a Cell).....	130
소그룹 실제 (셀 나눔 방법 예시)	
5. Creating Organic Small Groups.....	134
유기적 소그룹 만들기	
6. Small Group Activity Content	138
소그룹 활동 내용	
1) The Importance of the Gospel (Word-oriented)	137
복음의 중요성 (말씀 중심)	
2) The Dailyization of Words (QT Sharing)	139
말씀의 생활화 (큐티 나눔)	
3) Evangelism	141
복음 전하기	
4) Developing Missionary Leadership	142
선교적 리더십 개발하기	

7. A Small Group of Healthy Church	146
소그룹으로 건강해지는 교회	
1) Young Church Community	146
젊어지는 교회 공동체	
2) Lively Worship	147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8. Sub-Conclusion.....	148
소결론	
CHAPER 6: Conclusion	150
제 6 장: 결론	
Appendix A.....	152
부록 A	
Appendix B.....	155
부록 B	
Appendix C.....	157
부록 C	
Appendix D.....	160
부록 D	
Bibliography	164
참고자료	
IRB Approval.....	172
IRB 승인	

TABLES
표

1. 교육국 교육일정	51
2. 설문 문항 구성.....	74
3. A·B 교회 신뢰도 분석.....	76
4. A·B 교회 다중대체 설문 응답 값	76
5. A·B 교회 인구사회학적 영역.....	77
6. 리더교육 참여 및 만족도.....	79
7. 소그룹 리더교육 참석자의 신앙성장	80
8. 청년부 소그룹 만족도	81
9. 청년부 소그룹 참여도	82
10. 소그룹 참여 적극성	82
11.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필요도	83
12. 소그룹 핵심 나눔 내용.....	83
13.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84
14. 소그룹에 참여하는 빈도.....	84
15.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후 변화된 모습.....	85
16. 소그룹 활동과 신앙 성장의 연관성	85
17. 소그룹이 교회 섬김에 미치는 영향력	86
18. 소그룹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력	86
19. 소그룹 활성화에 필요한 점	87
20. 소그룹 리더 모임 반영.....	87

21. 소그룹 양육 교재	88
22. 리더교육 만족도가 봉사 헌신에 미치는 영향	89
23. 리더교육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	90
24. 리더교육 만족도가 소그룹 관심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90
25.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소그룹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2
26.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변화에 미치는 영향.....	93
27.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향	93
28. C 교회 신뢰도 분석.....	95
29. C 교회 인구사회학적 영역	95
30. 리더교육 참여 및 만족도	97
31. 리더교육 만족도와 소그룹 참여자의 신앙성장.....	98
32. 청년부 소그룹 만족도	99
33. 청년부 소그룹 참여도	100
34. 소그룹 참여 적극성	100
35.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필요도	101
36. 소그룹 핵심 나눔 내용.....	101
37.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102
38. 소그룹에 참여하는 빈도.....	103
39.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후 변화된 모습.....	103
40. 소그룹 활동과 신앙 성장의 연관성	103
41. 소그룹이 교회 섬김에 미치는 영향력	104
42. 소그룹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력	104
43.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점	105

44. 소그룹 리더 모임 반영	105
45. 소그룹 양육 교재	106
46. 출석기간이 높은 그룹 중 모태신앙 그룹의 긍정적 영향.....	107
47. 소그룹 만족도가 교회내 헌신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108
48. 청년대학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20

ABBREVIATIONS

약어

신우회	직장 선교를 위해 모이는 선교회
GBS	Group Bible Study
GQS	Group QT Study
IVF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O T	Orientation
Q T	Quiet Time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NS	Social Network Service
VIP	Very Important Person - 새가족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This thesis started from the researcher's agony on how to vitalize the young adult ministry. Among various programs that could vitalize young adult ministry, the researcher will study plans for vitalizing young adult groups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By examining the influences of small group activities to faith communities and individuals, the researcher will present how small group activities and its core values lead vitalization of young adult groups.

Church growth can be defined as growth in life through growing in numbers of church members and bringing positive changes. Spiritual growth must continue. Spiritual growth of individuals reinforces vitalization of small and big groups. Proper growth as a believer through small groups enhance the recovery of church community as well as the life as a worshiper and a "Missional Church" dispatched into the world. Subsequently, this influence will lead to the growth and positive changes of young adult groups.

The Korean Church has experienced revival and growth in numbers over the past century. However, at this point of 130 years having been passed throughout missional history, the numbers are rapidly slowing down and even declining. Numbers of young adults are declining all together. The decreasing numbers of young adults outweigh those of adults. This means that the numbers of Christians will keep falling in the future. This phenomenon will accelerate within a few years and eventually rise as a critical issue of the Korean Church. Young generation will gradually disappear in churches. The fact that worshipping generation is disappearing leads to the cognition of crisis in existence of the church itself.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a demographical cliff due to low birth rate from the 21st century. This demographical cliff symptom brought reduction of Sunday school students, difficulties in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decrease in numbers of church members, low expectancy in church growth, and financial crisis in churches. Regarding this demographical cliff, various models for church growth are being required. Now is the time to diagnose young adult groups in Korean churches whether they are healthy or not and improve their structures. Ministers need to help the young adults to grow as mature believers and to live as Christians in this world and in this season. Now is the time to consider how young adults are being unchurched and establish its alternative. Issues must be resolved through recovering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reinforcing church growth.

The researcher suggests recovery from church's aspect of separation between daily life and spiritual life and plans to help young adults become daily worshipers. The influence of Sunday Christians is weak because, although they might have been called, they have not yet been sent. If small groups play their roles as connecting chains in spiritual life, young adults will grow spiritually as time goes by, and thereby, young adult groups will grow. Through this young adult groups, spiritually healthy aspects will emerge that strives for the essence of the church. Small group ministry will serve as a medium that encourages the young adults to live as churches themselves not only inside the church community but also outside.

CHAPTER 2

UNDERSTANDING YOUNG ADULTS AND SMALL GROUPS

In chapter 2, the researcher will examin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ological grounds regarding young adults and small groups. Firstly, examination of general notion and biblical definition of young adults and presentation of understanding the young adult period will be stated. Second, biblical definition and significance of small groups will be considered. Based on this research, the meaning of faith community through small groups and spiritual growth of young adults will be examined. The researcher attempt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young adults and spiritual growth of small groups through examining what it means to raise leaders and nurture young adults via small groups and what community means in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Regarding understanding the small groups, the researcher will argue that helping the young adults cognize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church in their period is the small group activity itself. Small groups have many similarities with the young adult period. They both can be structured into various forms and systems when vivid identity, meaning, and purpose are established. Small groups grow as organic communities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and influence. New forms of small groups could emerge any time but then disappear. Small groups reflect young adults' spiritual life and aid them to grow as daily worshipers. Small groups connote the value of the church community. If the young adults can grow as faithful leaders through small groups, they will lead the growth and vitalization of the young adult group and the church.

Once young adults experience healthy and biblical community through learning about

general, biblical, and theological meaning of small groups, they will live to seek the essence of faith. God created humankind to live in communities. He had people to reflect God's image through small communities and had them participate in His salvation plan. Archetype of the church is found in small groups which was initiated from the first part of the Bible.

If young adults can grow in faith through small groups in young adult ministry, they will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being established through them. Through small groups, young adults who each grew up in different circumstances will experience intimacy with God, love for their neighbors, and spiritual growth.

When 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small group ministry and its professional ministers, satisfaction rate of small groups will increase through nurturing leaders and this will lead to vitalizing individuals as well as the whole young adult group. Then, young adults will be able to live as daily worshipers and as a "Missional Church" in the world.

CHAPTER 3

A STUDY ON TYPES OF SMALL GROUPS FOR GROWTH OF YOUNG ADULT GROUPS

This thesis attempts to study a model that could lead to local churches' revival by examining case studies on how young group vitalization is heavily centered in mega-churches and grafting them on local churches. According to the report made in 2020 from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he ratio of churches regarding the church member numbers were as following: churches that have less than 50 church members account for 50.3%; less than 100 account for 66.8%; and less than 300 account for 85.5%. Churches that have less than 500 church members account for 90%, more than 500 account for 7%, and more than 1000 account for less than 3%. That is to say that small and mid-sized churches that have less than 500 church members account for 90%. This means that the revival and health of young adult groups and the next generation of these small and mid-sized churches are the keys to Korean church revival. Reformation is unlikely to come with mere one or two churches' revival.

There are substantial concerns about young adult groups and the Sunday School now that the revival era of the Korean church is over and is experiencing stagnant atmosphere. Numbers of churches that actively conduct young adult ministry are declining. In this regard, it is imperative to look into the alternative to this reality and aspects of young adult groups that are still reviving today.

In chapter 3, the researcher conducted case studies that searched for significant elements in vitalizing young adult ministry through examining models and ministry strategies of churches that had been experiencing revival among young adult groups. There will be examinations in influence of vitalized small groups: how they interact with big groups organically and impact

changes and growth of young adult groups.

To analyze the types of small groups, firstly, the researcher will study the case of young adult group in Sarang Church; a church that led the revival era in young adult ministry through discipleship and nurturing leader via small group ministry. The church conducted small group focused ministry which had them connect discipleship to daily lives. The second study will be the case of young adult ministry in Muhak Church: a church that made the best out of small groups and adjusted it to be applicable. This adjustment aided the church to blend well the church's tradition with the streams of times. There will be an examination on small group ministry that focuses on organic communities. The third case study will be Anyang First Church of which the young group ministry is influencing the local society. The researcher will expound how young adult professional ministers were nurtured and how vital the vision of small group is. Fourth case study will be Dongan Church of which young groups ministry is growing with small group leaders at the center. The young adult group in Dongan Church is vitalizing its ministry through deeply bonding with one another with small group leaders at the center.

These churches spread the gospel, established the community, and nurtured the young adults as daily worshipers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These churches are generally role models beyond the boarder of denominations regarding young adult ministry. However, there are also some issues in which efforts are being put to overcome. These issues show the realities that the Korean churches are facing. Examining these churches, more developed case study results will be presented. Pros and cons are to be regarded and applications to young adult groups should be identified.

This chapter will present the following elements to expound which substances of ministry the vitalized young adult groups of modeled churches possess: vision and value of the

young adult group, core strategy, and expertise. Additionally, the researcher will study how these elements affect worship, nurturing leaders, and small group activities. The criteria of this study will be core value area, practice of young adult meetings, nurturing system, and contents of small group activities. These case studies will present a good model for planning vitalization of young adult group.

CHAPTER 4

SURVEY AND ANALYSIS

In chapter 4, the researcher will conduct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analysis regarding plans for vitalizing young adult groups through survey and analysis. This study seeks for applicable principles by contrasting the churches examined in chapter 3 with small and mid-sized local churches that the researcher served at and identifying the pros and cons of small group ministry.

There are various programs out there regarding vitalization of young adult group but this thesis focuses on identifying how small group ministry enhances young adults' spiritual growth and how it affects young adult ministry.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will examine how satisfaction levels of small group leadership training and small group participants affect individual spiritual growth. Additionally, examination on how small group vitalization influences serving the church will be conducted.

Two churches that were mentioned in chapter 3 as case studies responded to this survey. Based on analysis of this survey, the researcher will seek requirements for improvement and development through comparing small and mid-sized local churches that the researcher served at. The participated groups have been building up vitalization of young adult groups with small group ministry as their core value. They each have been developing small group ministry through discipleship, nurturing system, and small group leaders at the center. Comparisons between these churches and churches that the researcher serve at will be conducted.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will examine some possible applications that could be made to small and mid-sized local churches and correlations between these churches and participated churches.

Participants were between the age of 20 and 35. Analyzing the distribution in ages, it can be said that all ages of young adults have responded. It was found that they were all approaching small groups with similar mentality. The only difference was in the participation rate when compared to modeled churches for small group ministry. Comparisons were made in areas of demographics, leadership training, participation in small groups, and small group vitalization. Analysis were done in areas of how satisfaction level of leadership training affects spiritual growth and satisfaction level of small groups, and subsequently, how small group satisfaction level affects small group vitalization, service, and dedic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mall group ministry was organically connected with individuals of young adults and leads to change in their service and dedication. Small group activities lead change and spiritual growth of young adults, and henceforth, this change of individuals affect the young adult group.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satisfaction, change, and growth through small groups influence service, dedication, and vitalization of the young adult group and the church. Small group activities affect individual activities. Mutual connection between these affected individual activities and serving the young adult group and the church was found through analysis.

CHAPTER 5

PLANNING MINISTRY FOR YOUNG ADULT GROUPS THROUGH VITALIZING SMALL GROUPS

In chapter 5, the researcher proposed a plan that will enhance vitalization of young adult group ministry through small group activities. Survey analysis done in chapter 4 showed that spiritual growth of individuals affects plans for vitalizing small groups and young adult groups and vice versa. If application of this core principle could be practiced in small mid-sized local churches, individuals of young adult groups will experience spiritual growth and young adult groups' vitalization.

Various difficulties arise when applying core principles of young adult small group ministry from mega churches to small and mid-sized local churches. To practically apply core principles of small group ministry, professional ministers for young adult groups is indispensable. Professional ministers for young adult groups should experience the small group ministry, and thereby, have the core principle become the vision and direction for small and mid-sized local churches. Having professional ministers for young adult groups was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churches that had vitalized young adult ministries. It is critical that the church cognizes the significance of young adult ministry and builds organic relationship with young adults. Small group leaders should be raised within relationships with pastors and professional ministers for young adults. To back up this procedure, there needs to be a system for nurturing small groups. Through this system, virtuous cycle of raising small group leaders and their spiritual growth will be settled.

There was also presentation of realities of young adult groups in small and mid-sized

local churches where the researcher served. Focused examination was done in areas of core values of each young adult group, worship, and small group activities that were being conducted. Pastoral philosophy and ministry of having young adults live as “Missional Churches”, which is the core value of young adult groups, is shown to have influence in worship, small group gatherings, leadership training, small group Bible studies, and their directions. Additionally, as the small group ministry plays its role in having the young adults live as daily worshiper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procedure will aid in making small groups activities healthy and enhanced, and thereby, vitalize spiritual lives of young adults.

If churches conduct small group activities focusing on spiritual growth of young adults, young adults will live evangelical lives and as daily worshipers. As these young adults grow spiritually and serve worship, worship will be vitalized, and henceforth, general atmosphere of the young adult group and the church will become brighter. When the core value of small group ministry continues in the lives of young adults, their lives will change, numbers of worshipers will increase, and churches will become healthier.

CHAPTER 6

CONCLUSIONS

This thesis argued about how small group ministry is indispensable and should play a critical role in vitalizing young adult groups that are experiencing stagnation and crisis. The researcher attempted to seek plans to continue vitalizing young adult groups and their spiritual growth base on understanding current young adults. There were examinations on young adult groups regarding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small groups, and young adult groups.

Core principles and types of young adult groups were studied by analyzing case studies of churches that were vitalizing young adult groups through small group ministries. Subsequently, the researcher examined facets of small and mid-sized local churches regarding how core principles of small group ministry were being applied and how young adult groups were growing through them. It was found that it was not only mere programs and manuals that were important elements but also the cognition of core values of small groups and of having professional ministers for young adults. The researcher proposed the following practices through the professional ministers for young adults: gathering worship, dispatching worship, and building each other through small groups.

The researcher viewed young adult ministry with an agony of how he can aid the young adults to live as daily worshipers. The aching reality of the Korean church lies in the duality in spiritual lives which refers to how spiritual lives are not being connected from church to daily lives. The researcher asked this question, ‘how can young adults connect their spiritual lives to daily lives and live with testimonies?’ This was the researcher’s agony that led to this thesis and

must have been every young adult ministers' agony too. The answers to this agony should be found in restoring the characteristic of faith community. Restoration to ideal worship and of small groups will happen when starting from having the young adults recognize that restoring fai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ir lives and be Christians who initiate their lives from the Word of God.

Uniting the young adults who live by various forms into one spiritual community will not be easy if not viewed through a pastoral lens that focuses on today's young adults to have characteristic of community in faith. Young adult ministry should be able to establish small groups with visions and directions from the professional minister for young adults. Authentic vitalization of young adult ministry will happen when young adults are dispatched to the world as "Missional Churches."

Despite various programs for vitalizing young adult groups out there, there rarely are programs or ministries that connects the young adult group into one organic community. Small group ministries will achieve their goals of having the young adults live as communities of worship and faith when connecting the pastoral view from the professional minister for young adults in terms of helping young adults become daily worshipers and dispatched churches. Young adult groups that live out the lives as daily worshipers, worshipping communities, and missionaries will be established through organic small groups. This will lead to small group ministry that rediscovers the true meaning of the church community by recognizing how all the ministries in the church are organically connected.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본 연구 목적은 청년 목회를 담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 사역에 활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청년들의 상황과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아울러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그룹이 신앙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부 사역에 핵심 가치가 되어 각 개인의 신앙성장과 소그룹을 통한 변화와 헌신과 섬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해서 청년들을 주님의 몸 된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대그룹 모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 개인의 신앙 점검과 교제와 성숙 등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청년부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소그룹을 선택한 것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거룩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즉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믿음 안에서 서로 영적인 관계를 이루며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래 교회의 모습에 소그룹의 의미가 담겨 있다. 소그룹은 신론과 기독교론과 교회론 등의 교회 본질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교회의 본래 모습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교회와 청년부의 활성화는 시작된다.

현 시대에 많은 교회가 본래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다. 지난 세기에 한국 교회들이 외적인 성장, 성도들의 수를 증가시키기에만 집중한 결과 본질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우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 외적인 성장마저도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둔화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면서 본격적으로 교인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의 수는 9,675,761 명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1990 년의 기독교인의 수에 비해 250 만명이 줄어든 수치이다.¹ 이에 대해 미래학자인 최윤식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관련해서 2050 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는 300-400 만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현재 기독교인 수의 절반이 될 것이고 교육부서는 기독교인의 5-10%로 줄어들게 된다. 35 년 후에 한국교회는 현재 있는 교회는 절반이 감소하고, 교육부서는 90%는 전멸할 것이다.² 앞으로 20-30 년 후에 청년세대는 거의 전멸한다는 점이다. 교회 안에 교회학교와 청년세대가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사회는 저 출산 인구 절벽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저 출산이 오래 지속되면 유소년층의 인구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청장년층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저 출산과 인구감소는 노년층 부양 부담감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소년, 청소년과 청년층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산업계 뿐 아니라 교육, 문화계 등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³ 인구 절벽현상은 한국교회 안에 다음세대 양육문제, 교회 성장 기대감 저하, 교세의 급격한 하락과 재정 파탄 문제, 선교 열정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가족의 해체가 현실화되면서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청년세대의 신앙생활은 다양한 형태로 변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청년과 다음세대의 감소가 장년수의 감소율보다 훨씬 빠르다. 청년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앞으로 기독교인의 수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몇 년 후에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한국교회에 중요한 문제점이 될 것이다. 점점 교회 안에 젊은 층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 성장에 있어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과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와 영향력, 교회 정체성, 교회의 분열, 목회자 도덕성 문제들과 2-3 세대의 세대교체와 리더십의 문제, 대형교회 재정문제와 맞물려 세간의 교회에

1) 통계청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kosis.kr/search/search.do#>., 2020년 9월 12일 접속.

2)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68.

3) 조영태, “서울시 올해 함께 출산율 0.8명대, 대한민국 앞날, 인구가 좌우” 「경향신문」, 2017년 10월 2일.

인식은 더 비판적이고, 사회적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예전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 쇠퇴에 대하여 많은 진단과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독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파악하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 모습과 선교 모습을 찾아야 한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교회의 모습은 사회 구조 속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 부름 받은 삶은 있지만, 보냄 받은 삶은 없기에, 선데이 크리스천(Sunday-Christian)의 영향력은 삶에서 매우 미비하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그대로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직장, 결혼, 주거지 문제로 인해 자주 이사를 다니는 세대들에게 영적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이제는 수평이동 하는 성도의 수도 급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들의 성장세와 통계도 신경 써야 할 때이다.

한국교회 청년부는 건강한 공동체인가를 진단하고 체질을 개선해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청년 사역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 가면서 지속적인 청년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리더들과 소그룹과 그 영향력들을 활성화시켜 가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청년의 위기의 원인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건강한 청년부를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시기에 청년들을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야 한다. 청년들은 장년부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고, 교육 부서나 청소년과도 구별되는 시기이다. 청년들은 오히려 양육을 받지 못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 오히려 교회의 초점은 다음세대와 장년부에 맞춰져 있다. 한국 중소형 교회에서 청년부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할 수 있는 교회는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 교회 현실상 청년부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청년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모습의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가길 원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간 청년들이 있다면, 그 이유와 원인들을 파악해서 다시금 관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가야 한다.

청년들의 탈 교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한국교회 침체의 본질적

이유를 고민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해 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인식하고 방향과 목적을 다시 수정하고, 변화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역 활성화의 성패는 갈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청년부 사역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5~10 년뒤에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성장이란 단지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수만 나타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교회 성장의 의미를 회심성장에 기반을 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특징인 “책임 있는 교회 구성원의 증가”를 말한다. 즉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⁴

그리고 소그룹의 핵심요소인 리더 양성과 소그룹 모임 활성화를 바탕으로 ‘미셔널 처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신앙인의 삶은 부름 받은 교회에서, 보냄 받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허하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청년 신앙인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 고리를 찾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80년대 한국 청년 사역을 이끌었던 고직한 선교사는 “청년 대학부의 성장과 부흥은 바로 청년, 대학부를 지도하는 사역자에게 달려 있다.”⁵ 고 말했다. 그만큼 목회자와 리더들 그리고 청년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이제는 여기서 더 발전시켜 어떤 목적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라 여겨진다. 청년 리더들을 발굴해 내고 그들의 소그룹을 통해 신앙인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목회 철학과 사역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교회 내 청년부 사역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소그룹 사역이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논하고자 하다. 청년부 활성화에 있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소그룹 사역이 청년들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한데 그것이 소그룹 사역이라 여겨진다. 이 과정들을 통해 개개인을 일상의 예배자들로 세워 갈 수 있고, 일상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게

4) 김영태, “소그룹 목회 시스템을 통한 교회 성장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2009), 104.

5) 학원 복음화협의회 편, 「청년 사역자 핸드북」(서울: 흥성사, 1999), 15.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 각 개인 과 청년부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소그룹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소그룹 리더교육과 소그룹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각 개인의 신앙성장과 변화의 계기가 되는지, 소그룹 활성화와 교회 섬김과 헌신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리더들과 청년 공동체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들의 관심사는 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이야기가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면, 소그룹은 청년부 활성화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소그룹 사역은 청년들을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교회 ‘미셔널 처치’(Missional Church)의 신앙을 살아가게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⁶ 현재 청년들의 신앙 속에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년들의 일상 속에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소그룹은 함께 모이는 각 개인에 신앙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각 개인의 변화와 성장은 다시금 소그룹과 청년부 대그룹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소그룹은 개개인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와 자양분을 머금을 수 있는 특별한 시공간이 된다. 청년들을 일상의 예배자들로, 부름 받은 교회에서 보냄 받은 교회로, 흠어진 성도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생활해 가는 곳이 소그룹이다. 이런 소그룹의 영향력이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신앙의 성장과 예배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소그룹을 통해 일상의 예배자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면, 유기적 공동체로,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청년들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2. 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범위는 청년 사역의 활성화에 소그룹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다. 연구자는 여러

6) 최동규, 「미셔널 처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단체에서 발표한 통계/분석 자료, 각종 서적, 정기간행물, 연구 자료들을 비롯하여, 현재 한국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통해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청년부를 연구하여 소그룹의 핵심원리와 소그룹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중소형교회 청년부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그룹 핵심가치와 방안을 찾고자 한다. 아울러 소그룹에 대한 이해와 청년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소그룹을 어떻게 청년의 삶에 연계하여 청년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소그룹을 통해 활성화를 이루어 가는지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청년부 성장 방안의 대안으로 소그룹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위 항목으로는 소그룹 리더교육과 소그룹 유형과 방안, 소그룹 만족도가 교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 사역의 본질을 추구하는 소그룹을 청년부 활성화 목회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3. 성경적, 신학적 근거

교회 안에서 청년 시기의 중요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기독교는 청년 시기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청년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다양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다. 지도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청년의 의미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청년 리더와 제자들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들을 찾아서 건강한 청년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소그룹과 셀, 순, 구역과 같은 소그룹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소그룹 공동체가 성경적인 공동체이며,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과 신학 원리들을 논하고자 한다.

1) 성경적 근거

구약 레위기 27 장 1-8 절에 의하면 청년 시기의 연령이라고 볼 수 있는 20 세를 기준으로 사람의 값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청년의 시기가 중요한 시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20 세는 가장 가치 있는 장년층의 연령 하한선으로 이야기하며, 인구 조사 시 인구에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출 30:14). 또한 청년에 대한 묘사를 구약성경에서는 시편 110 편 3 절은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고 하며 청년들을 ‘새벽 이슬’로 표현하는데, 생기와 새로운 희망과 신성함을 뜻한다.

신약성경에서는 청년으로 번역된 용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신선함’, ‘새사람’, ‘새로움’, ‘젊음’으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 장 22 절에서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청년의 때가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며 무한한 도전 정신과 힘을 발산할 수 있는 시기이며, 또한 세상의 영향과 가치관으로 도전 받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시기임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30 세 전후의 청년의 때이다(눅 3:23).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도로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했던 바울, 디모데, 디도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회심한 나이도 32 세의 청년이었다. 95 개조의 성명서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기독교 강요의 첫 판을 저술한 칼빈, 대학시절의 학생선교운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선교를 떠났던 요한 웨슬레 모두 30 대 안팎의 청년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다.

소그룹과 관련해서 구약은 삼위 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 핵심을 두고 있다. 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도 함께 하셨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8 장 20 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이야기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소그룹 공동체를 직접 실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도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교회 속에 함께 계신다.

사도행전 2 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사도행전 2 장 46 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한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고린도 전서 12 장 12-31 절까지의 말씀에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연합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 다양한 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공동체성을 볼 수 있다.

2) 신학적 근거

소그룹의 신학적 근거 중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는 것이다. 창세기 1 장 26 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창조 때부터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 일체라는 공동체의 관계로서 존재하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룹은 대화와 사명 가운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점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도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게 된다.⁷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을 간직하게 하셨다. 이것을 존 칼빈(John Calvin)은 기독교 강요 제 1 권에서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였으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영혼이라고 하지만, 육체를 포함한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⁸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소그룹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에서 시작된다. 관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생명을 ‘코이노니아(κοινωνια)’를 통해

6) Gareth Weldon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28.

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김충호 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315-24.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실현하신다.⁹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속에서도 협력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다. ‘코이노니아’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본성이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회복은 소수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과 맺은 계약으로 나타났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 장 9 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소그룹이었다.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구원사역은 생명의 회복 사역이 된다. 이 생명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 사역이 소그룹 공동체 사역의 핵심 본질이다. 소그룹을 통해 생명의 회복이 있고, 말씀의 회복이 이루며 구원의 사역이 작은 공동체와 개인에게 확장된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신학적인 기초는 삼위일체론, 교회론, 기독교론과 함께 기독교 교육과 발달심리학이 포함된 실천 신학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 문화의 이해하고, 소그룹과 리더 교육의 상관 관계 그리고 소그룹을 통한 청년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

본 연구는 성경적, 신학적 원리와 청년부 활성화에 있어 성경적인 방법을 기초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소그룹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청년부를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사역했던 당일교회 청년부를 대상으로 소그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청년 사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역 중소형 교회 청년부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내용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점검하여, 교회 상황과 지역에 맞는 청년부 활성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8)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그리스심, 2010), 26.

소그룹과 리더 양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 목회 현장에 일어나는 소그룹 활동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오늘날 청년 사역에 어떻게 적용 가능할 것인가를 확인할 것이다. 청년부 성장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소그룹 리더들의 활동과 소그룹 성장이 청년부 성장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미치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1 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다룰 것이고, 한국교회와 청년부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범위와 한계 성경적, 신학적 근거와 연구 방법에 대해 진술하고자 한다.

2 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속에 나오는 청년의 의미를 살펴보고, 청년의 바른 이해를 위해 일반적인 이해와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성경적, 사전적, 신학적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발달심리학적 특색을 바탕으로 청년 소그룹에 대한 이론을 논할 것이다. 소그룹의 개념과 장, 단점, 소그룹이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청년들을 위한 소그룹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청년부 활성화 방안이 무엇에 핵심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에서 소그룹 활성화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표준이 되는 4 개 교회를 선정하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소그룹이 왜 필요한지, 왜 소그룹 리더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청년부 성장과 소그룹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왜 소그룹 목회 철학과 리더 양육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년 사역에 소그룹 사역이 중심이 되는 교회 대해 분석하고 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부 소그룹을 이끌어갈 청년리더들의 중요성과 소그룹이 청년부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논한다.

4 장에서는 청년 사역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교회 청년부의 실상을 분석하고 소그룹 활성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실제로 소그룹이 어떻게 청년부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앞으로 사역에서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리더와 소그룹에 관해 조사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소그룹 사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 소개되었던 사례연구 교회의 청년들도 리서치를 하여 현재 사역하고 있는 청년부와 적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 비교 분석 및 교차분석과 검증되어지는 부분들을 통해 청년 소그룹 공동체 성장을 위해 가감해야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과 현실의 문제점들을 밝혀 내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연구한 설문조사와 비교분석과 교차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리더 양육과 소그룹 활성화 방안 그리고 청년부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한다. 사역했던 교회와 청년부를 분석하고 목회철학과 방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교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앞서 연구한 내용을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들을 적용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자 한다. 중소형 교회 청년부에 소그룹을 통한 활성화 방안들을 연구할 것이다. 6장에서는 결론으로 제안과 연구 한계를 논하고 추가연구부분들에 대해 논할 것이다.

5. 문헌 검토

본 연구를 위해서 문헌의 분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청년기의 이해와 신체적, 심리적, 종교적 사회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헌들이다. 두번째는 한국교회 청년들의 실태 파악과 청년문화 특성 파악 및 성장 기본원리에 관한 문헌들이다. 세번째로는 소그룹 사역과 리더들을 세우는데 필요한 신학서적들을 찾고자 한다. 이 저서들을 통해 소그룹이 청년부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년부 목회자가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확신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신학도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분류의 문헌은 청년기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병림의 「청년 심리학」¹⁰이다. 심리학자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청년들은 항상 정신적

10) 장병림, 「청년 심리학」 (서울: 법문사, 1969).

지주를 갖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정신적 안식처로서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는 시기에 청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질문과 답변이 잘 제시되어 있다. 즉 시기에 따른 성장 발달 이해를 할 수 있는 저서다. 이 저서를 비롯해서 현대 청년 심리학과 인간 발달 심리학 등 청년 발달 심리학의 기초 지식을 가지게 되는 저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용기의 “청년목회 리더십 갱신을 위한 전략들: 일심교회 청년부를 중심으로”¹¹ 논문은 청년 사역에 목회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면서 청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잘 하고 있다. 신체적 지적, 사회적, 신앙적 발달에 대해 논하면서 청년들에게 적합한 리더의 모습과 목회 리더십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청년부에 대한 이해도와 목회 철학과 리더 양육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옥의 「청년 대학부 20•20 비전으로 재건하라」¹² 저서는 청년들이 누구인지 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지, 그들의 필요 충족 조건을 채워줄 소그룹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교회 사역으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년 사역에 관점을 대학 캠퍼스에서 교회 내의 청년부로 가져오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에 따르는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며, 통계 자료들을 통해 교회내의 청년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청년 사역이 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통해 인구 증가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회사를 통해 지역 교회에 적용된 실제적 사례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두 번째 분류의 신학적 관점의 저서들 중 김명룡의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¹³ 이다. 저자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국교회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열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론의 핵심이 중요하다. 개혁교회의 바른 이해는 청년 사역과 예배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도 매우 중요하다. 청년 사역의 활성화의 핵심은 바른 교회 공동체를

11) 민용기, “청년 목회 리더십 갱신을 위한 전략들”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12) 김정옥, 「청년 대학부 20-20 비전으로 재건하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13) 김명룡,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세워 가는 것이기도 하다.

유재길의 “지역 교회에서의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대전 성남 교회를 중심으로”¹⁴ 논문은 청년들의 이해와 기초를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문제점과 현재적 진단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 활성화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교회의 청년 사역 모델 비교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성장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청년들의 이해와 문제점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해 침체 원인이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구조의 문제와 청년 문화를 이해하는 전문 사역자들의 목회 철학이 중요한 부분임을 보게 된다. 이 논문은 실제 사례 비교 연구와 청년 사역 리더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부분임을 보게 된다.

임종학의 「청년 목자: 청년 사역 매뉴얼」¹⁵은 다년간 청년 전문 목회자의 삶과 비전, 사역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 도서에서 강조한 청년 사역 리더십의 실천적인 내용은 저자가 청년부 목회자로 고민한 내용들이 그대로 느껴진다. 특히 선교단체와 교회 모두 적용하기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청년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지침서 역할이 더 적합하다. 청년 사역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청년들을 세워야 하며, 그 사역이 교회 안에서 왜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저서는 청년 사역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한 고직한 Young2080 팀의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¹⁶ 라는 저서이다. 이 책은 청년 사역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역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성경연구 방법 및 소그룹 사역 방법이 매뉴얼과 같이 청년부 사역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쉬운 부분은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 사역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것에는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14) 유재길, “지역 교회에서의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박사학위 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15) 임종학, 「청년목자: 청년사역매뉴얼」 (서울: ESP, 2014).

16) 고직한, Young2080 집필진,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서울: 홍성사, 2003).

개러스 아이스노글(Gareth Weldon Icenogle)이 쓴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¹⁷는 소그룹 사역에 필요한 신학적, 성경적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도서는 목회자들이 소그룹 사역을 어떤 성경적 기초 위에 둘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신학적 기초를 가졌는지를 검증하게 한다. 이를 통해 소그룹 사역에 좀 더 확신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상갑의 “청년 사역 활성화 방안-무학 교회를 중심으로”¹⁸ 논문은 청년 공동체와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 형성과 유기적인 공동체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청년 목회의 건강한 방향으로 소그룹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 중심의 훈련 내용과 소그룹(셀)의 모임과 전도와 소그룹의 경험을 통한 청년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그룹을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며 공동체 의식을 세워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tz)의 「자연적 교회성장」¹⁹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여덟 가지 특성을 논하고 있다. 저자는 NCD 국제 본부 연구소의 창설자이자 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도서가 나오기까지 다양한 교회 5만여 교회가 참가해서 조사하고 비교하고 원리들을 적용하고 있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질적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질적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 교회에 성장을 가져오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교회 성장 이론에 대한 인위적인 방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성장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회 성장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장이고, 그 성장이란 자연적인 성장임을 강조한다. 특히 변화의 시점에 설 수 있는지, 질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활성화 방안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옥한흠의 「평신도를 깨운다」²⁰ 저서는 옥한흠의 목회 철학과 목회 현장의 제자훈련의

17) Gareth Weldon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18) 이상갑, “청년 사역 활성화 방안 - 무학 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19) Christian A. Schwartz, 「자연적 교회성장」, 윤수인 외 4명 역 (서울: NCD, 2000).

2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교회의 본질을 제자도에서 찾고, 평신도 리더들을 동역자들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제자훈련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다는 것인데, 이것이 소그룹 훈련에 강조점이 된다. 그리고 소그룹을 훈련하고 사람들을 세워 갈 때에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한다.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는 도서들, 청년들과 소그룹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특성이 나타나 있는 저서들을 통해 청년부 소그룹의 양적,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된다. 이를 통해서 교회 성장 방안을 연구하여 건강한 소그룹 활동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장임을 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년부 사역에서 리더 양육과 소그룹의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청년의 시기에 대한 말씀으로, 레위기 27 장 1-8 절, 출애굽기 30 장 14 절, 시편 110 편 3 절, 시편 119 편 9 절, 전도서 11 장 9 절, 전도서 12 장 1 절, 요한 1 서 2 장 14 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됨과 공동체성에 대한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6 장 15-18 절, 에베소서 1 장 23 절, 에베소서 2 장 11-22 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자와 제자 양육 및 소그룹에 관련된 말씀으로 마태복음 4 장 18-22 절, 누가복음 5 장 10-11 절, 누가복음 5 장 27-28 절, 누가복음 9 장 6 절, 누가복음 10 장, 요한복음 3 장 22, 요한복음 13 장 5 절, 요한복음 15 장 8 절, 행 13 장 52 절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제 2 장

청년과 소그룹 사역에 대한 이해

1. 청년에 대한 이해

청년부 사역 활성화와 소그룹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청년의 시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접근을 하는데, 이는 청년이라는 개념을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의 때는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시기로 보며, 자신의 삶을 책임질 뿐 아니라 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시기이다.²¹ 심리학에서는 ‘청년’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성장하다, 성숙하다’라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일생 동안에 있어서 신체적, 성적 성숙이 성립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과 정신적, 사회적 행동의 성숙화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청년이란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참 성장하거나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보통 20 대의 시기에 속하지만, 그 연령대는 더 넓어졌으며, 한국사회 속에서 30-40 대 이상인 연령대에도 여전히 미혼인 사람들이 많아졌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에 모든 발달은 연쇄적이고 단계적 순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순서를 거치며 발달하게 된다. 여기에서 청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아동기를 지난 13 세부터 24 세까지의 기간으로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발달이 나타나는 시기를 이야기한다.

청년 발달 심리학자인 장휘숙은 청년기를 청년 전기(12~17 세)와 청년 후기(18~24 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성인기의 시작과 함께 끝나기에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존재하는 과도기에 해당함을 강조하였다.²³ 이러한 이유로 청년기는 그들만의 독특한 심리 상태가

21) 총회교육부, “21세기와 청년목회”. 10.

22) 장병림, 「청년 심리학」 (서울: 법문사, 1969), 65.

23) 장휘숙, 「인간 발달」 (서울: 박영사, 2000), 252-60.

존재하게 되는데, 청년기는 보통 10대에서 시작해서 ‘자아 인식기(self acceptance), 제 2 반항기’ 등의 특징을 가지며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²⁴

쏬 다이크(E. L. Thorndike)는 교육적 입장에서 청년기까지의 발달 단계를 6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12세-14세 까지를 과도기(transition), 14세-18세 까지를 청년 전기(early adolescence), 18세-25세까지를 청년 후기(late adolescence)로 나누는데, 과도기는 중학교 시절, 청년 전기는 고등학교 시절, 청년 후기는 주로 대학교 시절이 된다.²⁵ 신체적, 성적, 정신적, 사회적, 행동적 등 모든 부분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시기이기에 심리적 이유기(psychological wearing period)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기성문화에 흡수되지 않은 주변인, 중간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²⁶

청년기는 학자들마다 구분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고, 관점과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생 주기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보면 청년의 시기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어느 시대나 아이, 청소년, 청년기, 어른, 노인에 대한 관점이 변해가고 있으며, 이 시기는 더욱 세분화되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청년의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교회 청년부는 대부분 20세 이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연령을 20-30대를 포함해서 더 확대시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기에 많은 학습과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한번 뿐인 청년기의 중요성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청년의 정의보다 청년의 시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 청년의 시기가 인생과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대학과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의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고, 청년들이 살아온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와는 다른 변화를 직면하게 된다. 진학, 전공, 일, 돈, 아르바이트, 이성문제, 취업, 사회진출, 결혼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많은 고민들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다.

24) 나병술, 「청년 심리학」 (서울: 예일출판사, 1973), 12-20.

25) 장병립, 「청년 심리학」 (서울: 법문사, 1969), 62.

26) Rolf E. Muuss, 「청소년 이론」, 송정두 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1), 10.

학교만 졸업했다고 성인이 청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시기의 불안과 스트레스와 걱정거리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기에 청년의 시기에 있는 이들은 성장주기의 한 영역으로 이해를 넘어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할 때라 여겨진다.

청년들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 시기에 대한 특성을 발달 심리학적, 신체적, 정서적, 성서적 발달 관점에서 청년들의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기독교 청년들의 모습과 그들이 소그룹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신앙인으로써 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일반적 정의

발달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시기를 바라보면, 신체 및 운동 발달, 인지 발달, 성격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정체성 발달 등 그 영역과 내용이 다양하다. 에릭 에릭슨(Eric H. Erikson)은 생애주기이론을 통해 인간의 일생을 8 단계로 구분하였다.²⁷ 그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인간 발달 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학자이다. 이 8 단계 중 청년기는 6 단계 친밀감과 고립감의 시기로 분류한다. 이 시기에 친밀감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고립감은 위기를 갖게 된다. 친밀감이란 비 이기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감정이나 가치관을 교류하는 성숙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아 정체감이 잘 확립된 사람이라면 원만하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에릭슨(Erikson)은 청년의 시기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지녀온 소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를 정체 위기의 시기라고 표현하는데, 인생 주기 중 정체 위기에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아동기의 잔존물과 예상되는 장년기의 소망으로부터 스스로 어떤 중심적인 전망과 방향과 어떤 통일성을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를 겪게 된다.²⁸ 이러한 정체 위기의

27) 강태훈 외, 「교육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이당, 1998), 72.

28) Eric H. Erikson, 「청년 루터」, 최연선 역 (서울: 인간사, 1983), 12.

시기에 청년들은 신경증적, 정신병적 행동과 비행을 병행한다. 그리고 종교나 정치, 예술, 문화 등에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가기도 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친구나 부모, 심지어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사회적인 위축을 느끼게 되어 결국은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²⁹ 이런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의식적이며 자신의 사회적 행동과 적응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만한 사회적 작용을 이루지 못한다. 이 시기의 친밀감은 결혼 대상으로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는 사회생활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포함한다. 즉 이성 관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통해 인간관계는 성숙해지게 된다.³⁰

이렇게 청년의 시기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많은 특징을 가지는 시기이다. 독립심이 강해지고 그들의 사고력이 발달할수록 간섭 받기를 싫어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싫어하기도 한다. 그리고 창조적이고 급진적인 성향이 많아지면서 새 경험과 모험을 가져 보려는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게 된다.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자아를 완성하려는 시기이기에 어떤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자세를 가진다.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에 유동적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시기이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직업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병행한다. 많은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학습의 시기를 가지다 보니 사회의 청년기가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관념과 사회적 기준에 고민을 통해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도 한다. 종교적으로는 회의의 시기라고 표현한다. 여러가지 의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며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거나 회의를 쉽게 가지게 된다. 청년의 시기에는 이렇게 방황과 고민과 심리적인 특성과 함께 사회적 특성이 성장해 가면서 주변인에서 장년기가 되어져 가는 시기이다.

29) 조복희 외, 「인간 발달」 (서울: 교문사, 2001), 51.

30) 송명자,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8), 384-85.

2) 청년의 성서적, 신학적 개념

파울러(James Fowler)는 종교적 신념발달의 6 단계를 제시하면서 신념(fai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청년의 시기에는 정체감의 상태에 따라 개인의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시기가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종교적 정체감 발달을 위해 중요한 시기임을 이야기한다.³¹ 청년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가지며 그들의 사고 능력이 성숙되어지는 시기이기에 대부분의 신학적 개념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³²

청년기의 종교적 특징은 청년 초기에 신학적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아직까지 신앙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나 반성 없이 받아들이기에 신앙의 모습을 동조의 신앙단계라 할 수 있다. 청년 중기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반성이 깊게 일어나며 자주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헌신, 삶의 방식, 신념, 태도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고 감당해야 하기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결정과 선택, 집단의 경직화, 처리능력의 역부족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회의를 경험하기도 한다. 청년 후기에는 자신의 신앙적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기에 인정과 포용과 소통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삶의 좌절도 받아들이고 집단에 구애받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³³ 이렇게 청년기는 성경과 신앙에 많은 관심과 정립과 재정의의 내리는 시기이다.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신앙의 확립과 발달과 신앙적 경험을 통한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일상의 보냄 받은 신앙인을 세우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신앙과 개인의 삶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인찬은 자신이 편찬한, 「성서 대백과」에 “유년과 청년에 대한 고대의 개념은 아주 부정확하고, 청년기나 사춘기를 뜻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청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도 실제로 매우 애매하였다”³⁴고 말하고 있으며, “청년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알(נַעַל)’은 단수,

31) 장휘숙, 「청년 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8), 56.

32) Ibid., 262.

33) 박원호, 「신앙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70-3.

34) 정인찬 편, 「성서 대백과」 (서울: 기독교지혜사, 1981), 818.

남성명사인데, 젊은 소년을 뜻하며, 구약 성서에서 약 235 회 정도 사용되었고, 신약 성서에서 유일하게 청년으로 번역된 단어는 고대 헬라어인 ‘네오테스(νεοτης)’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³⁵

성경에 나오는 청년의 때에 관련된 인물들 중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 30 세 청년이었다(창 41:46). 요셉은 청년의 때에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청년기를 인내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나이도 30 세이다(삼하 5:4).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 다니엘, 모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이 있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청년의 때를 보냈다. 시편 119 편 9 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 이니이다.”라고 말씀하며 말씀이 꼭 필요한 시기임을 말하고 있다.

욥기 33 장 25 절에서 “그런즉 그의 삶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라고 말하며 청년의 삶이 부드러움과 젊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시편 110:3 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하며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전도서 12 장 1 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말씀한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청년의 신앙임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청년의 때에 아름다움과 청년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함을 이야기함과 청년의 때에 위기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인생의 어느 시기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청년의 시기에 찾아온 삶의 위기가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적 기근으로 나타나며, 삶의 치명적인 위기로 나타남을 이야기한다. 예레미야 9 장 21 절 말씀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라고 말씀하며 삶에 찾아온 위기가 청년들의 삶에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을 말씀한다. 예레미야 때에 주어진 젊은

35) Ibid., 819.

시절의 비극은 하나님을 찾지 못한 비극이 나라 잃은 아픔과 삶의 위기로 나타난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 장 12-13 절에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함이 청년들의 삶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성경에서는 청년의 시기와 때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임과 동시에 청년의 신앙이 소중함을 알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있는 영적인 위기들이 있으며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한다. 청년의 때에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채우고 세워 갈 것인가 그 사명을 깨닫고 청년부를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인으로 진출하며 사회와의 접촉이 더욱 많아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 배우자, 직업이나 소명 등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기도 하며,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을 통한 새로운 가정 형성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통합적 신앙의 자리를 넘어서 개별적이고 반성적인 신앙을 가지려는 노력이 가능하며, 실존적 방식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들의 당면한 문제와 고민을 나누고 삶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교육적 배려가 요청된다.³⁶

3) 청년의 교회적 이해

청년부가 살아나고 교회학교가 살아나야 한다는 점은 한국교회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교회라면,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면 5년뒤, 10년 뒤의 교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점진적으로 청년 예배 출석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 숫자는 장년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과 별개의 숫자다. 요즘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 본 예배에 예배자로만 참석하고 빠져나가 버린다. 청년 예배와 모임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보니 청년 예배의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줄어들고 있고, 청년 예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36) 장로총회교육부, 「교육과정 이론지침서1」 (서울: 한국장로교출사, 2001), 164-5.

교회도 많다.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교회 부서와 찬양대에 교사나 찬양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 관점 외에 적절한 대안의 부재라는 부분이 청년 사역이 우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에서 청년부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기관이 아니다.

IVF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미 롱은 교회에는 18-35세 사이의 연령 집단이 최소한 25 퍼센트는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³⁷ 단순히 퍼센트와 위치만 차지하는 집단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활을 알고 이해하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복음의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어느 부서와 집단보다 더 장기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활의 터전이 아닌, 문화센터로 전략해 버리게 될 것이다. 좀 높은 퀄리티를 가지게 되면, 회원제로 운영되는 스포츠 센터가 될 것이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교회 됨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싫어한다. 모이기를 싫어하며 자기만의 시간이 우선시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생활, 직장, 학교 모든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간섭 받기 싫어하며 자기 의사표현은 분명하다. 출석교인의 숫자만 아니라 청년, 대학부의 모이는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인터넷과 개인방송의 사용자의 증가와 취업준비, 학비, 생활비, 다양한 취미 활동, ‘워라벨(work-life balance)’과 새로운 생활 방식과 정보의 다양화는 어느 곳이든 모임과 관계를 새롭게 조성하고 움직이고 있다. 전혀 모르던 이들도 하나의 관심사와 주제로 새로운 모임들을 전국, 전세계 어디든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모임들은 점점 비대면, 비 접촉 모임들로 대체되어져 가고 있다. 이 현상은 사회 현상일 뿐 아니라, 기독교와 모든 종교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대에 들어왔다. 물론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경제적 형편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37) Jimmy Long, 「새로운 청년 사역이 온다.」, 신현기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44.

올라가면서 자연스런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대체 종교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원규 전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는 “경제적인 여유는 사회적,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낸다. 여가 산업은 하나의 대체종교(alternative religion)로서 기성 종교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고 말했다.³⁸

놀랍게도 이 대체종교의 출현이 이단을 넘어서,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탈 종교화로 이어지고 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5년 종교인 비율은 50.4% 였다면 2005년에는 52.9%, 2015년에는 43.9%로 200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무 종교인이 56.1%로 종교인보다 더 많은 것이 조사되었다. 탈 종교화 사회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급격하게 탈 종교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 선이 어디까지 움직일지 알 수가 없다.³⁹

이 현상은 그대로 청년부 모임에도 나타나고 있다. 모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굳이 모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청년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소그룹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겹다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한 줄기 희망의 요소가 되어서 청년부 중요성을 실현하고 살리려고 하는 교회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축적하고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좋은 부분이라 여겨진다. 청년부 부흥과 사역의 활발성과 모임의 중요한 의미부여는 한국교회 부흥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철 목사는 청년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의 책에서 “청년 시절은 반드시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는 자기 가능성의 그릇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절대적 시기이다.”⁴⁰고 말한다. 청년의 때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하고, 청년 사역이 미래교회를 준비하는 시기임을 강조한다. 즉 '현존하는 미래'라고 부른다.⁴¹ 이 청년들의 모습이 내일과 직결될

38) 제 104회 총회 주제해설, “통계로 보는 한국교회 현재와 미래”. 11.

39) Ibid.

40) 이재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서울: 홍성사, 2009), 8.

41) Ibid., 9.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2. 소그룹에 대한 이해

1) 소그룹의 일반적 이해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서 정웅섭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과제를 이루려고 모인 사람들로 구성된 집합체로, 그 안에서 각 구성원들은 어떤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며, 인간적인 느낌과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밖의 사람들보다는 멤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모임”⁴²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내 소그룹은 4~12 명의 사람이 서로의 필요와 교회를 섬기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은 교회와 소그룹 멤버들의 상황에 따라 4 명보다 더 적은 인원이 모이기도 하고 인원수에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기도 한다. 박영철은 셀 교회론에서 “소그룹이란 5~15 명의 세례 받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 속의 또 다른 교회로 예배, 교제, 기도, 전도, 교육, 봉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경험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호간에 영적 삶을 위한 상호 의존관계를 맺은 모임”⁴³이라고 소그룹을 이야기한다.

먼저 청년 공동체의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식 진단과 사회적인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청년 공동체를 보면, 이들의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가족관계의 약화를 경험하면서 탈 공동체화,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해체를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들이다. 형제와 자매가 함께 자라면서 다듬어져 가는 경험이 빈약해졌고, 이것이 사회와 교회의 경험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이 청년들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핵가족 사회 속에서 성장한

42) 정웅섭, “그룹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 156」 (1980년 6월), 35.

43)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2009), 231.

청년들은 상호 보완적인 공동체와 나눔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경험이 빈약하기에 공동체의 경험을 꺼려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필요 충분조건, ‘올로(You only live once)’, ‘소확행(normal crush)’, ‘워라벨(work-life balance)’, ‘카르페 디엠(carpe diem)’ 등과 같은 정서적인 의미부여와 삶의 가치추구가 맞아 떨어지면 전세계 어디든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이지 않는다. 이 정서적인 부분이 현재의 많은 경제활동과 문화생활과 가치관을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콘텐츠들로 개인 만족도에 만족을 주는 생활패턴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 경험이 빈약한 이들에게 청년 공동체와 소그룹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절로 영향력이 형성될 수는 없다.

교회마다 청년부가 존재하지만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진단하면,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청년부로서 유기적으로 그 기능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은 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공동체의 소속감도 필요하고, 소그룹의 생명력이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들이 주체적인 사회참여와 의사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갈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정서는 이제는 경제와 문화 소비 등 많은 부분에 주축 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독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기독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양육과 훈련 과정들이 필요하다. 건강한 청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에서 소그룹으로 그리고 이 영향력이 대그룹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건강한 공동체 경험과 성경적인 공동체 경험이 부족하기에 점점 시간이 흐르면 청년 공동체와 소그룹들은 빈약해지고 모이는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은 신앙공동체의 의미와 필요성의 인식을 하지 못하기에 신앙 공동체가 줄어든다는 것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 학교와 교회에서 부모세대와 유대관계, 교육과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전수되어지는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록 교회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려우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인들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청년들을 제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양육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이기도 하다. 밥 로버츠는 “성경적 의미의 제자도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⁴⁴ 힘들더라도 청년부 공동체는 제자다운 제자가 세워져야 한다. 청년부들이 제자 삼는 양육과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지 못하면 청년 사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소그룹의 성경적 개념

지미 롱(Jimmy Long)은 저서를 통해 소그룹의 성경적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공동체 즉 소그룹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 최초의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만들어 가실 공동체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맺어 가야 할 관계의 원형을 보여준다. 창세기 2:23 에 나오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표현을 보라. 창세기에 나타난 그들의 관계는 별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였다. 그들은 서로 하나 됨을 깊이 인식하였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다.⁴⁵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최초의 소그룹은 가정이고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최초의 인간 공동체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은 홀로 존재해서는 불가능하다. 공동체 적인 상호교제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믿음 안에 소그룹의 형태로 거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상호 의존성이 인간 공동체 안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이후에 세상은 깨어진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진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이와 같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고 소그룹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44) Bob Roberts Jr., 「리얼 제자도」, 홍종락 역 (서울: 두란노, 2010), 132.

45) Jimmy Long, 「소그룹 리더 핸드북」, IVP 자료개발부 역 (서울: IVP, 1998), 28.

펼쳐지는 공간이 된다.⁴⁶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소그룹은 시작된다. 성경에 소그룹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소그룹에 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말씀들이 등장하며,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마음을 같이 한 곳에, 함께 모이는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 전도서 4 장 9-10 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한다. 두 사람이 한사람 보다 낫다는 것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동체성은 소그룹 공동체 관계를 통해 회복되고 이어지게 된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서로 함께 지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⁴⁷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통해 상호책임과 관계의 건강함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 활동들로 인해 바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의미와 삶이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신앙은 개인의 영적 지식의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고 청년들의 신앙은 공동체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단순히 교회를 오가는 청년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갈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 공동체의 문제로 나타난다. 건강한 청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인식하고 유기적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 가치의 회복이 필요하다. 양적 성장과 교세의 확장과 공동체가 커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 한 영혼의 회복을 가치로 여겨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내는 교회와 공동체, 청년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 제자들과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셨는데 마가복음

46) Ibid.

47)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도서출판그리심, 2010), 31.

3 장 13-14 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 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택한 제자들을 통해 소그룹 사역을 행하셨다. 제자들을 통해 가르치시고, 치유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소그룹 사역을 행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소그룹 활동을 통해 신앙인들을 세우시고 사역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회복 생명의 회복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사역의 참여자로 선교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 생활원리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진다. 이렇게 소그룹 공동체의 사명과 삶의 원리와 공동체성은 이 선교적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소그룹을 도나휴(Bill Donohue)는 일곱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만드신 것을 공생애 사역을 알리셨다. 둘째 예수님께서 큰 그룹이든 작은 그룹이든 모든 그룹 사역에 역동적으로 활동하셨다. 셋째 무리에 대한 사역은 소그룹으로 이루어졌고, 동시에 소그룹에서 시작하여 무리로 발전되었다. 넷째 예수님께서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그룹과 함께 보내셨다. 다섯 번째 소그룹 인도자로서 예수님께서서는 조직이 아니라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사역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여섯 번째 영적인 지식과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기 위해 소그룹을 활용하셨다.⁴⁸ 예수님께서서는 열두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름에 대해 고린도 전서 1 장 9 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이다”고 말한다. 초대교회와 바울은 세상에 복음은 전하는 소그룹이었고 이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복음전파를 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기적인 공동체를 표현할 때 건축자(엡 2:20)로 묘사했으며,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성장과 상호협력 관계를

48) 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 (서울: 네비게이트, 1997), 17-9.

장성한 자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표현했다(엡 4:16).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다(엡 2:21-22).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공동체는 각 지체됨이 존중되어지고 서로에게 인정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는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며 성장해 가게 된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를 회복하게 했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고 서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진다. 청년부 공동체는 이 속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쓰임 받고 서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진다. 각각 다른 사람에게 지체됨의 의미는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각각 은사에 따라 쓰임 받고 섬김에 대해 밥 로버츠는 “교회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분의 제자들, 곧 사회에 참여하는 제자들로 공동의 소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고 주위 세계와 더불어 사는 제자들임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 고 말한다.⁴⁹ 이것이 목회철학이 되어야 한다. 옥한흠 목사는 목회철학에 대해서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이 목회 철학인데 교회가 어디로 움직여야 하고 왜 움직여야 하는지를 목회철학은 보여주는 것이다.”⁵⁰ 고 말한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 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해답을 얻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 사역에 있어서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함께 할지 내다보지 않으면, 청년 사역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다. 이에 대해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앞으로 미래교회는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교회내에서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⁵¹ 교회 미래학자의 이 말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쇠퇴 내지 침체로 진단되어지고 있는 청년 사역에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래와 대안과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기 위한

49) Bob Roberts Jr., 「리얼 제자도」, 198.

50)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66.

51) Sweet Leonard,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열래 역 (도서출판 좋은씨앗, 2002), 13.

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해야 한다. 헌신과 열정과 지도력은 사라지고,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도 공동체 모임의 쇠약으로 이어진다. 청년부 사역자의 영적 리더십이 빈약해지는 경우에는 사역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역자가 변경될 때 마다 각자 좋은 방식과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제자 훈련을 통해 양육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복음을 도구화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양육과 훈련과 공동체성이 필요하다. 양육은 개인의 성숙만을 의미하지 않고 공동체의 성숙과 공동체의 생명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옥한흠 목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몇 명의 양들을 놓고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은 우리가 섬기는 작은 지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긍지를 가지라”고 말한다.⁵² 그만큼 목회현장에서 목회자로 한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된 리더가 필요하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쇠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제자로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사역자 마다 현실에 맞춰서 효과를 내야 하며, 양적 성장의 결과를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청년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질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복음을 삶으로 살아 내는 청년들을 세울 수 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상황과 현실보다 목회자들의 목회철학이 중요하며 우선순위가 무엇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양극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방법 지향적인 위험성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52) 옥한흠 편,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77.

이야기가 아니다. 프로그램과 이벤트 중심의 사역들이 교회 안에 성스러움과 구별됨의 이야기들을 점점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모습과 물질주의, 물량주의에 빠진 기독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공동체성은 사라져 버렸다. 세상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대신, 기독교인들이 쉽게 세속화될 가능성이 더 커져버린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 성장 제일주의, 회사와 같은 교회 운영, 대형교회 목회자와 소형교회 목회자의 비교, 목회다운 목회가 아닌 성공을 위한 목회 등 심각한 병리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물질주의, 물량주의, 외형주의, 교세확장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목회철학과 교회의 신뢰도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실용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독교는 천박한 샤머니즘 적인 모습으로 왜곡되어질 것이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 사건 사고들의 대부분이 비윤리적인 목회자들의 문제인 것을 인식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된 부흥을 조장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다. 다시금 말씀의 본질을 따라, 목회철학과 영혼 구원의 문제로 돌아가서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본질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소그룹의 신학적 개념

소그룹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나 양육, 관리 체계가 아니다. 소그룹은 창조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초대교회의 존재 형태와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삼위 일체 신학과 ‘코이노니아(κοινωνια)’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선교학과 실천신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교회도 공동체를 통하여 형성된다. 다양한 소그룹이 교회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소그룹 모임은 사람과의 관계로 형성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와 소그룹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 구성원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 구성원으로써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 한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써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선교, 교제, 봉사를 함께 이루어 가며 예배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모습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삶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신앙공동체와 소그룹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향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삼위일체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과 그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분으로 고백하며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 또한 성령은 생명의 주요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와 함께 계셨으며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칼빈(Calvin)은 자신을 한 하나님으로 선포하면서 동시에 세 위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한다.⁵³ 또한 옥한흠 목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소그룹이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환경이다.”고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⁵⁴

칼빈(Calvin)은 직접 소그룹이란 단어를 언급하거나 소그룹에 대해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강요 제 4 권 교회론에서 그는 말씀 중심의 예배와 목사를 통한 경건과 권징의 가르침, 장로(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통한 양육, 지사의 구제를 강조하고 있다.⁵⁵ 칼빈(Calvin)은 말씀 중심의 소그룹 예배를 드렸다. 이는 소수의 성도가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운 것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며 드리는 형태이다.⁵⁶ 칼빈(Calvin)은 어떤 지도자보다 교회 조직을 중요시 여겼고,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공동체는 직분자를 통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통해 소그룹부터 대그룹까지 섬기는 일을 했었다. 상호 격려하며 말씀을 통한 소그룹 관계성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였다.

공동체와 소그룹은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혼자 교회를 이룰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있어 소그룹 활동은 그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5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1」, 김종흡 외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13-21.

54)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239.

5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상)」,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8), 112-7.

56) Jean Cadier,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62.

청년들에게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의 지체 의식을 가지게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를 통해 확인했다면,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행함으로 몸소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소그룹을 통해 알게 된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 청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소그룹을 통해 서로 노력해 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소그룹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 기독교에서 소그룹은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임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 존재한다. 죄의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케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간의 파괴된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신약 교회는 바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된 공동체가 되었다. 초대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었다. 그 공동체와 소그룹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위로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다시 사신 의미와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까이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게 된다. 공동체의 시작이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독교 공동체성을 가진 활동들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에 소그룹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

그리고 소그룹은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 관념적으로만 이념으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념, 지식, 관념에만 사로 잡혀 있는 이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실재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고,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른 별개라고 생각한다. 믿음과 현실, 믿음과 경험 사이의 깊은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⁵⁷ 신앙인으로 믿음과 의심 사이를 걸어가며 믿음을 발견해가고 찾아갈 수 있지만, 신앙과 현실을 분리시켜 버리는 신앙인들이 나오게 되었다.

선데이 크리스천(Sunday-Christian), 신데렐라형 크리스천(Cinderella-Christian) (주일 낮 예배가 11-12 시 사이에 있기에 그 시간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신앙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모호한 것이 없다. 실제로 나의 삶에 내면화 하는 과정과 활동들이 없으면, 신앙생활만큼 정리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없다. 그렇기에 소그룹을 통한 신앙의 내면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청년의 시기에 있는 이들에게 신앙의 성장과 함께 그들의 정서적 성장과 성숙을 돕는 사역 방안으로 소그룹 사역은 청년 공동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회의 참된 의미와 그 맥락이 맞닿아 있다. 소그룹은 교회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의미를 살려내는 사역이 된다.

57) J. Heinrich Arnold, 「공동체 제자도」, 원충연 역 (서울: 홍성사, 2010), 50.

3. 소그룹의 핵심원리

1) 전문 지도자의 중요성

어느 모임, 어느 조직이나 리더의 이야기는 빠질 수 없다. 모든 곳에서 리더와 조직은 정비례한다고 말하며, 리더십의 이야기는 관계, 조직, 모임, 소그룹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헨리 블랙커비(Henry T. Blackaby)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거인 조직이 난쟁이 리더 밑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⁵⁸ 블랙커비(Blackaby)의 영적 리더십은 리더십과 기독교 영적 리더십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전문화되지 못한 사역자,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대로 그 부서와 모임과 조직으로 그 영향력이 이어지게 된다는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 청년 사역도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핵심 사역이며,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역이지만, 가볍게 여기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번쯤 경험하고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리더십들의 인식도 있다. 리더십은 훈련되고 준비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통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만들어진다.⁵⁹ 개인적 고뇌와 고생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고, 청년의 사역의 자리도 이렇게 만들어질 때, 더 성장하게 된다. 이런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한국교회 현실이 쉽지는 않다. 거의 대부분의 청년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4 가지 이상의 사역들을 복합적으로 섬기고 있다. 구조자체가 청년 사역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전문 사역자는 청년들이 많고 예산이 많은 교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 인식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부분은 어떤 리더십이 새로 오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이 아닌, 그 청년 공동체가 가지는 정체성과 시스템을 가지고 리더십과 사역자들을 함께 성장시켜가는 방향성도 필요하다.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리더십에게 계속되는 한계점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지도자들과 공동체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리더십이 이 본질이 흔들리거나

58) Henry T. Blackaby, 「영적 리더십」,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3), 48.

59) Ibid., 60.

모호하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리더인가를 인식하고 있다면, 다음으로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에 대해서 김세운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선포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도래했다면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⁶⁰ 둘째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말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메시아 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 되게 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의 관계로 새 창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이다.⁶¹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종말의 백성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이며 하나님의 통치사역을 계속해서 대행하는 분이 그리스도이다.”⁶²라고 선포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혼란이 온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없고 나의 삶과 예수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모호하게 된다. 그러며 그 자리를 유사한 이야기들이,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주장하게 된다. 인간의 행복추구에 있어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청년들에게 이런 영성을 전해야 하며, 변질되지 않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복음의 이해에 대한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성경공부와 복음의 대한 이해를 부지런히 하여 기독교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청년 사역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60)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12), 45.

61) 김세운,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1), 151.

62) Ibid., 188.

2) 리더의 중요성

소그룹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핵심이기도 하다. 수년 전만 해도 대학 캠퍼스의 선교 단체들은 주중사역과 기도모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팎에 청년들의 모임에 영적 에너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임들이 예전에 비하면 크게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청년 사역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된 핵심 사역은 바로 소그룹 사역이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청년들을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관심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스마트 폰 과 인터넷에서 이미 정보를 공급받았기에 모임에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관계의 중요성이 상실되어지고 있다. 인류의 문명과 과학기술은 필요성에 의해 발달된다. 하지만 인간의 정서와 감정에 더 가까운 것만 살아남는 것들만 상용화 되어지는 것처럼, 소그룹 사역은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소그룹은 어디에서 모이든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든지,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소그룹 모임의 장점이다. 작게는 2-3 명에서 시작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 가는 어느 시대에나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 유기체적인 청년 공동체를 만들고 양육할 수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소그룹을 잘 만들고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리더그룹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그룹 사역에 있어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세상속에서도 보냄 받은 크리스천으로 세울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소그룹 사역이 가능하게 한다.

3) 소그룹의 중요성

청년들을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의 활동들이 동반된다. 공동체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활동들과 주도적인 소그룹 활동, 하나님 나라 중심의 활동들과 이성이 함께 하는 활동들이 잘 정리되어야 하고, 섞여 있어야

한다. 청년의 때에 소그룹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활성화되어질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제약 받지 않는 활동들은 청년들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간섭 받지 않고, 제약 받지 않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자기만의 영역, 공간을 청년들은 원하고 있다. 청년부실, 소그룹 센터, 사무실, 북 카페, 카페에서도 독립된 공간을 원한다. 이러한 공간들을 마련해 주어야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고, 약간의 독립성이 부여되어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영적 분위기가 풍기는 공간을 좋아한다. 공간의 분위기가 그날 소그룹 모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청년들이 원할 때 개방될 수 있는 배려가 된 공간은 중요한 요소이다.

청년의 때는 시간과 공간이 의미를 다르게 부여한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간섭과 통제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시공간을 원한다. 기성세대와 달리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미만 부여되고, 가치를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간다. 이들은 제약 받는 시공간의 테두리에 가두어 놓으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자신들과 친숙한 예배의 내용과 언어와 찬양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들이 익숙한 찬양, 예배의 형태, 말씀을 필요로 한다. 청년들에게 맞는 템포의 찬양과 예배를 위한 예배 분위기와 시설과 악기와 음향장비들과 예배장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의미 없는 일에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여기며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활동을 한다. 자신의 시간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이 활동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시간이 무의미하게 낭비된다고 여기면 점점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렇기에 무료하고 답답한 시간이 반복되거나 쓸모 없는 소모전으로 낭비되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활발한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청년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적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지 않는 활동이 청년 소그룹을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게 할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간섭 받고 규제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거나 교회 활동에 커다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⁶³ 또한 교회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전통을 강요하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생겨나게 된다. 청년들은 이유 없이 교회 전통을 따르라고 하면 이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존에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청년들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렇기에 청년 소그룹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주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청년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한다. 교회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청년리더십이 발휘되기에 좋은 모임이 소그룹 중심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소그룹 활동이 청년들에게 활동의 영역을 좀 더 넓게 해 주는가 하면, 청년들 스스로 쉽게 동화될 수 있게 해 준다. 기쁨의 교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돌봄과 나눔과 교제의 깊이를 더 깊숙하게 형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쉽게 배우게 되고, 공동체의 특성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⁶⁴

소그룹을 통해 청년들이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각 개인들이 마음을 열고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며,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역하는 관계를 통해 신앙의 경험적 이해를 넓혀가게 된다. 이 관계성 속에 소그룹 활동은 각자의 비전과 재능과 능력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 된다. 대인관계에 성숙하지 못한 청년들은 다른 이들을 수용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다른 이들과의

63) 최대복, 「청년들이 물려온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97.

64)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221.

관계 속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내면과 장단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변화와 성숙함으로 작용한다.

소그룹은 단지 모임과 숫자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임을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삶으로 잘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그룹 구성원을 서로 더 잘 알 수 있게 되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실천하게 된다. 이점은 대그룹과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⁶⁵

소그룹은 교회 안에 지속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삶은 동기와 구호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경험하게 하려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부르심을 따라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변화를 가장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다 확실하게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가능성을 보게 될 때, 소그룹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 신앙을 경험할 것이다.

또한 청년의 시대 정신이 그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기도 하는데, 바르게 분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청년 소그룹에서 가능하다. 젊음, 도전, 열정, 역동성 등이 청년의 삶을 대표하는 단어들이라면, 이것이 기성세대의 전적인 신뢰 속에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판단력과 양심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적과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 청년의 정신이 담긴 활동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정확한 신앙적 목적이 있는 공동체의 청년들은 소그룹 활동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 청년의 시기의 열정을 예수의 정신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세우며 그 소그룹 안에 나타나

65) 유성준,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서울: KMC, 2010), 24-8.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자기자신의 행함으로 인해 자기자신을 통해 공동체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의 넘치는 열정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그 정신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는 소그룹은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것이다.

그리고 청년 공동체 안에는 남녀의 활동이 섞여 있다. 남자만 있는 그룹이나, 여자만 있는 공동체는 없다. 함께 지어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커져 가게 된다. 청년 공동체에 여자만 존재한다면, 조용한 날이 없거나, 시기와 질투만 난무할 수도 있다. 남자들만 있다면, 투박하고 거칠고 분쟁과 다툼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청년 소그룹 안에는 형제, 자매가 골고루 섞여 있으며 이 선한 작용이 서로의 사랑과 섬김으로 절제와 지혜로움으로 변화되어진다.

청년의 시기는 가장 건강하고 힘이 넘쳐나는 시기이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불안이 적고, 충동적인 면도 많은 시기이다. 그리고 이성을 향한 관심이 많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의 시기적 특징들을,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향하게 하고, 삶의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을 향하는 에너지들을 줄여가게 해 줄 수 있다. 청년들이 가장 민감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성이다. 성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성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됨의 일부이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자연스러운 인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그들이 분리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되도록 인도하신다. 청년들은 나와 정반대라고 여겨지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비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성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다양성을 보게 된다.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 고립은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이성과 함께 하는 소그룹을 통해 남녀가 신앙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잘못된 장벽을 허물고 예수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진정한 청년 공동체의 신앙적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다.

청년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 청년 소그룹 활동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삶에 도전과 부르심을 위해 반응할 줄 아는 세대이다. 이 부르심을 알고 적극적으로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해 실천을 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⁶⁶

하나님 나라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존의 문화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을 위해 공동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성공지향주의, 숫자 모으기에서 벗어나서 성경 중심의 공동체로 돌아와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신앙 생활, 소그룹 활동, 공동체의 모임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부름 받은 교회로 살았다면 세상에서 보냄 받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연결고리를 통해 나와 하나님, 생명, 세상, 자연, 사회, 삶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20)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도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청년공동체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⁶⁷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 소그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소그룹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소그룹을 경험해 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66) 김준곤 외, 「청년 그 희망의 이름」 (서울: 순출판사, 2004), 120.

67) 김원태, 「청년아 영적 부흥을 꿈꾸라」 (서울: 두란노, 2002), 113-9.

4) 소그룹의 순기능과 역기능

소그룹 활동의 순기능은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강화시킨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합하게 한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를 벗어나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게 한다. 교회의 본질을 강화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창 1:27). 계속해서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만드셨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창조 질서로 이야기하셨다.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을 통해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합하게 한다. 소그룹 활동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혼자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 되어진다. 가식적인 모습을 벗어나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도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 이런 관계성과 배움은 혼자만의 생활 방식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부분이며, 이것이 사회성과 관계성으로 그리고 함께 연합되어지는 모습으로 삶에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게 된다. 지금 사회는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진다. 교회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개인주의가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 전도를 나가는 일은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것이 교회 밖에서 실천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 낯선 일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소그룹을 통해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나눔과 섬김을 알게 되고, 나보다 교회와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 베풀면서 자신의 삶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나눔의 힘이 무엇인지 소그룹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소그룹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소그룹 활동의 역기능은 첫 번째로 소그룹에만 집착하게 되어 교회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단이나 다른 교리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 또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 소그룹

활동을 제대로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삶에 영적 활력도 생긴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이들로 인해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교회생활에서 소그룹 활동만 최종 목표로 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그룹 활동만 전념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 오히려 소그룹 모임에만 나오고 예배와 교회 전체 모임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또 이로 인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예배와 소그룹, 대그룹과 소그룹 활동의 균형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 신앙생활의 큰 방향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이단이나 다른 교리에 전체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 소그룹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알지 못하는 다른 이와 접촉이 쉽게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모임들에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 이단들이 교묘하게 섞여 들어오게 되면, 전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고 배우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모임에 다른 이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소그룹 모임의 정의를 내리고 교회로 인도할 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 번째로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좋고,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다 보면, 그 소그룹의 이야기가 점점 커지게 될 수 있다. 소문이 나고 잘되는 소그룹들은 구성원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교회에서 차지하는 역량도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때마다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4. 소결론

청년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의 시기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청년의 특성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과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과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가장 잘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그룹 사역이다. 청년들이 예배자로 참여하고 예배자의 삶을 청년들과 함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기에 모든 청년들이 신앙의 성장과 변화와 교회 공동체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그룹을 세워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더 양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사람이 공동체와 소그룹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소그룹을 통해 청년의 때에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개인주의 속에 자라온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우고, 이웃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시너지를 우리의 삶에 일으킨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가시는 곳 마다,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친밀함 속에 믿음을 자라나게 해 주셨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이다. 함께 활동하고, 다니면서 청년들이 소그룹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되고, 신앙을 배우게 되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부름 받은 사람으로 교회에 왔다면, 소그룹을 통해 이 땅에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청년 소그룹 활동과 리더 양육은 이 시대 청년 사역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제 3 장

청년부 성장을 위한 소그룹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1. 사례연구에 관한 제안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회 청년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가 끝나고, 침체분위기로 가는 가운데 청년부 역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가운데 몇몇 교회들이 청년 사역에 모델이 되고 있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교회의 전략과 실재를 연구하여 청년 사역 활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활성화를 이루어 가는 청년부가 한국교회 대형교회와 소수의 청년부에만 국한되어져 있는데, 그 실재를 잘 살펴보아 지역교회의 부흥과 중소형교회의 청년부의 부흥과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교회의 청년부와 다음세대가 살아나야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여겨진다.

청년부 소그룹 사역과 제자 양육 사역에 있어서 지난 20 세기에 내수동교회의 활동과 영향력은 매우 컸다. 원로 목사이신 박희천 목사님에게 배운 목회자들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소그룹 사역, 제자양육과 리더를 세우는 일에 탁월한 영향력을 보여왔다. 그리고 소그룹과 제자양육은 아직도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사회에 청년사역과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의 성장과 제자양육, 리더십들을 세우면서, 한국 교회 청년 사역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내수동교회 출신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소그룹 사역을 통해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내수동교회의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랑의교회 청년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부만 아니라 교회 전반적으로 제자양육과 삶의 이어지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의 방향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다른 소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보았는데, 시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과 사역을 자신들에게 맞게 적용하고 변화시켜서 교회의 전통과 흐름도 잘 흘러갈 수 있게 사역하고 있는 무학교회 청년부의 사역 내용을 보고자 한다. 이들은 이 청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삶으로 실천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번째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안양제일교회의 청년사역활성화 방안은 청년전문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청년부의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도 볼 수 있고, 청년부 소그룹 활동의 다양성과 유동성도 살펴볼 수 있다.

네번째는 현 시점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소그룹을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안교회의 사역을 통해 청년부의 활성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언급을 하지 못한 교회도 있다. 지금은 그렇게 모델링을 하기에 좋지 않은 교회도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교회 현실이라 여겨진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 나가고 회개하며 돌아서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지켜보게 된다. 한국교회 청년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방향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지역 교회 청년부에도 좋은 모델링이 되었으면 한다.

본 장에서는 청년 사역 활성화 모델이 되는 교회들을 선정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선정된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역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부의 비전, 핵심전략, 가치, 전문성은 어떤 점들은 가지고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와 모임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예배와 모임의 활동력과 영향력이 삶의 자리와 선교로 이어지는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소그룹 활동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그룹 활동에 제자훈련과 리더를 세워가는 소그룹들이 있어서 리더와 제자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그것이 영적 성장과 부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자 양육 소그룹을 통한 청년부 성장 모델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사랑의교회는 제자 훈련이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져서 소그룹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은 교회이다. 제자 훈련을 핵심모토로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으며, 평신도를 목회의 주체로 여기는 목회철학은 원로 목사 때부터 이어져 온 사랑의교회 특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영적 분위기는 청년부와 대학부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소그룹 사역도 역동적이다. 한 영혼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좋은 시스템과 사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1) 핵심가치 (비전, 핵심전략, 가치, 전문성)

네비게이토 선교 단체를 통해 소개된 제자 훈련을 지역 교회에서 접목시키고 정착시킨 이는 옥한흠 원로목사이다.⁶⁸ 옥한흠 원로목사는 1978년 사랑의교회를 개척하여 2003년 은퇴할 때까지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으로 평가되었으며, 사랑의교회의 모든 내용은 제자 훈련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 청년부도 역시 제자 훈련을 행하고 양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청년부 비전과 사역철학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랑의교회 비전은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나라를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청년제자 운동”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복음주의 영성과 일터에서의 소명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핵심 사역철학으로 삼고 있다.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세계선교운동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⁶⁹ 또한 청년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훈련과 양육, 사역, 교제에 대한 부분을 매우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운영시간까지 공개하면서 온전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일예배와 양육, 교제, 성경공부, 소그룹 모임, 제자훈련, 선교 훈련 및 동참하기 등 다양한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부를 통해 교회 모토와 동일하게 균형 잡힌 제자를 성장시키고,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 이 신앙의 분위기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영성과 지성, 하나님의 나라의 삶, 교회생활과 세상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 균형 잡힌 성장을 하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제자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68)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2.

69) 사랑의교회, 청년부 [온라인 자료], <http://yos.sarang.org/vision/>, 2020년 2월 18일 접속.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도록 하게 한다.⁷⁰⁾

균형 잡히고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민족의 복음과 세계 선교화를 이루어 가고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게 청년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된다. 청년부의 사역 방향은 단순히 교육받고 양육 받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 제자훈련을 수료한 자들은 리더로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섬길 수 있는 자라는 조건을 달고 있고 그 기간 동안 필수학교와 선택학교를 양육을 받으면서 다시금 영적인 에너지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회와 세상의 삶에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 겹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향력이 계속 커져 갈 수 있도록 그것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고 있다.

또한 다음세대를 생각하고 청년의 시기에 매우 특별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며 기성세대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연결고리를 하면서 다음세대에게 비전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 건강한 제자의 삶이 단순히 자신들만의 삶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함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핵심가치인 건강한 제자들을 세우고 또한 균형과 능력을 겸비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청년부 모임의 실제 (복음선포, 예배, 양육, 사역내용)

제자양육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가족 및 교육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제자양육과 사역자 양육을 하고 있지는 않다. 특별히 이 과정을 거친 청년들은 리더와 사역자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한다.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가족 양육과 성경공부, 양육프로그램들을 순서대로 양육 받게 하고 있다.

순서대로 보면, 사랑의교회 청년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먼저 새가족 모임이 소개되고 소그룹 소속이 된다. 새가족 모임을 통해 5주 과정을 마치며 교회 등록이 가능하다. 5주 과정을 수료하면

70) Ibid.

소속이 정해지고 각 소속된 곳에서 기초 과정 GBS(Group Bible Study)에 참여하게 된다.

새가족 주차 별 진행 내용은 1 주차는 O·T 시간을 통해 청년부 소개와 개인기록 카드 작성 및 신앙 진단 질문지 작성, 소그룹 내 자기 소개를 하게 된다. 2 주차에는 1 과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3 주차에는 2 과 끈고한 인생을 양육하게 되고, 4 주차에는 복된 소식을 양육한다. 5 주차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한 후에 6 주차에 주인 되심, 7 주차 인생의 목적 8 주차 교회에 대해 양육한다. 새가족 양육교재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⁷¹ 성인들은 보통 4-5 주에 진행되는데 좀더 다양한 내용을 청년들을 다루고 있다. 각 부에 소속되어 GBS(Group Bible Study)를 통해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게 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교육국 교육일정〉⁷²

	1 년	2 년	3 년
상반기	모세오경	시가서	교리
	신앙의 기초 1&2	신앙의 기초 3&4	데이트와 결혼
	일터	신약서신	구약 역사
하반기	복음서	구역선지	신약 역사
	데이트와 결혼	신앙의 기초 1&2	신앙의 기초 3&4
	세계관	제자도	복음

예배하는 청년이 세워지도록 전체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다. 일상의 예배자를 세우는 일이 소그룹과 신앙인의 삶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거나, 본인의 직업과 학업으로 인해 예배를 등한시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과 시기에 행사하듯이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 명 한 명을 예배자로 세워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소그룹들로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미 있고 특화된 소그룹 모임들을 만들어 사역을 하고 있다.

71) 사랑의교회, 청년부 [온라인 자료], <http://yos.sarang.org/nurturation>, 2020년 2월 18일 접속.

72) Ibid.

3) 양육 시스템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가?)

청년부 역시 사랑의교회 특성이 제자 훈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교회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인터넷만 열어 보아도 제자훈련에서 시작되어 선교훈련, 가정사역, 북한선교, 청년 멘토링, 멘티 모집 훈련내용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져 있다.⁷³ 청년부도 양육 아카데미에서 신앙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제자훈련 페이지도 따로 소개하고 있다. 제자훈련은 평신도 훈련 중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제자 훈련을 시작할 목표, 대상, 구체적인 훈련 방법, 실제적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훈련을 하게 한다.⁷⁴ 아마도 어느 정도 내적 인프라를 가지지 못한 교회에서는 고민도 할 수도 없는 내용 인 것 같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양육을 받고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아마도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에 과정과 단계별로 훈련 반 양육과정에 따라 양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GBS(Group Bible Study)를 한 과목 이상 수료한 자들 가운데 선별하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다.⁷⁵ 이 과정이 모두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리더를 위한 과정이므로, 청년부 교육 프로그램과 사역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제자양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미 시작할 때부터 리더와 헌신자로 사역할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제도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선 순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역자들도 사역훈련을 통해 또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가지지 않은 청년부에서는 따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당장 세울 리더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부가 더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리더로 세웠다면 어떻게 양육하고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73) 사랑의교회, 교육훈련 [온라인 자료], https://www.sarang.org/ministry/div_sitemap.asp, 2020년 2월 18일 접속.

74) 사랑의교회, 청년부 제자훈련 [온라인 자료], <http://yos.sarang.org/disciple>, 2020년 2월 18일 접속.

75)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193.

부분이라 여겨진다.

4) 소그룹 활동 내용

기본적으로 제자양육과 성경공부 그리고 리더를 세우는 과정들 모두다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일관적인 회중 식 교육이 아니라 양육하고 기도하고 함께 공유해 가며 청년들을 세워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그룹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화된 소그룹을 만들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으고 있는 방법이다.

사역부는 예배국, 홍보국, 영성국, 사회문화&일터 선교국, 국내선교국, 북한 선교국, 해외 선교국, 행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⁶ 사역의 전체적인 방향은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에서 세상을 섬기며 이끌어가는 공동체로 더 나아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영성국은 청년부 공동체 전체의 말씀묵상과 기도, 전도에 관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기도 학교팀과 전도 학교팀, 영성국 학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⁷

국내 선교국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현재는 영등포 쪽방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섬김의 손길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섬김을 기획한다. 현재는 운영팀과 쪽방촌 팀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⁷⁸

해외 선교국은 국내 사역, 해외사역, 종족 소개 사역들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자들을 동역자들로 세워가고 있다.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열방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소그룹 모임이다. 여름과 겨울에 걸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 파송하고 있다. 청년부 출신의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들을 기도와

76) 사랑의교회, 청년부 사역소개 [온라인 자료], <http://yos.sarang.org/ministry/>, 2020년 2월 18일 접속.

77) Ibid.

78) Ibid.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다. 종족팀으로는 아프리카,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앙아시아 등의 팀들이 있으며 운영팀이 이를 관할하고 있다.⁷⁹⁾

이를 통해 국내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고,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함께 노력하며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맞물려서 사회 문화 선교도 하고 있으며, 상담 사역팀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타인을 이해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한 선교국과 국내선교국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와 일터선교국도 함께 사역을 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와 교회를 생각하는 모임들도 있으며, 기독교적 안목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기도하고 있다.⁸⁰⁾

이상 살펴본 사역들을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소그룹을 만들고 그 소그룹들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고 교회의 하나님 가치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갈 수 있도록 돕고, 연결하고, 세워가는 역할을 교회 청년부가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사회 속에 작은 섬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을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지는 힘과 경험을 함께 해가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된다.

5) 평가

청년 사역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교회가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교회의 하나님됨이 무엇인지, 이 지역사회에서 혹은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떤

79) Ibid.

80) Ibid.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해 준다. 또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역자로부터 시작해서 리더들과 소그룹 그리고 새가족까지 모두가 이 정신과 마인드와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 세상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방향성을 잃지 않고 소그룹을 만들고 흩어져 있는 소그룹을 통해 다시 사역에 집중하게 하면서 양적 질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 가는 것을 보인다.

물론 지역에 작은 교회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구조의 틀이지만, 핵심 가치를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다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핵심가치를 교역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그룹 부원까지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공유한 만큼 힘이 되고, 사역의 능력이 될 것이다.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핵심가치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 되어 사역자의 변동, 유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속적인 가치가 더욱 커져가고 세상의 가치관과 운영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움직여가는 시대이지만, 제자를 키워내고, 그 제자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대단한 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한 사역은 힘을 잃지 않고 청년부의 질적 양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한다. 이런 부분을 각 교회 청년부마다 핵심가치로 둘 수 있다면 성장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3. 소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청년부 성장 모델 (동안교회를 중심으로)

동안교회 좀 더 많은 전문 사역자들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청년부는 교역자와 협력해서 리더들 중심으로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소그룹을 통해 청년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사역을 활성화해 가고 있다. 대학부와 청년부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청년부 사역이 전문적으로 이루어 지는 교회 중 하나이다. 인근지역에 3-4 개의 대학들이 있으며, 청년에 대해 매우 세부적으로 대학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소그룹들을 만들어 놓았다. 요즘 시대에 결혼이 늦어지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40 대 청년부도 청년

10 부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⁸¹ 이외에도 목장공동체 형식으로 신혼부부 5년차까지의 모임을 통해 신혼마을공동체가 있으며 부부마을과 장년마을들로 여러 개의 목장형태로 공동체 모임을 해 가고 있다.

1) 청년부 핵심가치 (비전, 핵심전략, 가치, 전문성)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소망하며 청년부는 27 세 이상의 결혼 전 미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셀 모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누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지향한다.⁸²

대학부는 대학 5 부까지 소그룹을 나누고 26 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부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수많은 소규모 셀들로 이루어져 있다.⁸³ 대학부는 주일 5부 예배 후에 각부 모임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양육과정을 통해 새가족들이 풍성한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셀 리더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이 세워지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⁸⁴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있다.

동안교회는 사명과 비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형태인데, 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특이하게 교회 핵심전력과 가치를 단순히 교회의 전통적인 사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읽고, 시대의 교회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며 감성이 중요한 시대로 보고, 우리의 삶에 상처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81) 동안교회, 청년부 [온라인 자료], <http://www.dongan.org/cell/cell06.asp>, 2020년 2월 24일 접속.

82) *Ibids.*

83) 동안교회, 대학부 [온라인 자료], <http://dongan.org/cell/cell05.asp>, 2020년 2월 24일 접속.

84) *Ibids.*

것을 알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심령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감성의 회복을 통해 더욱 활발히 활동하며, 감정적인 부분이 놓칠 수 있는 책임감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자기 중심주의 적인 문화를 캐치하고 공동체성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 번째로 다원화와 혼합주의의 흐름을 인식하여, 다원화와 혼합은 종교,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맞는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성을 세상은 원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세계관을 교회에 요구한다. 그렇기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무차별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를 모토로 성장이 있고,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 아래 청년부도 활동을 하고 있다.⁸⁵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부는 양육과정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새생명반, 교회생활, 교회와 목양, 중보기도, 양육, 셀 리더 훈련의 시스템을 통해 양육을 받게 된다. 새가족부와 부서모임 셀 모임과 양육 그리고 리더십 훈련과 크리스천 리더십 학교로 모든 훈련들이 진행되어진다. 크리스천(리더십에는 중보기도학교, 큐티 학교, 바나바 사역이 있다. 이를 통해 각 연령별로 새가족의 상황의 맞게 스텝과 리더로 섬기게 된다.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는 양육 프로그램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로 세워가고 있다.

2) 청년부 모임의 실제 (복음선포, 예배, 양육, 사역내용)

청년부 양육과정은 청년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새 생명반에서 환영 및 청년들을 맞이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새가족에서 새로 등록한 청년을 확인하여 리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안내를 시작한다. 새가족부실로 이동하여 새로 온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소그룹인지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소속된 리더가 그를 소그룹 부서 모임으로 안내를 한다. 한 부서당 80여명의

85) 동안교회, 사명과 비전[온라인 자료], <http://www.dongan.org/church/vision.asp>, 2020년 2월 24일 접속.

인원들이 있고 여기에서 4주간 양육을 받는다. 그리고 새가족 부서 모임을 통해 적응된 청년을 소그룹 모임으로 인도한다. 소그룹 모임으로 넘어가면, MTS 양육을 받게 되고 이 과정이 마치고 나면 LTS 양육(셀 리더십 훈련)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후에 중보 기도학교, 큐티 학교, 바나바 섬김 사역들의 사역훈련을 통해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다. 짜임새 있는 교육 및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양육기간을 두고 청년 사역자들로 세워가고 있다.⁸⁶

소그룹 리더들은 부서 임원과 스텝으로 구성하여 행정적인 부분과 소그룹 원들을 섬기고 있다. 리더 훈련은 청년들 중에서 훈련된 교육 가능한 청년들로 이루어지고, 그들을 담당 목회자가 8주 과정으로 다시 훈련하고 있다. 충분한 양육과정을 통해 사역자들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양육자와 리더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확인해 보게 된다. 청년부를 1부에서 10부까지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캠퍼스에 관계없이 그 청년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캠퍼스 별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캠퍼스 안에서 모임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캠퍼스 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주 또는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큐티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 큐티 모임을 통해 캠퍼스 안에서 경건생활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목회자들의 캠퍼스 심방을 통해 캠퍼스 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사역들을 교회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있는 클럽과 SNS 를 통해 연락하며 긴밀하게 세워가고 있다.⁸⁷

복음 선포에 대해서는 주로 목회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배와 말씀과 삶에 괴리감이 존재하지 않도록 연합을 강조하는 복음 선포를 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약 2:17)는 말씀을 모토로 복음을 통한 감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에 주목하고 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상의 예배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예배와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거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교회와 세상, 신앙과 삶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86) 조현락,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45.

87) 동안교회, 대학부 [온라인 자료], <http://dongan.org/cell/cell05.asp>, 2020년 2월 24일 접속.

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양육 시스템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가?)

청년부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청년 담당교역자가 1-4 명이 상황에 따라 담당하고 있다. 탄력적으로 청년부의 활동과 사역들을 운영하며 연합과 개별적인 활동을 함께 해 가고 있다. 청년부 사역 자에게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담임목회자와 교회가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청년 사역자가 쉽게 결정하고 새롭고 힘있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기존교회 구조에서는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특별한 결정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담임목회자와 신뢰 구조를 통해 건강한 사역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회자 간의 건강한 신뢰구조가 형성되는 부분은 사역 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의 사역가치와 방향에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평균 사역기간이 5년이상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잘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가고 있다.⁸⁸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과 전문 사역자들을 통해 무엇보다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때로는 양육자로 형으로, 상담자로, 친구로, 영적인 멘토로, 지원자로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예배자들로 세워가고 있다. 전문 사역자들과 리더 양육을 받은 리더들을 통해 함께 하는 동역자로 신앙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있다.

4) 소그룹 활동내용

청년부 소그룹 내용을 보면, 양육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소그룹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은 새가족 맞이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부 모임을 통해 부서모임을 가지게 되고

88) 조현락,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46.

거기에서 소그룹으로 인도되어져 양육과 리더십 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크리스천(Christian) 리더십 과정으로 통해 모든 훈련 일정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청년들이 소그룹에 꼭 속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등록하는 모든 청년들은 각자 상황과 처한 환경에 맞게 소그룹 활동에 속하게 된다. 또한 대학생이라면 주변에 있는 캠퍼스 모임으로 인도되어지고, 매일 큐티 모임에 속해 소그룹 모임을 참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도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소그룹이라는 공동체 모임을 통해 일상의 영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은 청년부 성장과 부흥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⁸⁹⁾

5) 평가

동안교회는 청년부와 대학부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매우 젊은 교회에 속한다. 예전에 목회자들의 설교와 예배를 통한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던 교회이지만, 지금은 목회자들과 청년 리더들에게 리더십을 위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계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교회의 목표 방향에 발맞추어 청년부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이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모두가 소그룹에 속해 영적인 교감을 함께 나누고 있다. 청년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모든 이들이 함께 모임을 하기는 힘들 텐데, 이부분을 촘촘하게 만든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과 소그룹 시스템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소그룹 비전을 중심으로 청년부 성장 모델 (안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안양제일교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해 있다. 청년부를 20대 공동체와 30대 이상 공동체로 분리해 놓았고, 20대 공동체도 공동체에 특색이 있게 3개의 공동체로 나누어 제자훈련과 공동체 활동, 양육을 통해 성숙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대 공동체는 30대

89) Ibid.

공동체와 40 대 큐티 공동체로 소그룹이 나뉘어져 있는데, 소그룹에 대한 특색들을 이해해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⁹⁰

2008 년에 공식석상에서 담임목회자를 만났을 때만 해도, 통합 측 교세 성장 20 위 안에 있는 교회로, 10 위권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 물론 교세와 양적인 성장 이야기는 하지만, 이 양적인 내용들을 잘 담고 이루기 위해 비전과 의미부여, 가치, 질적인 성장부분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우 유동적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12 여년이 지난 지금, 중간에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담임목회자의 변화도 있기는 했지만, 비전과 사역철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역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 시기의 특성상, 의미부여와 목적과 가치와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면,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성향을 보이는데, 안양제일교회는 청년들에게 어떤 접근성과 가치와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년부 핵심가치(비전, 핵심전략, 가치, 전문성)

어느 교회나 청년부의 비전을 살펴보면, 교회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고, 교회의 비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청년 사역도 하고 있다. 교회 주제와 비전을 놓고 말씀대로 믿고 누리는 청년부라는 주제로 사역을 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 론을 바탕으로 교회를 움직여 가고 있으며, 청년부 역시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비전으로 이루어 가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와 페이스 북 등 SNS 상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⁹¹

핵심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교회나 다 존재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전략은 예배, 전도,

90) 안양제일교회, 청년공동체 [온라인 자료], http://www.anyangjeil.org:8080/page_hEuw80, 2020년 2월 28일 접속.

91) 안양제일교회, Ye청년부 [온라인 자료], <https://www.facebook.com/AnyangjeilChurch/>, 2020년 2월 28일 접속.

교제, 소그룹, 영성, 제자훈련과 양육훈련, 은사중심의 사역, 선교 및 선교사 파송을 하고 있다.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 명확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전략으로 첫 번째를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는 교회들이 있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도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기존의 형태의 예배들을 드리고 있기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⁹² 단순히 예배 없이 청년부 모임으로 이어지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다. 혹은 예배만 있고, 예배를 모임으로 대신하는 교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시 본질에서 시작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신앙생활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다. 예배는 살아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예배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포용력이 함께 들어가 있다.⁹³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단순히 다른 프로그램이나, 한 사람의 역량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목표지향점을 향해 성장하는 청년부이다. 모든 예배의 에너지들을 각자의 삶에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선 순환될 수 있도록 소그룹 사역들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⁹⁴

청년부에 등록하게 되면, 양육을 통해 새 가족반을 수료하게 되고, 소그룹 반과 사역자 훈련과 제자훈련을 거치게 된다. 이어서 전도폭발 훈련을 하고 헌신훈련을 하게 되면, 선교사로 세우고 있는데, 이 선교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92) 조현락,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39.

93) Ibid., 41.

94) Ibid.

되면 단기 파송과 단기선교의 현장으로 보내고 있다.⁹⁵

즉 소그룹을 통해 예배를 통해 청년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냄 받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한다.

또한 전문 사역자를 세워서 청년 공동체의 소속감을 높이고 소속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단순히 교역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전담 사역자가 그 청년부의 모든 방향과 사역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청년전담 사역자들은 그 교회에서 성장해왔고, 사역자가 되어 청년부를 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보다 청년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청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고, 담임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청년사역이 독립되어져 있지만, 교회와 매우 잘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사역을 하나의 단독목회와 같이 인정하고 교회와 연계성을 놓치지 않는 부흥하는 청년부의 전형적인 시스템을 찾아볼 수 있다.⁹⁶

2) 청년부 모임의 실제 (복음선포, 예배, 양육, 사역내용)

청년부 예배에서 얼마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청년부 예배와 모임을 살펴보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선포가 청년들을 섬김과 이웃사랑과 선교로 연결하고 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가를 바라보게 하고 청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한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과 비전과 가운데로 연결되어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한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그것을 삶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이웃사랑으로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고 이것이 익숙해질

95) 안양제일교회, 새가족 등록 [온라인 자료], http://www.anyangjeil.org:8080/page_IoXu48, 2020년 2월 28일 접속.

96) 조현락,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42.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⁹⁷ 복음의 능력과 실체는 이것을 힘들어 하지 않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로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한다.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위해 노력하고 단기선교와 선교지를 향해 선교사로 떠나는 청년들이 매년 20 명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게 여기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물론 모든 교회와 청년부의 고민이겠지만, 이 삶과 사역이 핵심멤버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

3) 양육 시스템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가?)

사역의 핵심전략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리더에 대한 부분이다. 이 리더를 세워가는 부분이 얼마나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정착 율과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청년부 소그룹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다음을 책임 지고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을 선발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청년부이다. 리더라는 부분이란 세대에서 끊어지기가 쉽고 다음 리더의 교체 가정 속에 공백을 경험하게 되고, 매년 혹은 매 분기, 매 학기 때마다 청년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장기적인 리더 양육 시스템을 갖추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청년리더들이 다음에 대한 고민보다 현재 사역에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제자훈련과정을 기본, 필수, 선택코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국제제자 훈련과정 제자반 과정을 통해 리더들을 세워가고 있다.⁹⁸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모든 청년 사역자들의 고민이다. 현재 리더들을 통해, 현재 양육시스템을 통해 지역교회의 작은 교회에서도 청년 리더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게 하며 헌신하게 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청년부 전체의 분위기가 대고

97) 안양제일교회, 청년부 양육 [온라인 자료], http://www.anyangjeil.org:8080/page_qqxF20, 2020년 2월 28일 접속.

98) 안양제일교회, 청년공동체 [온라인 자료], http://www.anyangjeil.org:8080/page_WsbL36, 2020년 2월 28일 접속.

영향력일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 안양제일교회 청년부도 역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영향력이 전체에게 퍼지고, 핵심전략과 가치관이 소그룹원들 한 명 한명에게 스며들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공동체 구성원이 많은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더 많은 고민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어느 교회나 핵심멤버의 숫자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커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커져가고 있는 공동체 속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나오하고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이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핵심가치를 향해 리더들을 세우고, 이 리더들을 통해 곳곳에 복음과 핵심가치가 나누어 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4) 소그룹 활동 내용

안양제일교회 청년부를 활성화 방안으로 보게 된 이유는 가장 왕성하게 소그룹 사역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청년부의 핵심가치는, 예배와 소그룹 사역이 청년 사역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을 각 필요에 따라 세밀하게 나누고, 필요에 따라 소그룹을 정해서 모임을 진행하게 하고 있다. 주일 모임 이후에도 주일 소그룹 모임과 토요 모임, 리더 교육 등 소그룹을 활용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⁹⁹⁾ 이를 통해 교회, 가정, 직장, 캠퍼스에서 느낄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소그룹 안에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소그룹을 셀이라 하고 있는 셀을 통해 영적 보완과 보충이 이루어지고, 선교와 어우러져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 소그룹 편성과 활동도 가정, 직장, 캠퍼스의 상황에 맞추어 소그룹 리더의 주도아래, 다양한 모습들로 진행이 된다. 단순히 교회에서의 모임이 아닌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항상 활동하고 있으며 탄력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99) Ibid.

5) 평가

핵심가치를 세우고 그 방향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청년들에 삶에 계속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살펴보았던 것처럼, 핵심전략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모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청년들의 삶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열심히 고민하고 사역을 하는 것 같다. 다리역할을 하는 전도와, 전인적인 성장 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 사역을 격려하고 그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제자훈련도 제자를 세우는 양육훈련이라는 동기부여를 통해 리더들을 세워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삶의 보냄 받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한다. 아마도 '선교적 교회'로 살아내는 청년들을 세워가고,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게 된다.

매우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고, 여러 분야의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예배, 소그룹(교제 와 친교), 양육(교육), 전도(선교)라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품 안에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예배와 소그룹을 핵심사역으로 예배자의 삶이 일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삶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5. 유기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청년부 성장 모델 (무학교회를 중심으로)

무학 교회는 개혁주의 입각한 복음주의 전통을 견고 있으며, 회심, 체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인격적 성장과 선교와 전도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무학교회는 60년사를 통해 교회의 특징을 10가지로 정리했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온 교회,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전통이 있는 교회이다. 평신도를 훈련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해외 선교를 하는 교회,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사회 선교가 있는 교회,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 농어촌을 지원하는 교회, 조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참여했던 전통이 있는 교회, 성도의 교제를 중시하는 교회로 교회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¹⁰⁰

무학 교회 청년부에는 역사가 이야기해 주듯이 한국 사회 상의 발전과 흐름에 맞닿아 부흥과 성장을 계속해 왔고, 지역사회에 대안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좋은 영적 자산을 청년부라는 변화가 심한 공동체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성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제자훈련과 예배에 대한 집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일상의 청년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유기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¹⁰¹

1) 청년 핵심가치 (비전, 핵심전략, 가치, 전문성)

무학 교회 청년부는 좀 특별한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소그룹에 셀 사역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름의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다.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셀이라는 소그룹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셀의 원리를 소그룹을 적용해서 셀 소그룹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금 특별하게 기존 교회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소그룹을 활성화를 셀의 방식에서 찾아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¹⁰²

이 과정을 위해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소그룹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하고 상호의존 하고 상호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가장 먼저 리더십 훈련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다음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을 가지고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리더십들의 훈련을 통해 영적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소그룹에 적용하게 하고 주중에 소그룹을 경험하게 하였다.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방식을 찾고, 교회의 전통과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믹스한 형태로 이 모임을 통해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 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고, 교회와 세상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섬김과 세상과 건강하고 지속적인 전도와 선교를 해 갈 수 있게 한다. 청년부 공동체에 대한

100) 무학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 「무학교회 60년사」 (서울: 무학교회, 2009), 351-8.

101) 무학교회, 무학12사명 [온라인 자료], <http://www.moohak.net/>, 2020년 3월 2일 접속.

102) 이상갑, “청년 사역 활성화 방안: 무학 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4), 70.

건강함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위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친구들과 선후배를 만나고 교회 공동체에 초대하게 되고, 성장과 성숙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된다.¹⁰³

2) 청년부 모임의 실제 (복음선포, 예배, 양육, 사역내용)

청년부는 1 부부터 시작해서 8 부까지 모임으로 나뉘어져 있고, 새 가족부와 찬양팀 활동이 대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나타나 있다. 27 세까지의 모임과 28 세 이후, 35 세 이후의 청년들의 공동체로 나뉘어져 운영되어지고 있다.¹⁰⁴ 이들이 계속적인 예배 갱신을 통해 청년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예배의 갱신에 있어서, 전통과 개혁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예배의 형태도 구도자 예배 형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 도 있고, 신앙의 고백과 참회의 기도내용이 빠진 적도 있다. 그리고 전통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참회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넣도록 하기도 하며, 교회의 전통과 영적 유산이 청년 세대에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성찰의 기회도 제공하기도 했다. 예배의 형태도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변화를 주기도 하며 청년예배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말씀과 찬양 기도에 집중하기도 한다. 예배시간 앞에 항상 모든 공동체들이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며, 기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¹⁰⁵

이런 예배 갱신과 신설을 통해 그 핵심에 청년들이 일사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내용들을 강조한다. 말씀묵상과 기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큐티를 권면하며, 예배를 토대로 이들이 말씀에 확고히 서서 기도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봉사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세워지고 개척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말씀 묵상운동을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큐티를 권면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큐티교재 지원도 하고 있으며,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핵심내용을 가지고

103) Ibid., 66-9.

104) 무학교회, 청년부 [온라인 자료], http://www.moohak.net/bbs/board.php?bo_table=sub0305, 2020년 3월 2일 접속.

105) 이상갑, “청년 사역 활성화 방안: 무학 교회를 중심으로”, 72-3.

진행해 가고 있다. 일상의 예배자들은 주일 공동체에서 예배드릴 때 더 깊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 일상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소그룹 방이나 카페, 등을 이용해 수요일마다 정기적인 목상 모임을 만들어 소그룹을 통해 함께 예배자를 세워가고 있다.¹⁰⁶

또한 특별하게 유기적인 모임을 통해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영적 사이클이 형성되도록 하며, 영적 분위기가 전도의 문화가 되도록 한다. 지도자가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기획하고 헌신하며 현장에서 전도하며 사역자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우게 한다. 전도는 제자훈련의 확실한 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삶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된다.¹⁰⁷ 교회청년부의 특별 문화 전략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과정을 중요시하는 전도로 진행하고 있다. 유기적 연결성을 강조하여 청년 전도의 과정, 행사, 후속과정을 중요하게 여겨 진행하고 있다.

3) 양육 시스템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가?)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을 이끄는 리더이다. 그렇기에 청년부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특별히 청년부 경우 리더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본교회의 방향성인 유기적인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다. 양육과 훈련은 인턴 가이드와 리더 가이드를 통해 훈련을 받게 된다. 다음 과정으로 섬김에 동참시키게 되는데, 보육원, 장애인 시설, 요양원, 캠퍼스 전도 등의 청년 사역 현장에 동참해서 섬김을 감당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 신앙과 성품과 태도를 검증하게 된다. 양육 과정 속에 참여하고 섬김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리더의 성품과 자질들을 관찰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 예비 리더로 사역에 동참해서 동참과 위임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게 한다.

106) Ibid., 71-2.

107) 홍명유, 「청년사역 맨 땅에 헤딩하라」 (기독신문사, 2002), 161.

그리고 재생산과 소그룹 배가 시기가 되면, 리더로 파송하게 된다.¹⁰⁸

위 과정들을 통해서 유기적인 과정 속에 목회적 마인드를 심는다.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프로그램과 양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정 속에서 신실함이 있는지, 리더로서 성품과 충성된 태도가 있는지 검증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유기적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 이수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과정 자체가 리더를 세우는 과정임을 보게 된다. 이 유기적 공동체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을 검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리더로서 가능성이 많은 청년이 있다면 양육훈련 과정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섬김에 책임감도 감당케 한다.

아울러 소그룹 예비 리더로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활동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소그룹 재생산의 시기가 되면 가장 좋은 멤버들과 함께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게 된다. 쉼의 번식과 재생산의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¹⁰⁹ 청년 사역자들에게 단순히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를 목양하는 목회자라라는 정체성을 심어 주고 있다.

4) 소그룹 활동 내용

소그룹을 활동에 매우 특별한 점은 개편 방식을 소그룹 공동체 개척 방식으로 진행한다. 소그룹을 계속해서 확장 개편해 오고 있는데, 소그룹 공동체가 영적으로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하고 기존부서에서 몇 명을 떼어내어 신설 부서를 만들고 개척 멤버가 형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부의 모든 부서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소그룹 모임 전체가 비전과 핵심 마인드를 공유하게 된다. 기도와 말씀 사역을 통해 청년 연합 예배의 중요성과 부흥이라는 함께 공유하면서 새로운 소그룹 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리더들의

108) 이상갑, “청년 사역 활성화 방안: 무학 교회를 중심으로”, 80-2.

109) *Ibids.*.

성장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시기를 가지기도 한다. 소그룹의 성장은 리더의 성장과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 이를 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성장에 따라 세워가는 청년들을 배치하고 함께 진행해 가고 있다.

5) 평가

본인들만의 특별한 형태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유기적공동체 개념으로 청년부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지 교육과 양육과 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는 리더들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회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잘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내면화 하는 과정을 통해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셀 공동체의 개념을 본인들에게 맞게 잘 변형시켜 내면화 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지역적 특색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교회와 분리되어져 있기 보다는 교회와 긴밀한 관계성 속에 청년들에게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음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청년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유기적 관계의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6. 소결론

성장하고 있는 교회와 청년들을 살펴보면 청년 한 영혼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성장해 가게 할 수 있겠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일상에 있을 때 어떻게 계속해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들로 해결해 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모토와 가치, 핵심 내용을 모든 청년부들이 놓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저마다 현실과 부서마다 차이가 있기에 핵심가치와 핵심내용을 그대로 인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점을 저마다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가치와 목적을 놓치지 않고 청년부가 저마다 소그룹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다.

소그룹에도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제자훈련을 모토로 시작해서 양육과 교육의 과정을 통한 소그룹을 성장시키고 이행하는 청년부가 있었는가 하면, 소그룹을 중심으로 양육과정을 만들고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청년부도 있었다. 소그룹을 통해 리더를 만들어 내고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청년부도 있었고, 청년부의 소그룹의 사역이 일상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이 될 수 있게 하는 청년부도 볼 수 있다.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자기교회 현실에 맞추어 이루어 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소그룹을 통한 일상의 예배자들을 세워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보냄 받은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큐티 모임도 가지고 소그룹 모임과 교제와 양육도 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소그룹을 탄력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 이런 관계성과 신뢰와 소그룹의 형성이 매우 더디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가치와 방향성과 청년들에게 목적과 가치로 이어지면, 미셔널 처치(Missional Church)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워지고, 이들로 통해 청년부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제 4 장

청년부 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동 상관관계 설문연구

1.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교회내 청년부 사역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소그룹 사역이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부 활성화에 있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소그룹 사역이 청년들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소그룹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소그룹 리더양육 만족도와 소그룹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각 개인의 신앙성장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소그룹 활성화와 교회 헌신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본 설문은 3장에서 청년부 소그룹 사역을 연구한 교회들로, 한국 교회 중에서 소그룹 사역을 잘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의 소그룹 사역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가 사역하였던 교회의 소그룹 사역을 비교연구하여 개선요건과 발전요건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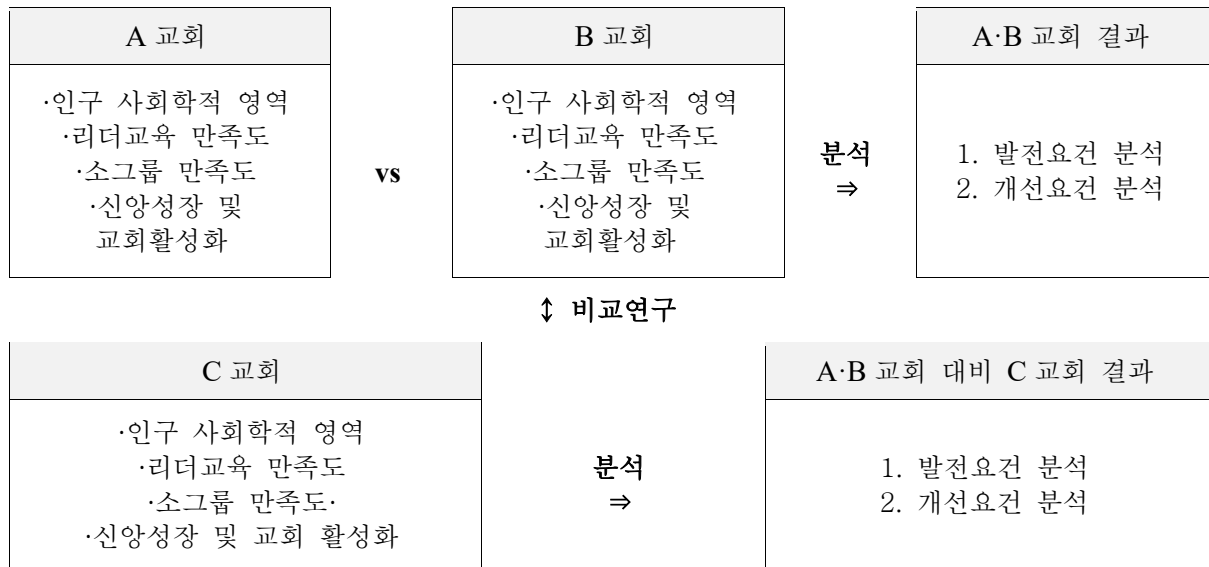
설문을 시행한 청년부들은 3장의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소그룹의 핵심가치로 청년부의 활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교회로 각각 제자양육과 양육시스템으로 소그룹 리더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발전시켜왔다. 이 교회들은 소그룹 사역의 표준이 되기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4개교회 청년부에 설문조사 요청했으며, 그 중에 3개 교회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에 참여한 3개 교회 중 1개 교회는 조사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동 연구 대상기관에서는 제외시켰다. 선정한 교회 중 설문에 응답한 2개교회와 연구자가 사역한 청년부 1개 교회, 총

3 개 교회가 설문에 응답을 하였다.

빈도분석의 발전조건과 특징점, 개선조건을 분석하여 A·B 교회에 연구 모형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 표본은 A 교회는 청년부 예배에 참여한 200 여명 중에서 34 명을 무작위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고, B 교회는 청년부 예배 후 모임에 참여한 250 여명 중에서 37 명을 무작위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사역한 청년부는 50 여명의 청년예배의 참석자 중 30 명을 무작위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그림 1> 논문 설계 모형도



<표 2> 설문 문항 구성

순번	구분	세부내역	문항수	문항번호
1	일반적 질문	성별, 연령, 모태신앙, 연수	5	1-5
		소그룹 참여 여부	1	6
2	청년부 리더 교육 질문	리더교육 경험, 집중교육필요성	2	7-8
		리더교육 만족도, 참여배경	2	9-10
		리더교육 후 헌신도, 신앙성장여부, 소그룹 관심도, 신앙성장내용	4	11-14

		리더교육 시 필요내용	1	15
3	소그룹 사역 관련 질문	소그룹 만족도	1	16
		참여도, 적극성	2	17-18
		소그룹 활성화 필요성	1	19
		나눔 내용, 참여이유	2	20-21
4	소그룹 활성화 및 교회성장	소그룹 참여 빈도	1	22
		소그룹 참여 후 신앙변화	2	23-24
		교회 내 헌신도, 선교참여도	2	25-26
		활성화 필요점	3	27-29

3) 설문 절차와 방법

연구자는 설문 전에 리버티대학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해 승인된(IRB 승인: 4087. 033120) 설문 동의서를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에 설문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 설문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약 20 분간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 설문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인쇄된 설문지에 무기명으로 기술하는 자기 기입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2 개 교회는 청년부 담당 교역자를 통해 설문 동의를 인지시키고, 참여의사를 확인한 자들을 통해 메일과 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접촉 형식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2.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여 청년부 활성화에 소그룹 사역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리더교육을 받은 자들이 소그룹에 미치는 영향과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들이 교회와 청년부 활성화 방안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점에 대한 문항들이 잘 구성되었는지 문항 구성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문항 구성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 값(Cronbach's alpha) 척도를 기준으로 0.05 이하이면 통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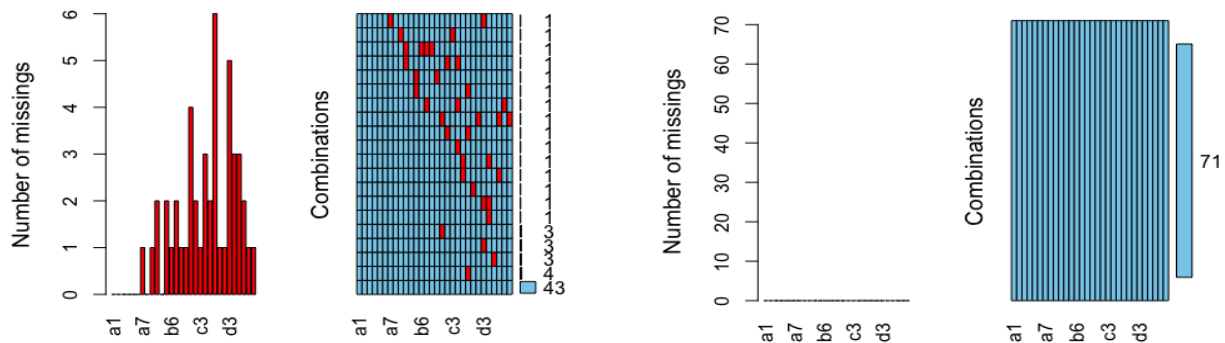
〈표 3〉 신뢰도 분석

순번	분류	alpha 값
1	리더교육 부분	0.78
2	소그룹 사역 부분	0.59
3	소그룹 활성화와 교회 성장	0.58

교회 구분에 따른 각 변수 별 차이는 설문을 두 교회로 나눈 상태에서 각 교회별로 각 설문항목에 대해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p-value 가 0.05 보다 작은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파악하였다.

연구 설문 결과 중에 전체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었다. 이 부분은 전체 데이터 중 결측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15% 수준이다. 설문 결과 중 총 46 개의 결측치가 있었다. 전체 데이터 중 결측치를 아래 그림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표 4〉 다중대체 설문 응답 값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완전제거법 대신에 다중대체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결측을 대체하는 것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대체법에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모두 결측 메커니즘, 변수 간 관계와 상관없이 결측률이 약 30%

이하인 경우 통계적 다중대체법이 통계적 편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이 설문응답을 도출하게 되었다.

3. 설문 결과 분석

연구자는 R 통계(R-Statistics)를 통하여 얻은 설문 결과를 빈도분석과 교차 분석으로 진행하여 표로 표기하였다. 유의미한 결과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아래 각 해당하는 항목을 표로 표기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성별, 모태신앙, 신앙의 연수를 통한 소그룹 참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영역에 따른 소그룹 참여에 대한 인식은 교차분석의 X^2 검증 방법(유의 확률 0.05 양측 검정)검을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에 응답한 두 교회 중 사랑의교회 청년부를 A 교회로 표기하며 동안교회 분석결과를 B 교회로 표기하였다. 두교회를 A 와 B 로 나누어 선정하게 된 것은 사랑의교회에 청년부가 평균 연령층이 높고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한 청년들이라는 점이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 조사 내용과 평균연령과 신앙 연륜이 젊은 교회를 비교해 보면 청년들의 전 연령의 답변과 신앙 연륜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성 등의 상관관계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두 교회의 설문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동 연구자가 사역했던 청년부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동 연구가 추구하는 연구 목적의 부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인구사회학적 영역

사례내용/소계		A 교회		B 교회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34	100%	37	100%
성별	남성	14	41.2%	12	32.4%
	여성	20	58.8%	25	67.6%

	소계	34	100.0%	37	100.0%
나이	20-25 세	0	0%	15	40.5%
	26-30 세	5	14.7%	15	40.5%
	30-35 세	20	58.8%	6	16.2%
	36 세이상	9	26.5%	1	2.7%
	소계	34	100.0%	37	100.0%
청년부 예배출석여부	예	23	97.1%	36	97.3%
	아니요	1	2.9%	1	2.7%
	소계	34	100.0%	37	100.0%
모태신앙인가	예	24	70.6%	26	70.3%
	아니요	10	29.4%	11	29.7%
	소계	34	100.0%	37	100.0%
교회출석기간	1-3 년	1	10%	2	5.4%
	4-9 년	5	13.3%	9	24.3%
	10-14 년	2	23.3%	5	13.5%
	15 년이상	26	53.3%	21	56.8%
	소계	34	99.9%	37	100.0%
소그룹 참여 여부	예	31	91.2%	37	100%
	아니요	3	8.8%	0	0%
	소계	34	100.0%	37	100.0%

설문에 응답한 두 교회의 인구사회학적 영역을 보면, A 교회는 남성이 41.2%, 여성이 58.8%이고 B 교회는 남성이 32.4%, 여성이 67.6%로 응답자들 중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 나이 분포에 있어서는 A 교회는 26-30 세 14.7%, 31-35 세 58.8%, 36 세 이상이 26.5%이다. B 교회는 20-25 세 40.5%, 26-30 세 40.5%, 30-35 세 16.2%, 36 세 이상 2.7%이다. 교회는 30 세 이상의 응답자가 84%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B 교회는 20 세-30 세 사이의 연령이 81%의 비율을 차지한다. A 교회와 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청년 연령 전반에 걸친 답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신앙의 연수와 평균 연령이 높은 A 교회와 신앙의 연수와 평균 연령이 젊은 B 교회의 응답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교회 출석기간 연수를 나눈 이유는 교회 출석한 새가족인가(1-3 년), 양육을 받은 기간(4-9 년)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리더그룹으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그룹인가(10-14 년),

모태신앙으로(15년이상), 리더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출석연수 기간을 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교회들은 청년들이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청년부 예배와 모임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 구조인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지역 중소형 교회의 인원 한계 없이,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예배와 청년부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된다.

A 교회의 소그룹 참여율은 91.2%이고 B 교회는 100%이다. 두 교회 모두 예배 후 모임 전에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성비, 연령, 모태신앙, 신앙의 연수의 상관없이 많은 청년들이 소그룹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으며 소그룹 참여도는 B 교회가 9%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리더 교육 참여 및 만족도

사례내용/소계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34	100%	37	100%
리더 교육 참여 여부	있다	34	100%	33	89.2%
	없다	0	0%	4	10.8%
	소계	34	100.0%	37	100%
리더 집중교육 필요 여부	필요하다	34	100%	34	91.9%
	필요없다	0	0%	3	8.1%
	소계	34	100.0%	37	100%
리더 교육 만족도	매우좋다	15	44.1%	5	13.5%
	좋다	16	47.1%	23	62.2%
	보통이다	2	5.9%	8	21.6%
	좋지않다	1	2.9%	1	2.7%
	소계	34	100.0%	37	100%
리더 교육 참여 배경	주변권유	3	8.8%	15	40.5%
	믿음의 성장을 위해	28	82.4%	20	54.1%
	궁금한 점이 있어서	3	8.8%	2	5.4%
	소계	34	100.0%	37	100%

리더교육 참여자 분포를 보면 A 교회는 참여자 100%가 리더 교육을 받았으며 B 교회는 참여자 중 89.2%가 리더 교육을 받았다. 참여자들 중 리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이 90% 내외가 된다. A 교회가 응답자 중 10% 내외로 리더 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리더 교육에 참여한 이들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설문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리더 교육 만족도 A 교회는 ‘좋다’ 91.2%, ‘보통이다’ 5.9%, ‘좋지 않다’ 2.9%로 응답했다. B 교회는 ‘좋다’ 75.7%, ‘보통이다’ 21.6%, ‘좋지 않다’ 13.5%로 응답했다. 리더교육의 만족도에 ‘좋다’에 응답은 15% 내외의 차이인 것을 볼 수 있다.

〈표 7〉 소그룹 리더교육 참석자의 신앙성장

사례내용 / 소계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34	100%	37	100%
리더 교육 후 헌신도	매우좋다	8	23.5%	4	10.8
	좋다	21	61.8%	22	59.5
	보통이다	5	14.7%	11	29.7
	소계	34	99.9%	37	100%
리더 교육을 통해 신앙성장 가능성	매우 그렇다	20	58.8%	7	18.9%
	그렇다	11	32.4%	22	59.5%
	보통이다	2	5.9%	5	13.5%
	그렇지 않다	1	2.9%	3	8.1%
	소계	34	100%	37	100%
리더 교육 후 소그룹 관심도	매우 그렇다	18	52.9%	8	24.3%
	그렇다	11	32.4%	18	48.6%
	보통이다	4	11.8%	10	27.7%
	그렇지 않다	1	2.9%	1	2.7%
	소계	34	100%	37	100%
리더 교육 후 성장된 모습	말씀읽기	13	38.2%	9	24.3%
	큐티생활	9	26.5%	7	18.9%
	전도	3	8.8%	1	2.7%
	봉사	5	14.7%	1	2.7%
	예배	4	11.8%	19	51.4%
	소계	34	100%	37	100%
리더 교육 시	성경교육	9	26.5%	8	21.6%

필요내용	리더십	7	20.6%	4	10.8%
	소그룹 이해	12	35.3%	6	16.2%
	섬김	4	11.8%	6	16.2%
	예배	2	5.9%	13	35.1%
	소계	34	100%	37	100%

참여자들이 리더 교육을 받은 후 교회 내 헌신도에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리더교육을 통한 헌신도에 교회는 ‘매우 좋다’ 23.5%, ‘좋다’ 58.8%로 응답했다. B 교회는 ‘매우 좋다’ 10.8%, ‘좋다’ 56.8%로 응답했다. 헌신도에 ‘좋다’ 응답은 A 교회 82.5%, B 교회 67.6%로 응답했다. 리더교육 헌신도에서도 15% 내외의 차이가 보인다. 리더교육을 통한 믿음의 성장가능성에서 A 교회 ‘좋다’ 91.2%, B 교회 ‘좋다’ 75.7% 로 응답했다. 두 교회에 차이는 15.5%이다.

리더 교육 후 소그룹 관심도에서, A 교회 ‘매우 좋다’ 52.9%, ‘좋다’ 32.4%로 응답했고, B 교회는 ‘매우 좋다’ 21.6%, ‘좋다’ 45.9%로 응답했다. 응답한 두 교회에 차이는 17.8%이다. 응답한 두교회의 긍정적인 답변의 차이 퍼센트는 리더교육 만족도의 15% 내외의 차이가 계속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8〉 청년부 소그룹 만족도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매우좋다	7	20.6%	3	8.1%
좋다	21	61.8%	24	64.9%
보통이다	5	14.7%	9	24.3%
좋지않다	1	2.9%	1	2.7%
소계	34	100	37	100%

청년부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A 교회는 ‘매우 좋다’ 20.6%, ‘좋다’ 61.8%, ‘보통이다’ 14.7%, ‘좋지 않다’ 2.9%로 응답했다. B 교회는 ‘매우 좋다’ 8.1%, ‘좋다’ 64.9%, ‘보통이다’ 24.3%, ‘좋지 않다’ 2.7%로 응답했다. 소그룹 만족도 좋다 응답 차이는 9.4% 로

B 교회가 낮다. 리더교육 만족도의 15% 내외의 차이에 비하면 격차는 줄어들었다. ‘보통이다’에 응답한 두 교회의 차이는 9.6%로 B 교회가 높다.

〈표 9〉 청년부 소그룹 참여도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매우 좋다	25	73.5%	15	40.5%
좋다	6	17.6%	17	45.9%
보통이다	2	5.9%	4	10.8%
좋지않다	1	2.9%	1	2.7%
소계	34	99.9%	37	99.9%

소그룹 참여도는 청년부 구성원 각자에게 소그룹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A 교회는 ‘매우 좋다’ 73.5%, ‘좋다’ 17.6%, ‘보통이다’ 5.9%, ‘좋지 않다’ 2.9%로 응답했다. B 교회는 ‘매우 좋다’ 40.5%, ‘좋다’ 45.9%, ‘보통이다’ 10.8%, ‘좋지 않다’ 2.7%로 응답했다. 참여도의 ‘좋다’ 응답은 차이는 4.7%이며, ‘보통이다’에 응답한 이들은 4.9% 차이로 B 교회가 높다. 참여도 부분에서, 두 교회 간의 ‘좋다’ 답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표 10〉 소그룹 참여 적극성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매우 좋다	21	61.8%	9	24.3%
좋다	8	23.5%	19	51.4%
보통이다	5	14.7%	9	24.3%
좋지않다	0	0%	0	0%
소계	34	100.0%	37	100%

소그룹에 참여하는 적극성에 관한 응답에 A 교회는 ‘매우 좋다’ 61.8%, ‘좋다’ 23.5%, ‘보통이다’ 14.7%로 응답했고, B 교회 ‘매우 좋다’ 24.3%, ‘좋다’ 51.4% ‘보통이다’ 24.3%로 응답을 했다. 소그룹 참여 적극성에서 ‘좋다’에 응답한 두 교회의 차이는 9.6%이다. 그리고 ‘보통이다’에 응답은 9.6%로

B 교회가 높다. 20 세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 쪽에서 보면 ‘보통이다’ 라는 답변이 10% 내외로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젊은 세대들의 자신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 특유의 화법인지 관심도와 적극성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표 11〉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필요도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매우 그렇다	25	73.5%	15	40.5%
그렇다	8	23.5%	18	48.6%
보통이다	0	0%	2	5.4%
그렇지 않다	1	2.9%	2	5.4%
소계	34	100.0%	37	99.9%

청년부의 활성화를 위해 소그룹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은 A 교회 ‘매우 좋다’ 73.5%, ‘좋다’ 23.5%, ‘좋지 않다’ 2.9%로 응답했다. B 교회는 ‘매우 좋다’ 40.5%, ‘좋다’ 48.6%, ‘보통이다’ 5.4%, ‘좋지 않다’ 5.4%로 응답했다. ‘좋다’에 응답한 차이는 7.9%이며, 89%이상의 ‘좋다’에 답변을 보여주고 있다. 소그룹 사역이 청년부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표 12〉 소그룹 핵심 나눔 내용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주일 말씀	17	50%	17	45.9%
큐티 나눔	7	20.6%	12	32.4%
개인적 삶 나눔	9	26.5%	8	21.6%
비전 나눔	1	2.9%	0	0%
소계	34	100.0%	37	100.0%

청년부 모임 후에 시작되어지는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세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하는 교회에서는 대부분 큐티와 주일 말씀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주일 예배가 일상의

예배자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표 13〉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시간이 없어서	15	44.1%	14	37.8%
흥미가 없어서	7	20.6%	9	24.3%
어울리는 것이 싫어서	6	17.6%	5	13.5%
개인적 문제	6	17.6%	9	24.3%
소계	34	100.0%	37	100%

참가자 중에 교회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개인적인 문제를 답했다. 청년들의 사회생활과 학업과 진로에 대한 활동들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요즘 청년들의 사회성에 있어서 내면적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많아지고 비대면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사람마다 가지는 관계성이 다른 모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게 된다.

〈표 14〉 소그룹에 참여하는 빈도 (1 주 단위)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한 번	23	67.6%	24	64.9%
두 번	5	14.7%	9	24.3%
세 번	1	2.9%	1	2.7%
세 번 이상	5	14.7%	3	8.1%
소계	34	100.0%	37	100.0%

참가자 중에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빈도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교회 모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답한 경우가 60%이상을 차지한다. 교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청년들은 교회 인근에서 생활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만나는 것을 선호하고 주말에 시간이 가능한 시간대에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표 15〉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후 변화된 모습

항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말씀읽기	22	64.7%	20	54.1%
큐티생활	7	20.6%	11	29.7%
전도	1	2.9%	0	0%
봉사	4	11.8%	6	16.2%
소계	30	100.0%	37	100.0%

참가자에게 소그룹에 참여하고 난 후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A 교회는 말씀 읽기와 큐티 생활 순으로 응답을 했고, B 교회도 말씀 읽기와 큐티 생활 순서로 응답해 주었다. 물론 봉사에도 응답자들이 있었지만 소그룹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된 부분에는 예배와 말씀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16〉 소그룹 활동과 신앙 성장의 연관성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매우 그렇다	12	35.3%	6	16.2%
그렇다	18	52.9%	27	73%
보통이다	4	11.8%	3	8.1%
그렇지 않다	0	0%	1	2.7%
소계	34	100.0%	37	100.0%

참가자들에게 소그룹 활동을 통해 각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응답에 A 교회 ‘매우 좋다’ 35.3%, ‘좋다’ 52.9, B 교회 ‘매우 좋다’ 16.2%, ‘좋다’ 73%로 응답했다. ‘좋다’ 응답으로 A 교회 88.2%, B 교회 89.2%로 답변을 해 주었다. ‘보통이다’ A 교회 11.8%, B 교회 8.1% 이다. 설문 응답 중 처음으로 B 교회 응답이, A 교회보다 1% 높게 나왔다. 응답자들의 88%이상 소그룹 활동이 신앙성장에 있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17〉 소그룹이 교회 섬김에 미치는 영향력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매우좋다	2	5.9%	1	2.7%
좋다	13	38.2%	20	54.1%
보통이다	18	52.9%	16	43.2%
좋지않다	1	2.9%	0	0%
소계	30	99.9%	37	100.0%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교회 내 섬김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헌신도 질문에 있어서 A 교회는 ‘매우 좋다’ 5.9%, ‘좋다’ 38.2%, ‘보통이다’ 52.9%, ‘좋지 않다’ 2.9%로 응답했다. B 교회는 ‘매우 좋다’ 2.7%, ‘좋다’ 54.1%, ‘보통이다’ 35.1%의 응답을 했다. ‘좋다’ 응답은 A 교회 44.1%, B 교회 56.8%이다. B 교회가 12.7% 높게 나타난다. 소그룹의 신앙성장과 소그룹이 교회 섬김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B 교회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헌신, 섬김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기준 마다 다르게 생각이 다르겠지만 소그룹을 통한 삶의 실천적인 변화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다.

〈표 18〉 소그룹이 선교(전도) 사역에 미치는 영향력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매우좋다	0	0%	1	2.7%
좋다	9	26.5%	19	51.4%
보통이다	19	55.9%	16	43.2%
좋지않다	6	17.6%	1	2.7%
소계	34	100.0%	37	99.9%

설문 참가자 중 소그룹에 참여한 이들이 교회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A 교회는 ‘좋다’ 26.5% ‘보통이다’ 55.9%, ‘좋지 않다’ 17.6%로 응답했고, B 교회는 ‘매우 좋다’ 2.7%, ‘좋다’ 51.4%, ‘보통이다’ 43.2%, ‘좋지 않다’ 2.7%로 응답했다. A 교회에서 처음으로 ‘매우

좋다'의 응답이 없었고, 이 부분의 긍정적인 응답에서는 B 교회가 27.6%나 높게 나왔다. 실천적인 신앙생활면에 있어서는 B 교회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

〈표 19〉 소그룹에 활성화에 필요한 점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목회방향	10	29.4%	2	5.4%
말씀	5	14.7%	20	54.1%
기도	5	14.7%	11	29.7%
재정적 지원	3	8.8%	1	2.7%
리더교육	11	32.4%	3	8.1%
소계	34	100%	37	100.0%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응답은 두 교회 모두 다르게 답변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A 교회는 리더교육, 목회방향, 말씀, 기도 순서로 답변이 나왔다면 B 교회는 말씀, 기도, 리더교육, 목회방향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는 교회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반대로 소그룹을 이끌어 가는 이들이 아닌 참여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답변이기도 하다.

〈표 20〉 소그룹 리더 모임 반영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주 1 회	27	79.4%	29	78.4%
월 2 회	3	8.8%	3	8.1%
정기 교육	4	11.8%	0	0%
필요시	0	0%	5	13.5%
소계	34	100.0%	37	100.0%

참가자들에게 소그룹 리더 모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은 A 교회는 주 1 회, 정기교육, 월 2 회 순으로 응답하였고, B 교회는 주 1 회, 필요시, 월 2 회 순으로 응답하였다. 두 교회 모두 약 80%

내외로, 주 1회 교육을 응답하였다. 소그룹 리더 모임은 소그룹 모임과 소그룹을 통한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자신들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고민들이 있어 보인다.

〈표 21〉 소그룹 양육 교재

사례내용	A 교회		B 교회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리더용 교재	6	17.6%	3	8.1%
큐티교재	4	11.8%	13	35.1%
성경공부	14	41.2%	5	13.5%
주일설교나눔	10	29.4%	16	43.2%
소계	34	100.0%	37	99.9%

참가자들에게 소그룹 모임에 필요한 교재는 어떤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A 교회는 성경공부, 주일설교 나눔 리더교재, 큐티교재 순으로 답변을 했고, B 교회는 주일설교 나눔, 큐티교재, 성경공부, 리더교재 순으로 답변을 했다. 현재 교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일에 나누고 있는지, 큐티와 성경공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예배와 설교와 주중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교회, 예배, 소그룹, 일상생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4. 교차 분석 결과

빈도 분석 후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청년부와 소그룹 활성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요하게 고려하는 질문들, 리더 교육을 받은 부분과 소그룹의 참여하는 부분, 소그룹 활성화 부분의 3 가지 범주로 교차 분석을 시행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피어슨(Pearson)의 카이 제곱 통계량을 통해 확인하였다. 리더교육 만족도가 봉사와 헌신에 미치는 영향과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성장과 소그룹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교차분석으로 살펴 볼 것이다.

1) 리더교육 만족도가 봉사 헌신에 미치는 영향

리더교육을 받은 이들의 만족도가 봉사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도출된 피어슨(Pearson)의 카이 제곱 통계량의 유의 수준이 0.05 보다 작게 나타나면 소그룹활동과 봉사, 헌신,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응답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설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가지게 된다. 리더교육과 소그룹 참여와 소그룹 활성화 부분에 유의미하게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되는 문항을 선택하여 교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22〉 리더교육 만족도가 봉사 헌신에 미치는 영향

봉사헌신	리더교육 만족도					
		매우좋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않다	소계
빈도	빈도	20	39	10	2	71
	전체%	28.1%	54.9%	14.1%	2.8%	100%
매우좋다	빈도	7	4	0명	1	12
	전체%	9.9%	5.6%	0%	1.4%	16.9%
좋다	빈도	13	28	2	0	43
	전체%	18.3%	39.4%	2.8%	0%	60.5%
보통이다	빈도	0	7	8	1	16
	전체%	0%	9.9%	11.3%	1.4%	22.6%

p-value 0.021

분석결과 리더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교회 봉사 및 헌신도는 유의수준이 0.0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중 리더교육 만족도에 ‘매우 좋다’ 28.1%, ‘좋다’ 54.9%, ‘보통이다’ 14.1%, ‘좋지 않다’ 2.8%로 응답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71명이고 남성이 26명, 여성이 45명이다. 교차분석을 한 결과 리더교육의 만족도가 좋을수록 봉사 및 헌신도 역시 좋게 나타나고 있다. 리더교육의 만족도가 긍정적일 때, 소그룹과 교회의 봉사 및 헌신도는 73.2% ‘좋다’에 응답을 했다. 응답한 두 교회 남녀의 모든 응답이 보통이다 이상으로 나왔다.

2) 리더교육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23〉 리더교육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

신앙성장	리더교육만족도					
		매우좋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않다	소계
신앙성장	빈도	20	39	10	2	71
	전체	28.1%	54.9%	14.1%	2.8%	99.9%
매우좋다	빈도	16	11	0	0	27
	전체	22.5%	15.5%	0%	0%	38%
좋다	빈도	4	23	6	0	33
	전체	5.6%	32.4%	8.5%	0%	46.5%
보통이다	빈도	0	4	3	0	7
	전체	0%	5.6%	4.2%	0%	9.8%
좋지않다	빈도	0	1	1	2	4
	전체	0%	1.4%	1.4%	2.8%	5.6%

p-value 0.000

리더교육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유의수준이 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중 리더교육 만족도에 ‘좋다’가 83%이며, 신앙성장에 도움이 된다 ‘좋다’에 응답한 이들이 76%이다.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을 하면 94.3%의 결과를 볼 수 있다. 리더교육을 소그룹의 핵심 과정이라고 한다면 리더교육을 통해 신앙성장과 봉사와 헌신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성장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앙성장이 가능하다 ‘보통이다’에 응답한 이들은 9.8%로, 보통이다 응답이 다른 설문 응답에 비해 적은 것도 알 수 있다.

3) 리더교육 만족도가 소그룹에 대한 관심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표 24〉 리더교육 만족도가 소그룹에 대한 관심 향상에 미치는 영향

소그룹 관심도	리더교육만족도				
		매우좋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않다

	빈도	20	39	10	2	71
	전체%	28.1%	54.9%	14.1%	2.8%	99.9%
매우좋다	빈도	16	9	0	1	26
	전체%	22.5%	12.7%	0%	1.4%	36.6%
좋다	빈도	3	23	3	0	29
	전체%	4.2%	32.4%	4.2%	0%	40.8%
보통이다	빈도	1	6	7	0	14
	전체%	1.4%	8.4%	9.9%	0%	19.7%
좋지않다	빈도	0	1	0	1	2
	전체%	0%	1.4%	0%	1.4%	2.8%

p-value 0.000

리더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이들이 소그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가 교차분석에서 유의수준 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나타나고 있다. 리더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교육 후에 소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다. 리더교육 후에 소그룹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면, 리더교육과 소그룹에 대한 연계성 부분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리더교육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이들이 소그룹 관심도에서 ‘매우 좋다’ 35.2%, ‘좋다’ 36.6%로 응답하였다. 소그룹에 대한 관심도 ‘보통이다’ 9.9%로 이들에게 교육전과 후에 별다른 변화나 성장이 없는 이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리더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소그룹에 대한 관심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소그룹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들의 만족도와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생활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교차 분석을 통해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들의 만족도가 소그룹의 성장에 미치는 유의미한 값을 찾고자 한다. 소그룹의 만족도는 소그룹 참여 후 신앙 변화와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과 교차분석으로 살펴보았다.

〈표 25〉 소그룹 활성화 필요하다는 생각이 소그룹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그룹 만족도	소그룹 활성화 필요					
		매우좋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않다	소계
	빈도	40	26	2	3	71
전체%	56.3%	36.6%	2.8	4.2	99.9%	
매우좋다	빈도	8	1	0	1	10
	전체%	11.2%	1.4%	0%	1.4%	14%
좋다	빈도	25	18	1	1	45
	전체%	35.2%	25.3%	1.4%	1.4%	63.3%
보통이다	빈도	6	7	0	1	14
	전체%	8.5	9.9	0%	1.4%	19.7%
좋지않다	빈도	1	0	1	0	2
	전체%	1.4%	0%	1.4%	0%	2.8%

p-value 0.006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소그룹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교차분석에서 유의수준이 0.00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나타나고 있다. 소그룹 만족도 ‘좋다’ 응답은 77.3%인데 이들 중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매우 좋다’ 46.4%, ‘좋다’ 26.7%이다.

표 2의 인구사회학적 영역에서 소그룹 참석여부는 95.7%(68명)이다. 이들 중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92.9%(66명)인 것을 보면, 소그룹에 대한 활성화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5)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변화에 미치는 영향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가 청년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헌신도와 선교 사역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그룹 참여자와 만족도가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고, 소그룹 활성화는 각 개인의 신앙성장과 영향에 근거해서 일어나게 된다. 소그룹 만족도가 각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청년들의 변화와 성장은 청년부 활성화로

이어진다.

〈표 26〉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변화에 미치는 영향

소그룹 만족도	신앙변화에 미치는 영향					
		말씀읽기	큐티생활	전도	봉사	소계
	빈도	42	18	1	10	71
	전체%	59.1%	25.3%	1.4%	14.1%	99.9%
매우좋다	빈도	5	4	1	0	10
	전체%	7%	5.6%	1.4%	0%	14%
좋다	빈도	26	10	0	9	45
	전체%	36.6%	14.1%	0%	12.7%	63.4%
보통이다	빈도	11	2	0	1	14
	전체%	15.5%	2.8%	0%	1.4%	19.7%
좋지않다	빈도	0	2	0	0	2
	전체%	0%	2.8%	0%	0%	2.8%

p-value 0.039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교차분석에서 유의수준 0.03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나타나고 있다. 신앙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말씀읽기’ 59.1%, ‘큐티생활’ 25.3%, ‘전도’ 1.4%, ‘봉사’ 14.1%의 응답이 나왔다. 소그룹 만족도에 ‘매우 좋다’에 응답한 이들은 말씀읽기와 ‘큐티생활’ 전도 순으로 응답하였고, ‘좋다’에 응답한 이들은 말씀읽기, ‘큐티생활’, ‘봉사’ 순으로 응답을 했다.

소그룹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응답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실천적인 부분의 큐티와 봉사와 전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6)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27〉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향

소그룹 만족도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향					
		매우좋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않다	소계
빈도		18	45	7	1	71

	전체%	25.3%	63.4%	9.9%	1.4%	100%
매우좋다	빈도	6	3	1	0	10
	전체%	8.4%	4.2%	1.4%	0%	14%
좋다	빈도	10	33	2	0	45
	전체%	14.1%	46.5%	2.8%	0%	63.4%
보통이다	빈도	2	8	3	1	14
	전체%	2.8%	11.3%	4.2%	1.4%	19.7%
좋지않다	빈도	0	1	1	0	2
	전체%	0%	1.4%	1.4%	0%	2.8%

p-value 0.023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향은 교차분석에서 유의수준 0.02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나타나고 있다.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향에 긍정적인 응답 ‘매우 좋다’ 25.3% ‘좋다’ 63.4%로 응답했다. 소그룹 만족도와 교차분석의 ‘좋다’ 73.2%로 응답하고 있다. 리더교육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향에 ‘좋다’ 응답이 76% 점을 비교하면, 리더들을 포함해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들의 70%이상의 ‘좋다’ 응답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소그룹 참여하는 자들의 성장과 변화는 만족도로 그리고 개인 신앙성장으로 이어진다. 청년들의 소그룹 참여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청년부 소그룹을 활성화로 이어진다. 소그룹과 개인, 소그룹과 청년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지역 중소형교회 설문내용 (지역 중소형 교회 - 연구자가 사역한 청년부)

앞서 소그룹 사역에서 표준화되고,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청년부의 활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점을 인정받고 있는 두 교회의 분석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A·B 교회와 비교해서 현재 지역 중소형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그룹 사역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자가 사역하였던 청년부의 설문 응답한 내용이 얼마나 안정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지 상관관계를 살펴 교회규모, 적용기간, 대상인원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여, 지역 중소형 교회에도 소그룹 사역을 정착시켜 청년부와 교회의 활성화를 이루어 가고자

한다.

본 설문 대상자는 전체 50명 중 3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설문항목에 대해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p-value가 0.05보다 작은 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파악하였다. 연구 설문 결과 중에 전체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었다. 이 부분은 전체 데이터 중 결측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22% 수준이다. 설문 결과 중 총 47개의 결측치가 있었다. 이를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동일한 다중대체법을 사용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당일교회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년부의 소그룹에 참석하는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50명중 3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에 결측값은 다중대체법을 통하여 결과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성별, 모태신앙, 신앙의 연수를 통한 소그룹 참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28〉 신뢰도 분석

순번	분류	alpha 값
1	리더교육 부분	0.36
2	소그룹 사역 부분	0.76
3	소그룹 활성화와 교회 성장	0.59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영역에 따른 소그룹 참여에 대한 인식은 교차분석의 X^2 검증 방법(유의 확률 0.05 양측 검정)검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29〉 인구사회학적 영역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30	100%
성별	남성	12	40%
	여성	18	60%

	소계	30	100.0%
나이	20-25 세	9	30%
	26-30 세	13	43.3%
	30-35 세	8	26.7%
	소계	30	100.0%
청년부 예배출석여부	예	29	96.7%
	아니요	1	3.3%
	소계	30	100.0%
모태신앙인가	예	16	53.3%
	아니요	14	46.7%
	소계	30	100.0%
교회출석기간	1-3 년	3	10%
	4-9 년	4	13.3%
	10-14 년	7	23.3%
	15 년이상	16	53.3%
	소계	30	99.9%
소그룹 참여 여부	예	24	80%
	아니요	6	20%
	소계	30	100.0%

응답 결과를 보면 참가자는 총 30 명인데 참가자 중 남성은 40%(12 명)이고, 여성은 60%(18 명)이다. 청년들이 주일에 50 여명 숫자가 출석하는데 60%정도의 숫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음을 볼 수 있다. 참가한 청년들의 나이 분포는 20-25 세 사이가 30%(9 명)로 두 번째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26-30 세 43.3%(13 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30-35 세 사이가 26.7%(8 명)로 세 번째이다. 이 부분에서 대형교회 청년부에서는 나이가 35 세가 넘어도 계속해서 청년부 안에서 예배하고 청년부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창립 70 주년을 넘어서는 교회에서 청년부 참가자 중 모태신앙 청년이 53.3%(16 명), 모태신앙이 아닌 청년이 46.7%(14 명)가 된다. 오래 역사를 가지는 교회일수록 모태신앙의 퍼센트가 매우 높은 편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부 안에 새로운 청년들이 양육을 통해 핵심멤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모태 신앙 속에 자란 청년들의 핵심멤버 분포가 적다. 15 년 이상

출석한 청년들이 모태 신앙인 것을 감안하면, 50%의 청년들은 새가족으로 들어와서 등록된 청년들이다.

소그룹에 참석하는 청년이 80%(24명)이고, 참석하지 않는 청년은 20%(6명)로 참석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청년부 예배 참석자들이 주일에 이루어지는 소그룹 모임에는 매우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그룹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리더교육 만족도와 신앙성장 결과

〈표 30〉 리더 교육 참여 및 만족도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합계	30		100%
리더 교육 참여 여부	있다	15	50%
	없다	15	50%
	소계	30	100.0%
리더 집중교육 필요 여부	필요하다	30	100.0%
	필요없다	0	0%
	소계	30	100.0%
리더 교육 만족도	매우좋다	2	6.7%
	좋다	17	56.6%
	보통이다	11	36.7%
	소계	30	100.0%
리더 교육 참여 배경	주변권유	7	23.3%
	믿음의 성장을위해	21	70%
	궁금한 점이 있어서	2	6.7%
	소계	30	100.0%

소그룹 리더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은 청년은 참가자의 50%(15명)이고, 리더교육 경험을 하지 못한 청년도 50%(15명)이다. 참가자의 절반이 리더교육에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리더교육을 받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 절반이상이 된다는 점은 청년부 핵심멤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구성원이 절반이 된다는 것이다. 설문 응답자 중 리더들을 위한 집중 교육이 필요한가에 100%(30명)가 그렇다에 응답을 하였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소그룹의 중요성과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리더교육 만족도에 있어서 참가자 중에 ‘매우 좋다’ 6.7%(2명), ‘좋다’ 56.6%(17명), ‘보통’ 36.7%(11명)이며, 특이한 점은 리더 교육을 받은 이들보다 ‘좋다’ 응답이 63.3%로 13% 더 높다는 점이다. 이들 중 리더 교육을 받았던 이들의 만족도와 리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만족하는 청년들의 간접경험의 응답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리더양육에 참가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주변 권유’가 23.3%(7명),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70%(21명), ‘궁금 한 점이 있어서’ 6.7%(2명)이다. 리더 교육의 참가하게 되는 계기를 보게 되면 소그룹을 통해 개인적인 신앙성장을 위해서가 첫번째이고, 리더가 다음리더들을 세워가며 권면하고 소그룹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리더교육 만족도와 소그룹 참여자의 신앙성장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30	100%
리더 교육 후 헌신도	매우좋다	4	13.3%
	좋다	11	36.7%
	보통이다	12	40%
	좋지않다	3	10%
	소계	30	100.0%
리더 교육을 통해 신앙성장 가능성	매우 그렇다	8	26.7%
	그렇다	19	63.3%
	보통이다	3	10%
	소계	30	100.0%
리더 교육 후 소그룹 관심도	매우 그렇다	5	16.7%
	그렇다	16	53.3%
	보통이다	9	30%
	소계	30	100.0%
리더 교육 후 성장된 모습	말씀읽기	8	26.7%
	큐티생활	11	36.7%

	전도	1	3.3%
	봉사	4	13.3%
	예배	6	20%
	소계	30	99.7%
리더 교육 시 필요내용	성경교육	13	43.3%
	리더십	3	10%
	소그룹 이해	4	13.3%
	섬김	6	20%
	예배	4	13.3%
	소계	30	99.9%

지금까지 리더교육과 리더 양육을 받은 후 신앙성장 모습에 대해, 리더 후 헌신도가 ‘매우 좋다’ 13.3(4명)%, ‘좋다’ 36.7%(11명), ‘보통’ 40%(12명)로 나타났다. 이 양육을 통해 헌신도의 ‘좋다’ 응답은 50%이다. ‘보통’ 응답까지 포함 교회 활동에 대해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90%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좋지 않다’ 6.7%(2명)이다. 리더교육에 참여한 이들(50%)과 리더교육 후 헌신도는 ‘좋다’(50%) 응답은 동일하다. 앞서 응답한 두 교회의 헌신도에 긍정적인 응답은 A 교회 82.5%, B 교회 67.6%로 응답에 비교하면 B 교회보다 17% 적게 응답했다.

리더 교육을 통한 신앙성장 가능성은 ‘매우 좋다’ 26.7%(8명), ‘좋다’ 63.3%(19명), ‘보통’ 10%(3명)로 응답했다. 리더 교육을 통해 신앙성장에 ‘좋다’ 응답은 90%이다. 아직 리더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까지도 간접경험과 간증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리더교육 이후 소그룹에 대한 관심도에 응답은 ‘매우 좋다’ 16.7% (5명), ‘좋다’ 53.3% (16명), ‘보통이다’ 30% (9명)로 나타났다.

3) 소그룹 참여 및 소그룹 만족도

〈표 32〉 청년부 소그룹 만족도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매우좋다	6	20

좋다	20	66.7
보통이다	3	10
좋지않다	1	3.3
소계	30	100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좋다’ 20%(6명), ‘좋다’ 66.7%(20명), ‘보통’ 10%(3명), ‘좋지 않다’ 3.3%(1명)이다. 현재 청년부 소그룹에 대한 만족도는 88%가 ‘좋다’에 응답했다. 청년부 내에서 모든 이들이 만족을 할 수 없으나, 소그룹의 형태와 모양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그룹 만족을 위한 개편 및 보완점 부분도 비교연구 교회들과 연구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표 33〉 청년부 소그룹 참여도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매우 좋다	15	50%
좋다	10	33.3%
보통이다	1	3.3%
좋지않다	4	13.3%
소계	30	99.9%

소그룹 모임에 참석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응답은 ‘매우 좋다’ 50%(15명), ‘좋다’ 33.3%(10명), ‘보통이다’ 3.3%(1명), ‘좋지 않다’ 13.3%(4명)이다. 참가자 중에서 소그룹에 참여도에 ‘좋다’ 응답은 83.3%이다. 소그룹 만족도와 3%내외의 비슷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3%정도는 개인 사정과 시간문제, 관계성, 흥미 등의 이유로 청년부 소그룹 모임을 잘 참석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 중 ‘좋지 않다’가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다.

〈표 34〉 소그룹 참여 적극성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매우 좋다	13	43.3%
좋다	10	33.3%

보통이다	2	6.7%
좋지않다	5	16.7%
소계	30	100.0%

참가자중 소그룹에 참여하는 태도가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매우 좋다’ 43.3%(13 명), ‘좋다’ 33.3%(10 명), ‘보통이다’ 6.7%(20 명), ‘좋지 않다’ 16.7%(5 명)이다. 소그룹 참여 적극성에 ‘좋다’ 응답은 76.6%이다. 이 응답은 소그룹 만족도, 참여도 보다 8%에 적은 응답이다. 소그룹 만족도가 참여도와 적극성에 영향을 주기에, 좀 낮은 응답이 나왔다고 여겨진다.

〈표 35〉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필요도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매우 그렇다	14	46.7%
그렇다	14	46.7%
보통이다	2	6.6%
그렇지 않다	0	0%
소계	30	100%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교회 내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의 질문에 참가자들은 ‘매우 좋다’ 46.7%(14 명) ‘좋다’ 46.7%(14 명), ‘보통이다’ 6.6%(2 명)로 대답하였고 이것은 소그룹의 활동이 청년부와 교회의 성장화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긍정적인 대답이라 여겨진다.

‘좋다’ 응답은 93.4%이다. 앞서 응답한 두 교회의 소그룹 활성화 필요도에 좋다 응답은 A 교회 97%, B 교회 89.1%로 응답했다. 응답한 두 교회는 7.9%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89%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주고 있다. 소그룹 활성화는 교회성장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소그룹은 삶 속에서도 신앙인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표 36〉 소그룹 핵심 나눔 내용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주일 말씀	14	46.7%

큐티 나눔	6	20%
개인적 삶 나눔	10	33.3%
비전 나눔	0	0%
소계	30	100%

청년부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주일말씀’, ‘개인적 삶 나눔’, ‘큐티나눔’ 순으로 응답을 했다. 주일예배 설교 본문이 큐티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얼마나 말씀에 충실하게 개인적 삶 나눔을 나눌 수 있느냐, 혹은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 청년들이 나누게 된다.

〈표 37〉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시간이 없어서	14	46.7%
흥미가 없어서	5	16.7%
어울리는 것이 싫어서	2	6.6%
개인적 문제	9	30%
소계	30	100.0%

참가자중 교회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46.7%(14명), ‘흥미가 없어서’ 16.7%(5명), ‘어울리는 것이 싫어서’ 6.7%(2명), ‘개인적인 문제’ 30%(9명)로 응답했다.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과 사회생활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인 문제’(직업, 학업, 감정, 환경,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울리는 것이 싫다’가 6.7%가 된다는 것은 이런 성향을 가진 청년들도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4) 소그룹 활성화와 신앙의 성장

〈표 38〉 소그룹에 참여하는 빈도 (1 주 단위)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한 번	21	70%
두 번	7	23.3%
세 번	2	6.7%
소계	30	100.0%

참가자 중 참여 빈도 질문에 한 주에 몇 번이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한 번’ 70%(21 명), ‘두 번’ 23.3%(7 명), ‘세 번’ 6.7%(2 명), 세 번 이상은 응답자가 없었다.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원했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각자 생활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주말 혹은 주일에 한번씩 만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표 39〉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후 변화된 모습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말씀읽기	8	26.7%
큐티생활	14	46.6%
전도	0	0%
봉사	8	26.7%
소계	30	99.9%

참가자에게 소그룹에 참여하고 난 후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말씀읽기’ 26.7%(8 명), ‘큐티생활’ 46.6%(14 명), ‘전도’는 응답자가 없으며 ‘봉사’ 26.7%(8 명)로 응답했다. 동일한 질문에서 앞 두교회는 A·B 교회 모두 ‘말씀읽기’와 ‘큐티생활’ 순으로 응답을 했다. 모두다 ‘말씀읽기’와 ‘큐티생활’에 모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표 40〉 소그룹 활동과 신앙 성장의 연관성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	-------	-----

매우 그렇다	5	16.6%
그렇다	20	66.7%
보통이다	5	16.6%
소계	30	100.0%

참가자 중 소그룹 활동을 통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다’ 16.6%, ‘좋다’ 66.7%, ‘보통이다’ 16.6%, ‘좋지않다’는 응답자가 없었다. 참가자들은 소그룹을 통해 각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소그룹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 41〉 소그룹이 교회 섬김에 미치는 영향력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매우좋다	7	23.3%
좋다	16	53.3%
보통이다	5	16.7%
좋지않다	2	6.7%
소계	30	100%

소그룹에 참 하고 있는 청년들의 소그룹 내 활동과 섬김이 교회 내 섬김과 활동으로 이어지는 영향력과 헌신도에 있어서, ‘매우 좋다’ 23.3%, ‘좋다’ 53.3%, ‘보통’ 16.7%, ‘좋지 않다’ 6.7%이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리더와 소그룹 참여자들의 ‘섬김 및 헌신도’에도 ‘좋다’ 부분은 76.6%이다. 소그룹을 통해 신앙인으로 그리고 한 교회 성도로써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더 커져 가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다.

〈표 42〉 소그룹이 선교(전도) 사역에 미치는 영향력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매우좋다	6	20%
좋다	10	33.3%
보통이다	13	43.3%
좋지않다	1	3.3%

소계	30	99.9%
----	----	-------

참가자 중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들의 선교(전도) 사역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에 있어서 ‘매우 좋다’ 20%(6명), ‘좋다’ 33.3%(10명), ‘보통이다’ 43.3%(13명), ‘좋지 않다’ 3.3%(1명) 응답했다.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도가 ‘좋다’ 부분이 50.3%이고, ‘보통이다’ 43.3%이다.

〈표 43〉 소그룹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목회방향	3	10%
말씀	9	30%
기도	7	23.3%
재정적 지원	3	10%
리더교육	8	26.7%
소계	30	100%

교회 내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목회방향’ 10%(3명), ‘말씀’ 30%(9명), ‘기도’ 23.3%(7명), ‘재정적 지원’ 10%(3명), ‘리더교육’ 26.7%(8명)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거의 체크가 되었다. 가장 높은 순으로는 ‘말씀’, ‘리더교육’, ‘기도’ 순이다.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 부분과 목회방향과 리더교육의 방향성과 목적에 관한 부분과 재정적 지원 부분도 빠지지 않고 다 체크가 되었다.

〈표 44〉 소그룹 리더 모임 반영

사례내용	빈도(N)	백분율
주 1회	14	46.7%
월 2회	14	46.7%
필요시	2	6.6%
소계	30	100%

소그룹 리더 모임 빈도에 관한 질문에는 ‘주 1 회’ 46.7%(14 명), ‘월 2 회’ 46.7%(14 명), ‘정기적 교육’ 응답이 없었다. ‘필요시’ 교육하자는 내용이 6.6%(2 명)이다. 소그룹 리더 교육과 모임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며 자주 모여 양육하고 리더들 간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영적 성장과 나눔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기타 반대의견이나 무응답이 없다는 점도 볼 수 있다. 핵심멤버들과 리더 가치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소그룹 리더 모임에 중요한 부분이다.

〈표 45〉 소그룹 양육 교재

항목	빈도(N)	백분율
리더용 교재	4	13.3%
큐티교재	16	53.3%
성경공부	4	13.3%
주일설교나눔	6	20%
소계	30	99.9%

현재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필요한 양육 교재는 어떠한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리더 용 교재’ 13.3%(4 명), ‘큐티교재’ 53.3%(16 명), ‘성경 공부용 교재’ 13%(4 명), ‘주일 설교 나눔’ 20%(6 명)로 응답했다. 각자 필요로 하고 현재 소그룹 나눔에 알맞은 교재들을 선정해 주었다. 청년부 소그룹 안에 큐티와 주일설교를 함께 같은 본문으로 병행하고 있기에 두 가지가 가장 높은 답변이 나왔다.

6. 교차 분석 결과

빈도 분석 후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소그룹 활성화와 교회 헌신과 섬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리더 교육을 받은 부분과 소그룹의 참여하는 부분, 소그룹 활성화 부분의 3 가지 범주로 교차 분석을 시행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피어슨(Pearson)의 카이 제곱 통계량을 통해 확인하였다. 리더교육의 만족도가 봉사와 헌신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소그룹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소그룹의 만족도가 소그룹 참여 후 변화와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교차분석을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영역에서 성별 구분에 따른 각 변수 별 차이는 유의미한 값이 없었다. 이 중 출석기간이 미치는 영향이 모태 신앙 그룹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0.001 유의미하게 나왔다.

1) 인구사회학적 영역의 교차분석

응답자 100%중 남자는 40%이고 여성은 60%이다. 이 구성비가 어떻게 소그룹 참여 여부와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응답자의 80%가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비율은 남자가 30%, 여자가 50%를 차지한다. 남성 중 20 대는 75%이고, 여성 중에서 20 대는 72%에 달한다. 응답자들은 청년부 평신도들이며, 20 세에서 35 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30 세 이상 청년들 중에서도 여성 참가자들이 대부분이며 여자청년들이 남자청년들 보다 소그룹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표 46〉 출석기간이 높은 그룹 중 모태신앙 그룹의 긍정적 영향

모태신앙	출석기간					소계
	빈도	1-3년	4-9년	10-14년	15년이상	
예	빈도	3	4	7	16	30
예	전체%	10%	13.3%	23.3%	53.4%	100%
아니오	빈도	1	0	1	14	16
아니오	전체%	3.3%	0%	3.3%	46.7%	53.3%
	빈도	2	4	6	2	14
	전체%	6.7%	13.3%	20%	6.7%	46.7%

p-value 0.001

청년부 안에 모태신앙이 53.3%이다. 이들의 93.7%는 본 교회를 10년이상 다니며 예배에 참석하며 교육을 받고 성장해 왔다. 70년이 넘어선 교회에 청년부에 본 교회 출신이 50% 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 교회 출신 청년들의 숫자가 적은 편임을 나타낸다. 장년층 교회 내

자연감소율이 10-20% 내외 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인원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들은 43%에 해당되며 소그룹 참여자의 54.2%에 해당된다. 모태신앙이 아닌 청년들은 45.8%가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힌 출석형태이다. 모태신앙인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남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고 모두다 출석이 매우 좋은 편이다. 그리고 출석 기간에 상관없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2) 소그룹 만족도가 교회내 헌신 향상에 미치는 영향

〈표 47〉 소그룹 만족도가 교회내 헌신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회 내 헌신도	소그룹 만족도					
		매우좋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않다	소계
빈도	빈도	6	20	3	1	30
	전체%	20%	66.7%	10%	3.3%	100%
매우좋다	빈도	3	4	0	0	7
	전체%	10%	13.3%	0%	0%	23.3%
좋다	빈도	3	11	1	1	16
	전체%	10%	36.7%	3.3%	3.3%	53.3%
보통이다	빈도	0	5	0	0	5
	전체%	0%	16.7%	0%	0%	16.7%
좋지않다	빈도	0	0	2	0	2
	전체%	0%	0%	6.7%	0%	6.7%

p-value 0.004

소그룹 만족도가 교회내 헌신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0.04의 유의미한 값을 보인다. 교회내 헌신도는 ‘매우 좋다’ 23.3%, ‘좋다’ 53.3%, ‘보통이다’ 16.7%, ‘좋지 않다’ 6.7%로 응답했다. 응답 중에서 소그룹 만족도가 ‘좋다’ 응답이 86.7% 일 때 헌신도 향상에 도움이 ‘좋다’ 응답은 70%이다. 이 응답은 소그룹 만족도에 ‘좋다’에 응답한 이들이 교회 내 헌신도와 섬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소그룹의 만족도는 소그룹 활성화와 개인의 신앙성장과

이를 통한 교회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소그룹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과 소그룹이 교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했다. 소그룹 리더 교육을 받은 자들과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들은 교회 활성화를 위해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다.

7. 소결론

본 설문은 소그룹 사역이 청년부 활성화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세부사항으로 인구사회학적 영역과 리더교육부분, 소그룹 참여 부분, 소그룹 활성화 부분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리더 교육 만족도가 청년들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지, 소그룹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소그룹 만족도는 소그룹 활성화와 섬김과 헌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을 했다. 이를 연구를 토대로 소그룹 사역은 각 개인, 소그룹과 공동체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영향을 끼치며, 헌신과 섬김의 변화를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두 교회 청년부의 응답결과와 연구자가 사역한 청년부의 응답결과까지 3개 교회 응답을 살펴보았으며, 응답에 참여한 A 교회는 참여자들의 26 세이상 30 세까지의 그룹이 73%정도 참여를 하였고 B 교회는 20 세이상 26 세까지의 그룹이 80%가까이 참여를 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두 교회는 청년부와 대학부가 나뉘어져 있는 대형교회 조직을 가지는 청년부임을 감안한다면, 이 두 교회 응답 내용이 청년들 전 연령대의 답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가 사역한 교회 청년부 역시 35 세 이상 응답자만 적을 뿐 거의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 분포를 볼 수 있다.

3 장에 연구한 소그룹으로 청년부 활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대형교회 청년부에 대한 연구와 4 장에서 설문에 응답한 모델링 2개 교회의 응답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비전과 방향 목적을 향해 소그룹 활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그룹은 청년 각 개인의 신앙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주고, 각 개인의 신앙성장과 변화가 청년부 소그룹의 만족과 변화와 성장을 주고 이는 다시 청년부와 교회의 헌신과 성장과 활성화 만족과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볼 수 있다.

4 장에 비교 연구한 지역 중소형 교회에서도 소그룹 운영과 활동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기적인 관계 형성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각 개인과 소그룹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개인과 소그룹과 공동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하고 활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면 청년부의 활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청년부 성장 목회 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역 중소형 교회에 청년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목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그룹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지역교회 청년목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청년부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소그룹 목회 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소그룹과 청년의 유기적 관계가 각개인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며 활성화 되는 것을 살펴 볼 것이다.

교회 안의 소그룹은 교회 성장의 한요소이다. 크리스티안 슈바르츨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저서에서 8 가지의 질적 특성이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로 전인적인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¹¹⁰ 지난 2010년 미국연합감리교회(UMC)가 교회에 활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국 내 3만 2천여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소그룹, 평신도 리더십, 활기찬 예배, 목회자의 설교가 교회의 활력을 주는 요소라 말했다.¹¹¹ 대그룹 예배와 함께 소그룹을 교회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연구자는 소그룹을 사역한 청년부의 핵심동력으로 적용 및 사역하기 위해서 청년이해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형교회 청년부 소그룹 사역 모습과 소그룹 핵심 원리를 살펴 보았다. 이 연구를 토대로 4장에서 조사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지역 중소형 교회에 접목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원리를 논하고자 한다. 지역 중소형 교회와 청년부의 관계성과 청년들은 소그룹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년부 소그룹의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청년부를 변화시켜가고 성장시켜 가는지를 보고자 한다.

대형교회의 소그룹 유형과 소그룹 핵심 원리가 지역 중소형 교회에서도 전문지도자들과

110) Louis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834.

111) 김성원, “활력 넘치는 교회 네가지 특징”, 「국민일보」, 2010년 7월 16일.

리더양육을 통해 핵심사역 원리가 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그룹 핵심 원리 항목으로 소그룹 리더 교육과 소그룹 인도법, 큐티와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부름 받은 교회와 보냄 받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미셔널 처치’를 세워가게 된다.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청년부는 신앙적으로 건강한 교회, 젊어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1. 소그룹 핵심원리 및 전문사역자의 중요성

제 3-4 장에서 연구한 소그룹 사역의 모델링이 되는 교회와 소그룹 유형에서 살펴본 바, 소그룹 사역 핵심원리와 소그룹과 청년부의 비전과 목적은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청년부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소그룹 사역의 핵심원리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그룹 비저너리 사역자가 필요하다. 대형교회 소그룹을 연구해 보면, 지역 중소형 교회에 사역원리들의 장점과 적용하고 벤치마킹하고 싶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소그룹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 핵심원리를 지역 중소형 교회에 현실에 적용하여 청년부의 활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청년부 전문 지도자가 소그룹에 대해 먼저 경험해 보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소그룹의 핵심원리를 바탕으로 지역 중소형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장동력으로 소그룹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청년 전문사역자가 감당해야 한다. 지역중소형 교회 청년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년부만 전담해서 사역하는 전문사역자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역 중소형 교회들은 많은 사역 내용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소그룹을 청년부의 프로그램이나, 연중 사역으로 활용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청년들의 신앙의 성장과 예배자로 세우는 것에 힘써, 각 개인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리더양성에 힘써야 한다. 담당목회자와 사역자와 리더들의 신뢰관계 속에 청년들이 성장하고 이 영향은 다시금 소그룹과

청년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소그룹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전문화된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성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다시금 청년리더들이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교회와 같이 체계적이고 긴 양육 기간을 가질 수 없지만, 목적 지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교회와 발맞추어 이루어 갈 수 있다면, 더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성이 청년부가 다음세대의 중요성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조금씩 젊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중소형 교회들은 목회 방향이 대부분 장년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가 사역했던 교회도 70년 이상 된 교회이며, 장년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통적인 교회이며, 지역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잘 나타나는 교회이다. 하지만 다음세대의 중요성과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이들을 성장시킬 사역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미래와 예배하는 세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 부분에서 청년전문 사역자를 세워 관심과 사랑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집중된 사역을 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 10년뒤 교회를 이끌고 나갈 청년들을 세우는 일에는 큰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방향, 목적, 가치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역구조가 필요하다.

청년전담 사역자가 있는 교회들은 장년대비 청년의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교회가 많다. 하지만 청년전담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은 청년 비중이 10%를 넘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 물론 이 구조 안에는 대형교회, 교회 접근 성, 행정적 뒷받침, 사역비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구조는 꼭 도입해야 할 부분이다.

예배의 감격이 있는 공동체, 기도와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 교회에서만 아니라 삶 속에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양육, 소그룹, 임원, 리더, 핵심멤버, 신입생, 새 가족, 장기결석자, 다음리더들을 만나고 세워가는 삶을 청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문사역자를 통해,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야 서로가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청년부를 돌보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청년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일상에서 다시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있고, 청년부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예배하기 위해 청년들이 다른 이유들을 내려놓고 모이기 시작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헌신하게 된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소그룹을 만들고, 소그룹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목회적 마인드로 섬길 리더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준비하는 일들이 청년부 전문사역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진다면, 소그룹의 핵심원리를 잘 적용해 가며 청년부는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교회의 상황과 특성 (당일교회를 중심으로)

서울에 위치해 있는 교회이지만, 지역교회의 성향이 강한 교회이다. 당일교회는 영등포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이다. 지역에 중형교회로 영향력을 끼치며 가까운 지역에 2-3 번의 개척과 함께 해서 좋은 역사를 가지고 성장해온 교회이며, 지금은 다시 한번 더 도약하고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써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

영등포 지역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기 보다는 준 공업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주거환경이 적고, 상업 및 가게,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교회 주변은 발전되기 보다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이 많이 있으며, 오히려 낙후된 시설들 속에 교회가 둘러 쌓여 있다. 영등포 청과물 시장 속에 들어 있기에, 낮에 오히려 유동인구가 적은 편이며, 주변에 있는 대형쇼핑몰과 마트,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와 주거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낮 시간에는 폐허처럼 조용하다가 밤과 새벽에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닌 곳이기도 하다. 물론 시작을 중심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아파트와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와 생활권이 형성된 곳마다 종교시설과 교회는 다 위치해 있다. 교회 주변에 함께 생활하는 인구는 적고 유동적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교회가 위치해 있다.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고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리고 낡은 상권이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 지역 교회로서의 역할 이곳에 다시금 사람들이 모이고 생명 샘이 솟아나게 할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영등포 지역은 산업화가 빨리 시작된 곳이고 아직도 디지털 단지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지면서 외국인들의 생활권도 많이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다. 그리고 영등포는 산업화와 함께 산업선교회와 함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인권문제와 함께 산업화되어진 곳에 모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아직도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지금은 노회 산하 기관이 되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사역을 하고 있다. 영등포 지역에는 산업선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기관에 선교회와 예배 처소가 있으며 예배와 신우회 모임을 위해 모이고 예배 드리고, 조찬기도회와 함께 여러 가지 산업선교를 해가고 있다.

교회가 이 시점에서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관계 전도와 선교적 삶을 목표로 추구해서 방향을 가져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서울, 경기 권에 있는 교회들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연결되어지고 좋다고 여겨지면 1-2 시간 거리는 힘들어도 찾아온다. 그들의 생활권이 출퇴근 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이고자 하면 힘써서 모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도 주거환경과 교육환경과 직장과 근무환경을 따라 이사를 해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도 주일에 1-2 시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모이고 있다. 구성원 중 핵심멤버들도 다른 시도 권에 생활하고 있고, 모임시간 후에는 돌아갈 차편을 고려해서 일찍 마치고도 한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관계전도와

지역 사회에 이미지 전도, 교회 알리기, 지역사회 관공서를 통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드러내야 할 것이다.

교회적으로 70 주년을 넘어가고 있다. 역사가 긴 만큼 좋은 전통도 있고, 변화해야 할 모습도 많이 있다. 다시 한번 새로운 100 년을 준비하며 탈바꿈해야 할 때이다. 핵심가치와 교회의 진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바꾸어 가야 할 때이다. 여력과 여건이 허락되는 데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때, 단순히 하드웨어 부분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예배자의 삶, 말씀의 선포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청년들과 다음세대에 희망을 주는 삶으로 변해 가야 할 때라 여겨진다.

3. 지역교회 청년부 목회 핵심가치 (당일교회 중심으로)

청년부는 장년층에 비해 적은 인원이 모인다. 장년층 주일 예배는 500 명 정도의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청년들은 주일에 40-50 명 정도 모이는데 장년층에 10% 정도 되는 수치이다. 청년부와 교회 사역의 사역자로 부임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예배와 모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 청년부 모임과 예배에 모이지 않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년세대와 다른 성향과 성격의 예배와 모임도 있어야 하고, 청년예배의 목적과 방향도 있어야 하고, 함께 공동체 성을 가질 수 있는 소그룹도 있어야 함을 발견하게 된다.

청년부의 방향과 목적은 '부름 받다. 보냄 받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청년들의 일상에 삶에 예배자로 삶이 세워져야 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삶으로 부름 받았다면, 삶의 자리에 가서도 크리스천으로 보냄 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들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듭남(새로운 삶), 매듭짓기(믿음의 결단), 다시 시작하기(일상의 예배자로)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청년부 계획과 내용들을 수정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테마 별, 성경공부와 바이블아카데미와 리더 교육과 제자교육도 진행했지만,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필요해서 행하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알고 싶어 하고 다시금 재교육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함께 연구하고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청년들을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살게 할 것인가? 이 고민과 목회 방향과 철학이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그룹과 양육과 성경공부와 리더와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소그룹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청년부 사역의 현 주소이다.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교회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세상 속에 보냄 받은 교회로 청년들을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

4. 소그룹 활성화 필수요소

1) 청년 예배들 디자인하라 (예배 중요성 회복하기)

청년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청년부를 전담할 만한 전문 사역자도 없었으며 리더그룹의 활동도 없었다. 그리고 예배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장소도 장년예배가 끝나고 오후 찬양예배 사이에 본당을 사용하고 있어서, 너무 큰 공간에 에너지 소비도 심한 형태였다. 어른들의 인식도 장년예배를 함께 드리고 청년 모임 정도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정식 4부 혹은 5부 예배가 되지 않으면, 청년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 사역에 섬김이들과 교사와 찬양대로 예배를 드리고 잠시 부서 모임 성경공부 모임 정도로만 인식한다. 교육부와 비교해 보아도 인원과 모임의 성격, 내용, 성격들과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청년부 예배와 모임은 토요일에 가지게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와 봉사 섬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교회들도 많다.

특별한 재능이나 전공이 있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사역과 섬김에 봉사하게 하고 청년부에서 활동은 하지 못하거나 안 해도 상관없는 청년들도 있다. 지역교회에 인적 인프라가 한계가 있기에 청년예배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을 교회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고 청년들의 문화와 동질감을 느끼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년들은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물질이 채워지는 곳으로 교회 이탈 현상들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청년 목회자도 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청년부, 대학부의 급격한 정체와 이탈현상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청년들 세대의 이탈현상과 탈 종교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대로 장년세대로 영향이 이어질 것이다.

청년부가 복음을 바탕으로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한다. 예배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청년들이 바른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세대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신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어떻게 인도하시는 지를 보게 된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진리 안에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의 예전과 장소도 중요하지만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예배자의 현재 신앙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예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공동체 성을 확인하고 함양해야 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삶의 방식들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소그룹 중에서 예배팀을 운영하면 활발한 소통과 예배 도우미 및 참여자들을 만들 수 있다.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 기획과 준비에서부터 참여하여 예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협의하고 기획해 갈 수 있다. 적어도 1달 먼저 분기의 예배를 먼저 준비하게 되고, 이에 맞춘 찬양팀의 찬양팀과 연습과정과 예배주제와 소개영상을 준비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모임을 가지게 되고,

소그룹 사역방안도 의견을 교환하며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각 팀의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함께 준비해 가야 할 내용들을 점검하고 연합할 부분들도 찾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하고 노력하며 함께 예배를 청년들이 각 소그룹에 들어가서 나눔과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예배를 준비하며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며, 소그룹에도 예배의 선한 영향력들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청년부 안에 찬양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전문 찬양 사역자와 예배 인도자를 세워서, 역동적인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찬양 인도자들과 찬양팀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와 인도자 세미나와 집중 훈련기간들을 가져야 하며, 훈련된 이들을 통하여 예배와 찬양을 준비해야 한다. 찬양리더와 함께 찬양 콘티 준비에 및 음악적인 부분도 함께 의논하며, 준비해야 하고 워십팀도 찬양과 워십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여 청년 지체들로 하여금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비롯해서 청년부에 소속된 모든 청년들이 소그룹 중심으로 예배팀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예배 안내팀, 영상팀, 음향팀, 멀티 미디어팀, 기획팀, 행정팀들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배우며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예배는 청년들에게 예배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고 의미부여에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시대가 멀티미디어 시대임을 감안하여 청년들에게 어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 문자와 음성위주의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지나가고 뉴미디어가 지배하는 멀티 미디어 시대가 왔다.¹¹² 스마트 폰, 인터넷, 영화, 게임, 어플과 미디어기기들이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를 점령하고 있다. 자신들이 보았던 것이 이미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결정해 버렸기에, 행동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있다. 그렇기에 영상의 활용도를 높게 생각하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편집하고, 예배의 광고와 영화예배와 ‘미디어 데이’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112)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2001), 137.

예배를 SNS 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도 하고 수련회와 특별집회는 미디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집회들을 실시간으로 영상중계를 하기도 한다. 영상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을 예배와 관련하여 다시 볼 수 있도록, 설교를 웹 상에서 나눌 수 있도록, 청년부 광고를 영상으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개인 계정의 SNS 가 아닌 청년부 밴드(네이버 밴드)와 청년부 계정의 SNS 를 통해 업로드 해 가고 있다.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가 예배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교회 청년부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청년부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연구한 대전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 청년부 50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내용이 있다.¹¹³ 청년 대학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8〉 청년대학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¹¹⁴

열정적인 예배	소그룹 모임	특별행사	기타
46%	42%	6%	5%

〈표 48〉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 사역의 활성화와 부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열정적인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예배를 위해 청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움직인다.

실제로 청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신앙생활의 큰 영향을 미치는 알 수 있다. 이 예배를 기본으로 해서 예배자의 삶을 소그룹으로 예배자의 삶을 일상생활로 이어가는 것이다. 부름 받은

113) 유재길, “지역 교회에서의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박사학위 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66.

114) Ibid., 67-8.

자리에서 보냄 받는 자리로 과송하는 것이다. 예배를 강화하고 디자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2) 준비된 사역자를 세우라 (사역자 준비시키기)

아무리 청년전담 사역자를 세운다 하더라도 사역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청년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교회에서 큰 고통을 수반하며 세운 자리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청년들의 영혼과 삶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각오와 결단이 사역자 자신을 개발하고 영성 훈련과 섬김과 사랑의 나눔에 대한 나태함이 없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역자에게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야 한다.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준비 과정들을 위해 본 연구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큐티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말씀묵상과 말씀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통한 영성 훈련은 모든 목회자에게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놓치기가 싫다. 눈뜨자마자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큐티와 소그룹에 큐티나눔을 통해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은 청년사역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청년 리더들과 소그룹에 핵심 나눔도 큐티생활, 말씀 나눔, 말씀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일상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경공부 시간을 통한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분야의 자기개발과 인사이트들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자기개발을 하라고 하면, 리더십과 사회 경제, 인문학 분야 등의 자기개발을 이루려고 한다. 물론 이 부분들도 필요하다. 하지만 목회자의 전문 영역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목회자의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되는 것이 말씀이다. 다양한 전문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한다. 성경의 특징과 각 장마다 내용들을 외우고 어느 책, 어떤 내용, 특징들을 연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신학적인 검증과 신앙적인 성장이 멈추게 된다. 많은 이들이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독서와 성경공부를 멈추는 이들이 있다.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성경공부 코스를 통해 만들고 청년부 바이블 아카데미와 성경공부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은 성경전체에 대한 이해와 10 개월 혹은 1 년의 과정을 통해 성경전반을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들을 원한다. 설교와 함께 성경공부와 바이블 아카데미는 중요한 부분임을 놓쳐서 안 된다.

세 번째는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이다. 지도자와 리더에게 영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매일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놓치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 떨어진 상황에서 목회자의 영성과 성품을 통해 사역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 어제의 영성과 성품이 오늘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오늘 살아갈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주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 수록 목회자가 아닌 기술자, 기능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목회자에게 영성 훈련은 사역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역의 여러 가지 허점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문제는 한 사람을 넘어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청년활성화 방안과 청년 사역 연구에 모델링이 되었던 교회들이 있다. 10-20 년 사이에 청년 사역하는 교회 하면 빠지지 않았던 교회들이었다. 그런데 그 교회 목회자가 소속교회에서 이성과 문제를 일으키면서 교회 전체가 엄청난 시험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교인들은 충격 속에 흩어지게 되었다. 청년사역의 불꽃이 되었던 교회,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모델이 되었던 교회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사회 뉴스거리로 전락한 교회들도 많이 있다. 이와 맞물려 한국교회 청년 사역자들의 성적인 문제가 사회에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청년들이 쉽게 모이는 곳에선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에 노출되게 되어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유혹들이 일어나는 곳이 청년 사역의 현장이다.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내일은

예배자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들은 오늘 삶의 현장을 위협하게 만든다.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성품훈련과 함께 영성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고 있다. 목회자들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부터, 오늘부터 다시 영성 훈련을 통한 회복밖에는 없다. 물론 목회자도 혼자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주변의 목회자 아카데미와 훈련학교와 목회 컨설팅들을 통해 본인을 점검하고 훈련을 반복하고 목회자의 목회 마인드를 회복해야 한다. 목회자 개인부터 시작되어, 가정, 교회, 세상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네 번째 청년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 중에서 리더그룹과의 만남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부에는 다른 계층과 달리 리더그룹이 존재한다. 임원, 소그룹 리더, 또래모임 인도자, 팀 리더 등 지역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형교회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리더들이 존재한다. 작게는 5명에서 많게는 30명의 리더들의 모임이 있다. 청년 담당 목회자의 목회의 성공 여부는 사실 이들에게 달려있다.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 주일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일대일 성경공부에서 제자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이들의 손길이 끼친다. 각 분야에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 목회철학과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전달되어진다. 이들을 목회적 마인드를 가진 리더들로 세우지 않으면, 순원, 팀원, 사역팀, 소그룹, 또래모임 등의 수많은 소그룹 모임들이 의미없이 진행되거나, 청년부 방향과 무관한 모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청년담당 사역자가 사역으로 지치기 쉬운 리더들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이 지치면 모든 청년들이 지치게 된다. 이들을 청년담당목회자가 이들을 돌보고 협력자로 세우고, 리더 양육하는 시간을 가지는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리더들도 청년이며, 그들의 삶의 문제를 인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담당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만남을 어떤 만남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핵심 멤버가 커져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교회나 어느 모임이나 이 핵심 멤버들의 성패가 전체 모임을 좌우한다.

특히 주일 청년부 예배와 모임이 끝난 후에는 리더들과 간단한 모임을 통해 주일 모임과 소그룹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식사와 취미활동을 통해 리더들과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 애쓰는 것도 필요하다. 리더들의 삶의 문제와 애경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찾아가 기뻐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일반 청년들과 만남과 캠퍼스 심방과 직장근처에서의 점심 모임도 좋다. 그들의 삶의 터전에 찾아가 삶의 노고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것은 청년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

다섯 번째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삶에 전반에 깔려 있는 사상과 노력의 주체가 인본주의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 이것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¹¹⁵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아닌 목회자가 예수님이 되고, 청년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다루기 좋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다.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성도들도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모습들은 사회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문제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 오면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는 이중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교회에서 해 오던 제자훈련의 본 의미를 생각해 보며,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의 제자양육 훈련과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훈련들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곡되어지면, 교회성장의 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한다. 목회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사역에 대해 소개해야 한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이 사도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115)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3), 8.

해야 한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전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의 사도들에게도 이어졌다.¹¹⁶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자 하였고, 창조주 하나님께 타락한 인간이 돌아오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때 타락한 인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 상속자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무한함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조 재건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무한함을 아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한다.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복음이 묻어나고 있는가? 심방, 상담, 설교, 성경공부, 바이블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모임과 소그룹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고 피부로 느끼게 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근간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모르는 신앙은 결국에는 왜곡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복음이 주는 참다운 자유 함과 구원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도 가지기 어렵고, 제자의 삶도 살지 못하고, 기독교 이미지도 심을 수 없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복음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과 자유와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3) 양육 시스템 갖추기 (리더 세우기)

청년부 사역의 핵심인 예배와 함께 소그룹을 살리고 움직이고 섬길 수 있는 리더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소그룹 사역의 핵심은 리더를 세우는 것에 달려 있다. 청년 리더들은 짧은 시간 안에

116) Ibid., 17.

많은 변동이 생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소그룹이 하나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청년 사역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그룹 원들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소통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청년들 사역의 대부분은 리더 그룹으로 인해 움직여지게 된다. 리더들이 얼마나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목회적 마인드로 사역할 수 있는가? 이 리더들이 지치지 않게 다시 교육되어지고, 돌봄을 받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되어지는가에 따라 청년부 소그룹 공동체의 생명력은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청년들 중 누구라도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양육 시스템과 양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리더들이 생겨나고 리더 교육을 통해 신앙의 성장이 생겨나게 되고, 복음적 삶에 행함도 달라지게 된다. 청년부 안에서 이 과정은 신앙 성숙을 위한 양육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청년들을 새 가족에서 등록교인으로 신입생들을 리더와 헌신자들로 세워갈 수 있다. 청년 리더 교육과 소그룹 양육을 받았던 이들은 재 양육과 교육을 받기를 원했고, 성경공부와 큐티와 리더십에 대해 양육 받고 싶어 했다. 청년의 때에는 그들의 지적, 영적, 성경적 교육을 통해 신앙과 복음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

청년부 양육 시스템은 새 가족반(4-6 주)교육 후 훈련 1-성장반(복음 기초반), 훈련 2-일대일 제자양육, 훈련 3-헌신자반(리더교육, 신앙훈련)과정과 리더 수련회로 진행된다. 그리고 성경공부 과정을 전반기 후반기에 개강해서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하고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자들을 세워가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리더를 재생산 해내는 과정을 유지한다. 청년부를 10년이상 다닌 청년들이라면, 거의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고 2번이상씩은 이수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세워간다.

특히 헌신자반을 통해 리더교육과 함께 신앙훈련을 통해 청년들이 세상에서도, 삶에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들과 도서들을 소개하여 그 과정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삶에 스며들게 하여 믿음의 기둥을 삶 속에 세울 수 있게 한다.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양육 시스템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고 또한 성숙한 신앙인의 삶도 살게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 생활을 살게 한다. 양육과정과 성경공부, 큐티 생활은 개인 영성 훈련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청년의 때에 양질의 도서와 역사공부 자료들을 제공함으로 성경에 대한 전방적인 배경이나 폭넓은 지식을 가지게 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반기 하반기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인물연구, 주제별연구, 역사연구, 단어연구, 성경 연구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 시각에서 성경을 관찰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한다. 이 시간들을 통해 성경의 나무와 숲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성경통독과 구약개관 신약 개관과 같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성경전체의 맥을 잡을 수 있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소그룹을 통하여 성경과 묵상내용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에 자의적 성경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성경을 여러 번역본으로 보고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게 되면, 그만큼 말씀이 가까워지고, 깊이가 깊어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연구방법과 묵상 방법들과 성경공부가 자신의 삶과 소그룹의 삶에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4) 소그룹을 활성화하라 (교회 속의 작은 교회)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다. 청년들은 이미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진다. 약화된 공동체성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청년사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회복해야 할 내용도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온 방향과 달라져야 한다.

성공 지향적인 목회 방향은 청년 사역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전담 사역자를 세우기 어려운 현실에 청년부 사역자들은 매년 결과물과 매 분기마다 보고 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물량을 투입해서라도 억지로 청년 사역과 행사들을 만들고 2-3년 뒤에는 그 내용들이 다 변화되어진다. 사역자에 의해 교회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변화되는 사역이 아닌 청년부 안에 흔들리지 않고 청년의 복음적 삶의 생명력을 움직여갈 모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그룹 공동체이다. 소그룹은 청년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소그룹은 다양한 이들로 명명된다. 셀, 순, 소그룹, 또래모임 팀 사역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가장 큰 개념은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의 기본 단위를 소그룹으로 보고 이 모임들이 참여하는 이들이 복음적 삶을 살게 하고, 복음적 삶을 사는 이들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청년공동체가 움직여지고 활성화되는 것이다. 즉 교회 속의 작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¹¹⁷

소그룹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소외됨 없이 충분히 그리고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된다. 특히 셀에서는 소그룹을 돌보면서 예비목자를 키우고 예비리더는 목자의 역할을 배우면서 동시에 셀 리더로 섬길 준비를 하게 된다.

청년사역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셀 구조의 소그룹을 형성하면 더 활발한 사역이 된다. 셀은 그 구성원이 전부 하나씩 사명을 감당하면서 셀을 섬기게 된다.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에 각자 그 모임에 충실 해진다. 그리고 분가 시기가 되면 셀 폭발을 통해 예비리더가 하나의 셀을 형성하게 된다. 그 기간 동안에 탐구 단계를 가져서 서로 친해지는 시기를 가지게 되고 과도기 단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가치관의 충돌도 생기게 된다. 그리고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갈등도 생기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서로 다듬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기간을 가지게 된다. 서로의 다른 점을 통해 사역하게 된다. 셀 원들 속에 다른 점들로 인해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공동체성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으로 공동체 단계로 이어진다. 이 단계를 통해 셀 참여의 헌신도도 깊어지고,

117) Joel Comiskey, 「셀 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5), 25.

자유롭고 풍성한 대화와 관계도 형성된다. 이 단계를 통해 폐쇄적인 소그룹이 아닌 성장하고 더 큰 셀로 관심을 가지게 한다. 확장단계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하고 이것이 전도의 계기가 되며 삶의 간증의 시간들이 되어 관계 전도의 시기가 된다. 셀이 1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는 번식(분가)의 단계가 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분가하지 못하면 생명력이나 활력은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셀은 다시금 점검하고 모임이 만들어지고 복음적 삶을 살며 살았던 이야기들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고 새로운 셀들이 생겨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청년부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 간다.

셀이 아니더라도 소그룹도 계속적으로 청년부 안에 모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점검과 활동 위로와 권면 적응과 도전 충전과 양육의 시기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소그룹은 분기 혹은 전반기와 후반기를 기점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소그룹 안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다음리더의 변경 혹은 소그룹 구성원의 변경, 또래와 출석과 관심과 사역 중심의 변화를 가지면 소그룹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가 생겨나게 된다. 이 기간에 새 가족들과 관계전도 되어진 이들, 장기결석자들과 청년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군 지체 청년들과 입대하는 청년들과 유학생들과 방학기간 중 돌아온 청년들까지 새로운 구성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소그룹 활동에 열심이지 못하는 청년들까지 다시 한번 권면하고 독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 리더들의 재 교육과 돌봄, 충전과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시기에 누가 보아도 잘 될 것 같았던 소그룹이나 셀이 잘 활동하지 못하는 소그룹에 대한 점검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분위기 전환의 시기가 아니라, 다시금 점검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확인의 시간이 있어야 하며 재 충전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 청년부 안에 소그룹의 생명력과 활성화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활동과 점검 소그룹과 전체모임 위로와 권면, 적응과 도전, 충전과 양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예배와 집회, 수련회와 단기선교, 예배팀과 섬김이팀 등 팀 사역과 나눔 공동체가 목적에 맞게 만들어지고 해산하고 위원 모임으로 준비하고 팀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나눔 공동체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과정이 맞물려야 한다. 복음적 삶을 살고 복음적 삶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간증을 나누고 이것이 소그룹 안에서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간증이 전도가 되고, 외부로 향하는 관심과 봉사가 되고, 봉사와 섬김과 나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부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소그룹은 배가하게 되고, 말씀의 나눔은 깊어지고 신뢰의 관계 속에 신앙 공동체성이 더 확고해지게 될 것이다.

5) 소그룹 나눔 실제 - 셀 나눔 방법 예시¹¹⁸

(1) 환영의 시간 가지기(Welcome)

다른 지체 세워주기: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 사람의 장점을 열매로 예를 들어 격려하기

예- ○○○은 알밤과 같은 사람이예요. 처음 만나면 날카로워 보이지만, 사귄수록 귀하고 단맛이 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2) 경배하기(Worship)

주제: 열매 - 찬송가와 복음 송, CCM 을 함께 사용하여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찬양

(3) 말씀 나누기(Word)

말씀: 시편 23 편, 마태복음 3 장 8-12 절

118) 유재길, “지역 교회에서의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72-5.

본문읽기: 시편 23 편, 마태복음 3 장 8-12 절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하기

지난주 설교를 통해 내가 받은 도전은 무엇일까요? 나의 마지막 죽은 어떨까요?

- ▶ 언제?
- ▶ 어떤 모습?
- ▶ 조사(혹은 비문)? 『○○○는 _____ 한 사람이었노라』
- ▶ 내가 천국에서 거둘 열매는 무엇인까요?
- ▶ 당신이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싶은 열매는, 삶의 목적은? (2-3 가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가장 큰 자량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당신이 거둘 열매가 결정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당신의 알곡은 무엇인가요?

- ▶ 알곡은(섬김의 열매)?
- ▶ 가라지는(없애고 고쳐야 할 점)?

(4) 좋은 소식 알리기(Witness)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특별히 그 동안 품었던 VIP 를 전도 합시다. 각자 금년에 맺게 될 VIP 한 사람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 ▶ 나의 VIP
- ▶ 함께 나눌 기도제목

(5)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Work)

나의 감사 기도 제목 세가지

-
- ▶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드린다.
 - ▶ 중보기도: 가족, 건강, 회복, 치유기도하기

(6) 소그룹 나눔 적용하기 (소그룹 운영 실제)

성숙되고 의미 있는 셀 모임을 위해서는 셀 리더의 모임 이전, 모임 당일, 모임 이후 관리가 필요하다. 모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과 세심한 준비와 진행이 필요하다. 셀 사역자로서 활동 내용을 확인하면 먼저 모임 장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일찍 와서 준비한다. 셀 원들이 참석하기 용이한 장소가 좋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가정 및 삶의 자리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장소도 희망하는 가정을 우선으로 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만남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축제 분위기, 축하하는 분위기, 사랑의 만남, 격려하고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의미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은 삼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의도성을 가진 자리 배정이 필요하다. 새로 참석하는 셀 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인도자 주변환경에 많이 좌우되지 않는 자리가 좋다. 셀 원의 관계성도 고려해야 하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셀 원도 생각해야 한다. 세심한 자리배치가 그날 관계성 회복도 이룰 수 있고, 모임의 집중력을 가져올 수 있다.

네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이 필요하다. 친근한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한 주간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이자마자 바로 나눔의 본론을 시작할 수 없다. 구역예배처럼 모임시간이 되자마자 예배 드리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칭찬과 인정, 감사한 일, 기억나는 일, 지난 주일 말씀 등으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다.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타임테이블을 지켜야 한다. 셀 모임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모이는 인원들이 시간계획과 함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만들고 비워 둘 수 있다.

여섯 번째는 교재에 따라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다. 여는 시간, 나눔, 기도, 실천의 순으로 진행한다. 시간의 따라 안배가 필요하다. 장소와 시간에 좌우되어 순서를 생략하는 경우 그만큼 모임의 영감과 모임의 의미와 공감성이 감소하게 된다.

일곱 번째는 여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지난 주 말씀 중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고 교재에 나타난 질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여는 시간은 찬양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여덟 번째 말씀읽기 시간을 가진다. 성경 말씀을 셀 원들이 교독하며 셀 리더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야 한다. 15-20 분 정도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 나눔을 나누고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셀 리더가 성경본문 교독 후에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요약을 준비해서 요약 정리한다.

아홉 번째 나눔 시간은 셀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셀 원들이 전부다 참여하도록 한다. 나눔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을 토대로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셀 리더(목자)가 영적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한다. 함께 나눔의 시간을 통해 기도의 제목들이 형성된다.

열 번째 기도시간을 가진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 시간마다 중보기도시간, 짝 기도 시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다. 중보 기도 제목에는 반드시 교회의 비전과 목회를 위한 기도와 개인 중보기도와 전도 대상자와 환우 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한다. 나눔을 통한 기도제목은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다.

열한 번째 실천시간은 지난 주 실천했던 내용들을 점검하고 이번 주 실천할 계획들을 세워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터 함께 계획을 짜고 나눈다. 이 시간을 통해 한 주간 기도하게 되고, 복음적 행함을 실천하게 된다.

열 두번째 교제시간은 이미 나눔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토대로 그 분위기를 이어가며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시간은 시사나 정치, 대중매체를 통해 보았던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셀의 비전과 각개인의 전도 내용과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열세 번째 헤어질 때 다음 만남을 약속하라. 다음 만날 장소와 시간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다음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장소를 공지하며 실천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셀 원들 안에 역할을 기억하게 해서 준비하게 한다. 시간 지키기, 차량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차가 가능한 장소, 새로운 셀 원 소개와 기도 제목 등 다음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5. 유기적 소그룹 만들기 (이상적인 청년공동체 만들기)

교회의 정의는 중요하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소그룹 모임도 이 철학이 중요하다. 셀에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라고 말한다.¹¹⁹ 당일교회 청년부는 주일 모임 및 나눔 소그룹을 6 개의 소그룹과 사역팀 소그룹으로 나누었다.

소그룹 나눔 시에 출석 율과 지역, 학교, 직장, 또래, 인도자, 새 가족, 신입생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사역팀 소그룹은 주일예배를 섬길 수 있는 팀과 사역팀, 봉사팀, 찬양팀, 임원진, 제자 양육 운영팀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다. 소그룹의 형태를 다양하게 가져가게 된 이유는 청년들이 작은 부분이라도 예배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일에 와서 청년부 예배와 사역과 섬김에 다양한 모습들로 참여하고 섬김의 시간을 가진다. 작은 모임이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프로그램을 움직여가고 주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청년으로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삶 속에 가지게 되었던 은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마음들, 찬양팀에 참여하고자 노력했던 마음들로 함께 예배하고, 주일 나눔 소그룹 공동체에서 그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함께 나눈다.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에만 참여하는

119) 송창근, 「셀 경험 과정」 (서울: 큰숲출판사, 2005), 38.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동기 부여가 되게 한다.

청년 나눔 소그룹이 핵심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여기에는 10명 안쪽의 인원을 편성한다. 사역팀 소그룹은 필요에 따라 2-3명에서 10명 사이에 인원들이 자유롭게 참석하고 움직여지게 된다.

나눔 소그룹에는 꼭 새가족 소그룹과 신입생 소그룹을 2개의 소그룹 리더와 부 리더를 편성하고 청년부에 적응하고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가족 교육을 하며, 교역자와 미팅 시간을 가지게 한다. 여기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기존의 소그룹으로 다시 편성하게 된다.

청년부 소그룹 공동체는 셀의 개념을 도입해서 자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운영방침에 활동성과 생명력을 더 부여했다. 그래서 청년리더들이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한다. 그리고 셀의 생명력과 배가성과 운영지침을 따라서 소그룹을 움직여 간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청년예배를 섬기는 소그룹 사역팀에 참여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그룹 사역의 두 트랙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단지 프로그램과 사역을 위해 만나는 구조가 아닌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한다. 사역팀 소그룹은 주일 사역팀과 수시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나눔 소그룹은 주일 말씀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나누며 주중에는 큐티 나눔을 함께 하는 소그룹이 된다. 그리고 주일 설교도 큐티 교재와 GQS 본문을 활용하여 함께 나가고 있다. 주중에 큐티를 하고 은혜 받은 본문을 주일날 함께 나누고 미리 예습과 복습을 함께 하며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나눔 소그룹에서는 큐티 나눔과 함께 주중의 삶을 나누고, 큐티 공동체로 만남과 SNS의 나눔을 함께 해간다. 각 소그룹마다 큐티 나눔 단톡방이 있고, 매일 큐티 나눔을 리더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 SNS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유동적으로 청년부 소식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심방을 하고 새로운 청년을 초대하고 전도가 일어난다.

또 다른 소그룹인 사역팀 소그룹에는 주일 사역에 초점이 맞춰 있는 봉사팀은 주일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청년부가 주도하여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분기에 한번씩

노방전도를 실시하며 주일마다 교회 주변의 환경미화를 하며 교회 주변의 전도와 섬김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나눔 소그룹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선교팀은 한 해 4개의 기관과 선교단체를 섭외하여 매달 마지막 주에 ‘러브 브릿지’ 시간을 가지는데 선교와 전도의 초점을 둔 예배를 실시한다. 비전헌금을 실시하여 후원 및 선교 헌금과 선교 기도를 함께 하는 사업을 주관한다.

선교팀에서 매년 후원하는 단체는 처음에는 노숙자 지원센터와 대학교 선교동아리, 해외선교 후원, 기독교환경연대를 후원한다. 매달 마지막 주에 ‘러브 브릿지’ 시간에 한 후원 단체를 초청해서 초청예배와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고, 비전헌금 시간을 통해 나오는 헌금을 선교헌금과 후원금으로 전달한다. 다음해에는 해외 아웃 리치를 준비 기획하면서 기아대책과 함께 해외 아동 결연을 하고 북한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역을 함께 진행했다. 모두다 교회와 연계되어지고, 청년 자체로 후원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기도하면서 기획한다. 해외 비전 트립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아대책 해외 아동 결연팀과 결연하여 베트남에 A 지역을 매년 여름마다 찾아가 선교와 교육과 봉사과 나눔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비전 트립팀이 구성되어지면,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단기선교 교육과 사역 교육과 섬김 내용 준비 기간을 가지고 준비 내용에 따라 팀 구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선교 후원금을 모집하는 행사인 교회 내 바자회, 일일 찻집 등을 기획하고 준비한다. 그리고 기아대책의 기관을 통해 해외 사역 안전교육을 받게 되고,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에 대한 생각과 사역과 마인드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교회와 함께 후원하고 선교하는 곳이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선교지 탐방을 하는 청년들을 통해 사진과 후원 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 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곳이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님 세대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곳에 자녀세대가 가서 단기선교를 하게 되는 뜻 깊은 선교사역을 경험하게 된다. 이 단기 선교팀은 8월 선교 보고 9월 ‘러브 브릿지’인 선교 다짐 예배를 마지막으로 해산하고 다음해 비전 트립팀으로 만나게 된다.

예배팀 주일 예배 준비와 찬양팀, 방송팀과 웰컴팀(안내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오픈 해 놓았다. 새 가족 교육과 신입생 교육을 끝난 어떤 청년이라도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된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나눔 공동체 순서대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놓았다. 그리고 예배팀의 임원들은 예배 전체를 디자인하고 큐시트를 준비하며 기획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력과 기획 예배에 따라 예배당과 청년부실을 기획하고 준비를 한다. 절기예배, 찬양예배, 찬양팀 초청예배, 문화예배, 찬양팀 초청 예배, 찬양집회, 영상예배, 너튜브 예배 라디오 예배, 청중과 함께 SNS 로 소통하는 예배 등 다양한 예배를 기획하고 꼭 빠지지 않고 전반기와 후반기에 봉사팀과 함께 전도예배와 초청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매달 3 주에는 예배 후 전체 청년들과 모든 소그룹이 참여하는 전체 모임 시간을 기획하여 모임과 나눔의 시간을 가진다.

우리 소그룹만 아니라 다른 소그룹도 알 수 있도록 2 개의 소그룹씩 연합하기도 하고, 전체 소그룹이 모여 기획된 행사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년들이 새로운 이들과 함께 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팀은 새 가족 양육과 새 가족 소그룹을 운영하고 새가족 양육이 끝나면 기존의 소그룹으로 안내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일대일 제자양육 교제와 일대일 매칭을 하며 입학식과 수료식을 진행한다. 그리고 일년에 두 번 리더 수련회와 리트릿을 기획하고, 리더 교육 오픈 시 많은 청년들을 권면하여 참석할 수 있게 한다. 훈련된 청년들과 임원 리더 그룹이 여기에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성경공부와 바이블 스타디(새 가족반, 사역자반, 헌신자반)가 열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교육을 받고 있다.

임원팀 전원은 리더교육을 전반기에 받게 된다. 2 주에 1 번 실시하여 1-2 월을 함께 교육하게 되고 2 월 중으로 임원 및 리더 수련회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임원들은 예배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기획하고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청년부 모은 사역팀 소그룹에 리더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사역을 이끌게 된다. 교역자와 매우 긴밀하게 교제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목회철학을 나누고 이들이 보냄 받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교역자는 가장 중요한 리더들로 세우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임원팀을 통해 요청되어지는 프로그램들과 계획들을 의논 나누고 실시한다. 임원팀을 통해 작년에는 결혼예비학교와 큐티교육, 수련회 준비, 찬양집회, 선교지 답사와 선교지 탐방, 선교사 모역 탐방, 운동회 등이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하길 원하는지 소통의 창구가 되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한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스포츠팀, 미디어팀, 문화기획팀, 캠퍼스 사역팀 등이 조금 더 생겨나서 세밀하게 운영 되어지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 질 것이다. 청년들이 많아질 수록 원하는 부분은 더 다양해지지만, 이 모든 점들이 하나의 목표와 핵심철학과 소그룹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소그룹 활동 내용

1) 복음의 중요성 - 말씀 중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어질 때에 삶에 공허함이 없고, 신앙의 갭이 사라진다. 이를 청년들의 삶 속에 심어주고 삶의 내면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청년 소그룹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큐티를 생활화하고 큐티나눔을 주중에 삶의 자리에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고 그 내용을 만들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큐티 나눔은 카페, 학교, 직장, 교회 주변, 친한 친구들과 또래모임으로, 다양한 소그룹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소그룹 나눔 공동체는 의무적으로 SNS 를 통해 매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으며, 주중에 한번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리더들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와 리더들에게는 이 모임 뿐 아니라 청년들을 일대일로 심방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심방비도 지급하고 있다.

나눔 소그룹의 활동과 사역을 통해 청년들 개개인의 경조사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말씀 나눔

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관계성이 형성되게 한다. 매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내용들도 SNS 를 통해 제공된다. 큐티모임 공동체는 매주 성경읽기와 통독도 함께 하고, 큐티나눔, 예배공동체에서 받았던 은혜도 나누고 오늘 하루 가장 힘이 되었던 말씀과 도서도 나누면서 신앙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간다. 큐티나눔 소그룹은 의무조항으로 묶여있지만, 그들의 삶과 말씀의 나눔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청년들이 경험하게 된다. 일상의 예배자, 보냄 받은 청년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청년부의 비전과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 이 땅에 보냄 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통해서 관계 전도가 일어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을 통해 섬김과 사역에 대한 헌신이 일어난다. 믿음 공동체로 세울 때 핵심 사항은 큐티 공동체, 말씀 묵상 공동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역자가 큐티를 지도하며 큐티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큐티학교 시간을 통해 연 2 회 큐티교육을 실시하고 이 시기에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큐티와 말씀 묵상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진행하는 모임이 필요하다. 청년부는 교역자부터 모든 청년들이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로 큐티를 하고 있기에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만들 수 있다. 토요 모임, 금요 기도회 후 큐티나눔 모임을 비롯해서 SNS 의 큐티모임과 리더 큐티모임, 나눔 큐티모임 등 다양한 큐티모임을 통해 개인적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2) 말씀의 생활화 - 큐티나눔

큐티는 교회와 상황과 교재마다 다 다르다. 큐티에 대한 말씀 묵상에 대한 정의와 내용도 많이 나와 있다. 큐티를 통해 좀 더 깊은 세계의 묵상도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청년들이 실시하고 있는 형태와 실체를 소개한다.

1 단계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다.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고 되도록이면 아침 혹은 이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소는 조용하고 정리된 곳이 좋으며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해 진행하는 곳이 좋다. 이 장소 이 시간 하면 큐티가 떠오르게 하는 곳이 필요하다.

2 단계는 준비기도와 찬양의 시간이다. 큐티를 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양을 한다.

3 단계는 본문 읽기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본문읽기는 2-3 회 정도 천천히 되새기며 읽어야 한다.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거나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들이 있다면 밑줄을 긋거나 표시해 둔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묵상해 간다. 묵상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한다.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주님과 대화내용과 묵상을 통해 감동된 부분들을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다.

4 단계 적용과 기도를 한다.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나의 잘못, 격려, 용기, 회개 다양한 적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실천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기도드린다.

5 단계 큐티나눔의 단계이다. 큐티나눔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하고자 하는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친구, 가족, 지체들에게 나누게 되는 특히 소그룹을 통해 나눌 수록 은혜가 더하게 된다. 소그룹 만남을 통해서도 좋고, SNS 를 통해서도 나누게 되면, 선한 영향력이 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복음 전하기

소그룹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모임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전도와 복음적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관계전도를 통해 소그룹에 새로운 청년들이 소개되고 전도되고 인도되어지면서, 기도와 말씀의 나눔과 삶의 나눔과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간증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전도는 첫 번째로 공동체 중심의 복음전도가 되어야 한다. 신앙인들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대일 관계에서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 복음 전도는 일대일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된다. 소그룹과 모든 셀이 함께 불신자와 예배신자에게 다가간다. 그리스도의 임재 하심과 사랑을 가지고 소그룹이 불신자를 에워 싸는 것이다. 이 일들을 통해 불신자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소그룹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개인적인 전도도 필요하다. 하지만 공동체 복음 전도는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다. 소그룹이 불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개인이 아니라 함께 다가가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이 형성된다. 공동체의 전도에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스포츠 팀이나 또래모임들을 통해 문화 속에서 훨씬 전도가 잘 된다. 축구팀을 통해 전도되어져 오는 남자 청년과 이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도 함께 전도되어져 온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있는 문화공간과 짜여진 시간을 통해 교제와 전도가 쉽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오이코스 전’도를 적용한 복음 전도이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과 그 안에 거주하는 가족을 뜻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다. 오이코스 전도에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진 가족, 고용인 방문객은 물론 친척, 친구, 이웃, 동료, 클럽멤버까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사도행전 16 장 31 절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면 그 자신의 전 가족이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가족의 의미가 더 넓어진다. 오이코스에서는 우리의 삶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칭한다. 그래서 배우자, 가족, 자녀, 형제 친척, 이웃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소그룹의 참여한 모든

청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활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봉사 중심의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다. 훈련과 함께 참여하는 시간들을 통해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예수와 이웃과 타인을 향하는 삶이 되며 지역 주민과 불신자들과 좋은 접착점이 된다. 봉사 중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빠르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도 없던 이들에게 섬김과 봉사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과 교회 주변과 삶에 자리에서 봉사와 함께 전도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청년시기에 전도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관계전도를 하게 할 것인가? 전도도 복음적 삶을 살게 한다. 전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동체 중심의 관계 전도를 통해 접착 점을 찾고 불신자들을 만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전도도 배우고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기도하는 소그룹 관계중심의 전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선교적 리더십 개발하기 (선교적 삶 살기 - 부름 받다와 보냄 받다)

모든 소그룹 리더 교육은 신앙적 리더십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리더 교육으로 진행된다. 소그룹 인도법과 양육과정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재교육하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다. 리더들이 지지받지 못하고,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돌봄과 관심과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리더들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주들이 되게 하고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선교적 리더십을 가지게 하는 요소는 청년들을 복음적 삶을 살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결과이다. 소그룹을 통해 나누어지고 세워지는 삶을 통해 보냄 받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보내 받은 삶을 살게 하려면, 청년 공동체를 통해 세움 받음을 확인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 이 과정을 양육과 교육과 리더 교육과 복음적 삶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청년리더도 활동하면서, 섬김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 질문하면 선배나 리더 혹은 멘토에게 조언을 얻거나 도움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절반이상이 된다. 청년들은 같은 리더의 역할을 했던 선배나 동료들에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는 친밀감과 공감대가 크기에 어려움을 편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신앙적 수준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가진다. 그렇기에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점하게 해 주는 기준과 멘토들이 필요하다. 교역자나 부모세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은 현실상 매우 적다. 신앙의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기에 오히려 신앙서적이거나 리더십 관련 서적을 통해 도움을 받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 삶의 성장하고 방향을 잡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다시금 기준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청년의 때에 아직 인생이나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취적인 관점에서 이루고자 하는 방향과 청년리더와 소그룹 리더와 소그룹의 삶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보람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년의 때에 가질 수 있는 건전한 신앙인의 자아상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리더로서 성취감을 느끼고 복음이 전해지고,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섬기는 일에 대한 가치와 영광을 깨닫고 리더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크리스천 리더로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속에 명확한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1) 부름 받다

이것을 위해 구체적인 선교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부르심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분명한 회심의 체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그 청년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의 정체성의 확신이 없으면 소그룹과 청년의 리더로 세움 받을 수 없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분명한 신분의 이동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들이 선교적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예배의 활성화와 생동감 넘치는 예배 그리고 어느 누구나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소그룹과 활동들이 오픈 되어져 있어야 한다. 장년세대와는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한다. 열정적인 찬양과 참여적인 기도, 다양한 문화 사역과 젊은이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 청년들 눈높이에 맞게 기획된 예배가 있어야 하고 예배가 크고 작던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참여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영접기도와 통성기도와 참회의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구원의 문제를 재확인하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기초 위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이 회심의 단계를 통해 구주와 함께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세상 속에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메시지와 교육과 양육과 리더십 훈련과 소그룹 활동들이 이어져야 한다. 특별히 새 가족 양육 속에 꼭 구원의 확신과 간증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제자양육과 리더훈련에도 이 내용은 반복 교육되어져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소그룹과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한다.

(2) 보냄 받다.

청년 리더와 크리스천으로 세움 받고 부름 받음을 확인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신안 인에게 있어 세상으로 보냄 받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교회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분명한 선교적 사명이 있다. 세상 속에 보냄 받은 교회로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은 삶 속에 자신의 비전 선언문을 만들게 한다. 비전선언문 혹은 사명선언문은 자신이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해야 할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핵심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담아 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마다 크리스천(Christian)이라는 말의 의미를 재 확인한다. 크리스천이란 ‘크라이스트’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사람이다. 정확하게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 우리의 보냄 받은 삶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비전 선언문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 선교적 삶에 참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부르심에 확신을 가진 청년 리더로 살아가게 한다.

이 선교적 삶이 체계적 선교 훈련을 통해 보냄 받은 삶을 확인하고 선교사 훈련과 단기선교, 비전 트립 교육을 통해 선교의 현장에 파송된다. 단기선교와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년이상 단기 선교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하고 6개월 이하 비전 트립 선교팀에 방학과 휴가 때마다 참여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단기선교사 훈련을 통해 다시 보냄 받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선교를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함으로 나의 삶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캠퍼스 선교사로 직장 신우회 선교사로 세워지는 헌신하는 청년들도 생겨나게 된다.

7. 소그룹 활동으로 건강해지는 교회

청년양육과 소그룹 활동과 리더훈련은 청년사역 활성화의 언제나 희망이 되어 왔다. 한국교회가 외향적, 대형화 세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되는 사역의 대안과 도전은 바로 청년들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 작은 모임을 통해 새로워지고 복음적 삶을 살아 내는 것에 있다. 청년들이 살아나게 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청년들은 장년부와 교육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들이 10년 내에 교회의 핵심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성장은 교회의 출석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소그룹 사역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1) 젊어 지는 교회

청년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살아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그룹 활동은 처음에는 관계형성으로 인해 시작될 수 있지만, 복음적 삶의 지향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양육과 교육, 제자양육, 리더십 훈련 선교훈련, 큐티하기, 큐티 나누기, 소그룹 활동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인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과거의 상처와 모습들이 신앙의 양육 통해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장년세대의 모습과는 달리 전통에만 갇혀 있던 신앙과 달리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말씀을 가까이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소그룹 공동체의 목적이기도 하다.

청년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이 소그룹 공동체의 핵심이다.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 세상 속으로 보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신앙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게 한다. 다른 때 보다 방황하기 쉬운 청년의 때에 자신을 계발하는 중요한 시로 신앙의 성장이 있는 시기로 살게 한다.

이러한 모습들로 청년이 변하면 교회가 새로워진다. 청년이 변화면 교회가 변화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어나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유기적인 공동체가 더 커져 감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교회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는 말을 하는 이 시기에 청년이 살아나고 활동하고 신앙인들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다. 청년목회를 하지 않으며 다음세대와의 연결고리가 살아지게 될 것이고, 사회문제인 심각한 고령화 사회 현상을 교회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마다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합적인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히 10:24-25).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런 지속적인 모임을 소그룹 공동체가 이루어 갈 수 있다. 주일 뿐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세워가고 예배모임을 만들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주일과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된다. 예배를 사모하는 일상의 예배자들이 모인 주일예배를 생각해 보라. 예배의 전적인 분위기와 사모함이 다르다. 청년들의 예배시간이 달라지고 목회자의 메시지도 바뀌게 된다. 청년들이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리면 주일예배가 달라진다.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미리 나와 섬기는 이들이 생겨나며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과 시간이 생겨난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멍뚱 멍뚱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으로 봉사자로 스텝으로 방송실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소그룹을 통해 장기결석자들이, 연락이 끊겼던 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배에 반응을 뜨겁게 하는 청년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와 그렇지 않는 청년예배의 메시지는 다르게 되어 있다. 성도의 비율이 50-60 대 이상이 전부인 예배에 선포되는 메시지와 20-30 대가 더 많은 예배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기존의 형식과 예배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예배에 많아지면, 청년예배에 사모함이 높아지면 목회자와 메시지도 더 다른 모습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시너지효과가 생겨나게 된다.

청년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일상의 예배자들이 생겨나게 되면 예배는 생동감 있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소그룹을 통해 말씀묵상과 전도와 복음적 삶과 큐티와 어떤 관계와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사랑과 헌신과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한 요소를 통해 청년이 살아나고 변화된다면, 예배의 현장도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될 것이다.

8. 소결론

효과적인 청년 목회를 위해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많은 잠재력을 어떤 모습으로 꽃 피우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때 교회가 청년들을 소그룹을 통해 일상의 예배자들로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세울 수 있다면 청년 각개인의 변화와 성장이 청년부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양육하고, 지원하고, 리더와 지원자들로 세워 갈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의 삶을 신앙인의 삶으로 자들로, 세워갈 수 있는 전문사역자들이 지역 중소형 교회에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삶에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청년의 왕성한 활동력은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닫는 모임들이 장소와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예배 공동체의 모습은 삶의 자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청년들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장년공동체에도 영향을 주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된다. 교회 내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청소년들은 신앙의 모델을 세우게 되고 멘토를 만나게 된다. 청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교육부에는 또 다른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그 영향은 장년세대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생동감이 넘치고 주일 출석하는 예배자들은 증가하게 되고 교회는 더 젊어 지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침체와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 소그룹 사역이 필요하고 핵심가치가 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청년부와 대학부의 침체와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청년의 시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부의 활성화와 신앙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소그룹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특히 청년 전문 사역자를 통해 대형교회 청년부 소그룹 활성화 핵심원리가 지역 중소형 교회에도 적용되어지고 실재가 될 수 있는 소그룹 사역이 되어 청년부 활성화 대안과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 3-4 장에 소그룹 모델이 되는 교회들의 사례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소그룹은 유기적 공동체로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그룹에 참여한 이들의 신앙성장이 소그룹 만족과 활성화로 이들은 청년부와 교회의 헌신과 섬김과 활성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분석내용을 보면, 리더교육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교육 만족도 ‘좋다’가 83%일때, 신앙성장에 도움이 된다 ‘좋다’ 응답은 76%였다. 보통까지 포함하면 94.3%이다. 소그룹 리더교육이 각 개인의 신앙상장과 봉사와 헌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그룹 만족도가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83%이상 ‘좋다’고 응답했다, 즉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들의 성장과 변화는 개인성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리더교육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중소형 교회의 설문 조사에서도, 소그룹 만족도가 교회 헌신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소그룹 만족도 ‘좋다’86.7%일때, 헌신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70%이상이다. 소그룹 만족도에 긍정적인 이들이 교회 내 헌신과 섬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그룹의 만족도는 개인의 신앙성장과 함께 소그룹활성화와 교회 헌신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소그룹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교회 소그룹은 셀과 소그룹, 제자양육, 리더십, 비전, 유기적 공동체 등의 다양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소그룹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청년부들은 프로그램과 운영 매뉴얼로 접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있었다. 교회 본질에 대한 고민이 다시금 청년들에게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도 교회로 살아가게 할 것인지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

연구자도 5 장에서 지역 중소형교회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청년부의 활성화와 부흥이 일시적이거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내용들을 연구하였다. 대형교회 소그룹 청년부 사역을 지역 중소형 교회 청년부에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많다. 이 부분을 청년 전문사역자를 통해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소그룹을 세워간다면, 지역 중소형 교회에도 적용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소그룹 핵심원리를 통해 청년 각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변화가 청년부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 영향력은 청년부를 자연적인 성장을 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지역 중소형 교회의 연구가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지역적, 교단적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한국 교회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두번째로 소그룹 활성화와 전문사역자를 통한 청년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대그룹과 소그룹 활동의 연관성과 대그룹 전체를 운영해가는 장기적 소그룹 사역 내용은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본 확대 연구를 통해, 지역 중소형 교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유기적 신앙 공동체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참 된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게 될 것이며 소그룹은 청년부 성장의 대안이 될 것이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동의서 (한글)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에 관한 연구(당일교회를 중심으로)

박종길

리버티대학교, 신학대학원

귀하를 연구자의 연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당일교회 청년부 교인으로서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초대되었습니다. 청년부 예배와 소그룹 및 순모임에 참여하는 자로써, 소그룹 모임이 청년부 활성화 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알고 수정 보완 및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본 동의 문서를 잘 읽으시고 문의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해 주세요.

리버티대학의 신학대학원에 소속된 박사과정 중에 있는 박종길은 본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경설명: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회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 중에서 소그룹 모임이 청년부 활성화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과 젊은이들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데, 소그룹 사역과 리더 양육과 성장을 통해 성경적으로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연구진행과정: 만일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다음의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시간의 시간과 무기명 설문 조사를 당신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간략한 개요 이해와 이해된 질문 문항에 당신의 의견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요소: 본 연구를 통해 발생될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발생할 위험요소는 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문참여자가 매일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요소와 같은 정도입니다.

혜택: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직접적인 혜택들은 없을 것입니다.

보상: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비밀유지: 본 연구의 기록들은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제가 게시할 수 있는 보고서의 어떤 종류에서, 저는 그것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기록들은 안전하게 저장되며, 단지 연구자만 기록들에 접근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의 어떠한 형태의 출판으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가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료들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컴퓨터에 보관될 것이며 향후 연구발표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자료들은 삼 년 후에 삭제될 것입니다. 설문참여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그룹 밖의 사람들과 그룹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해의 충돌 고지(告知): 해당사항 없음

자발성에 입각한 연구: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의 가부가 귀하의 현재와 미래의 리버티 대학교, 당일교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 뒤에도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참여중단이 위의 관계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를 중단하는 방법: 귀하가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실 경우 귀하의 설문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연구자에게 연구 참여를 중단할 의사를 밝히세요. 귀하의 응답들은 기록되거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 연락처, 질문: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박종길(Jong-Kil Park)입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체 말고 82-10-2243-937 / bassprise@daum.net 으로 연락하십시오. 본 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정교수: 82-01-2031-2985 yjlee@liberty.edu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나 염려가 있고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경우 지체없이 International Review Board 로 연락을 하십시오: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B**부록 B**

설문동의서(영문)
CONSENT FORM

A STUDY ON THE SMALL GROUPS FOR THE VITALIZATION OF YOUNG ADULT:
WITH A FOCUS ON DANG-IL CHURCH

JONGKIL PARK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You are invited to be in a research study ON THE SMALL GROUPS FOR THE VITALIZATION OF YOUNG ADULT: WITH A FOCUS ON DANG-IL CHURCH. You were selected as a possible participant because you are a young adult church member who is attending small groups and is able to aid in planning to adjust, supplement, and vitalize small groups. Please read this form and ask any questions you may have before agreeing to be in the study.

JONGKIL PARK, a doctoral candidate in the School of Divinity at Liberty University, is conducting this study.

Background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for vitalizing young adult groups in Korean churches. Among this study, it has its specific purpose on studying how the small groups influence the vitalization and growth of young adult groups. The numbers of young adult church members in Korea are rapidly decreasing. Thus the researcher aims to help the young adult group grow biblically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and leadership training.

Procedures: If you agree to be in this study, I would ask you to do the following things:

Complete and answer 1 hour long unscripted Survey questions. Check the answer according to your opinion regarding your understanding of the brief summary and questions.

Risks: The risks involved in this study are minimal, which means they are equal to the risks you would encounter in everyday life.

Benefits: Participants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direct benefit from taking part in this study as

following

Compensation: Participants will not be compensated fo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Confidentiality: The records of this study will be kept private. In any sort of report I might publish, I will not include any information that will make it possible to identify a subject. Research records will be stored securely, and only the researcher will have access to the records. Participants will be assigned a pseudonym. Data will be stored on a password locked computer and may be used in future presentations. After three years, all electronic records will be deleted. I cannot assure participants that other members of the focus group will not share what was discussed with persons outside of the group.

Voluntary Nature of the Stud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voluntary. Your decision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will not affect your current or future relations with Liberty University or Dangil church. If you decide to participate, you are free to not answer any question or withdraw at any time prior to submitting the survey without affecting those relationships.

How to Withdraw from the Study: If you choose to withdraw from the study, please inform the researcher that you wish to discontinue your participation prior to submitting your study materials. Your responses will not be recorded or included in the study.

Contacts and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ing this study is JONGKIL PARK. You may ask any questions you have now. If you have questions lat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him at 82-10-2243-937 / bassprise@daum.net. You may also contact the researcher's faculty chair, Yoojung Lee, at 82-01-2031-2985/ yjlee@liberty.edu.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this study and would like to talk to someone other than the research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C

부록 C

설문서 (한글)

청년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에 대한 질문 (해당 문항에 체크(✓) 해 주세요.)

(개인적인 질문)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① 20-25 세 ② 26-30 세 ③ 30-35 세 ④ 35 세 이상

3. 현재 청년부 예배 출석 여부는 어떻습니까?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 않다.

4. 당신은 모태 신앙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당신이 교회에 출석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3 년 ② 4-9 년 ③ 10-14 년 ④ 15 년 이상

6. 당신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청년부 리더 교육 관련 질문)

7. 당신은 청년부 리더 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리더들을 위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9. 당신이 참여해서 양육 받은 리더 교육에 대해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다

10. 리더 교육과 양육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 권유 ②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③ 시간이 괜찮아서 ④ 궁금한 점이 있어서

11. 리더 교육의 결과, 당신의 교회 봉사 및 헌신 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그대로다 ④ 좋지 않다.

12. 리더 교육을 통해 신앙 성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13. 리더 교육 이후 소그룹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졌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14. 리더 교육을 통해 성장하게 된 모습은 무엇이 있나요?

- ① 말씀 읽기 ② 큐티 생활 ③ 전도 ④ 봉사 ⑤ 예배

15. 청년 리더 교육 시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성경 교육 ② 리더십 ③ 소그룹에 대한 이해 ④ 섬김 ⑤ 예배

(소그룹 사역에 관한 일반적 조사)

16. 교회 청년부 소그룹(순) 모임에 대해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다

17.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18. 당신의 소그룹 참여도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19.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교회내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20. 우리 소그룹의 나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주일 말씀 ② 큐티 나눔 ③ 개인적 삶 나눔 ④ 비전 나눔

21. 교회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없어서 ② 흥미가 없어서 ③ 어울리는 것이 싫어서 ④ 개인적 감정 문제
⑤ 기타_____

(소그룹 활성화와 교회 성장에 대한 조사)

22. 소그룹에 참여는 것이 한 주에 몇 번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까?

- ① 1 회 ② 2 회 ③ 3 회 ④ 많을수록 좋다

23. 소그룹(순) 모임에 참여한 이후 당신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말씀 읽기 ② 큐티 생활 ③ 전도 ④ 봉사

24. 당신이 볼 때 소그룹 활동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25. 소그룹 회원들의 교회 내 섬김 헌신 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다.

26. 소그룹 회원들의 전도 사역 및 선교 사역 참여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다.

27. 교회 내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목회 방향 ② 말씀 ③ 기도 ④ 재정적 지원 ⑤ 리더 교육

28. 소그룹 리더 모임을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 ① 주 1 회 ② 월 2 회 ③ 정기적 교육 시 ④ 필요시

(소그룹 양육교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

29. 현재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필요한 양육 교재는 어떤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리더 용 교재 ② 큐티 교재 ③ 성경 공부 용 교재 ④ 주일설교 나눔

APPENDIX D**부록 D**

Survey Questions

This survey is designed for a dissertation titled “A STUDY ON THE SMALL GROUPS FOR THE VITALIZATION OF YOUNG ADULT: WITH A FOCUS ON DANG-IL CHURCH.” It does not have its purpose on collecting other data. The contents and answers will not be used for other uses. Please refer to the explanation of the investigator and answer the questions. Thank you.

(Personal Questions)

1. Gender

- ① Male ② Female

2. Age Group

- ① 20-25 ② 26-30 ③ 30-35 ④ Over 35

3. Are you currently attending Young Adult worship services?

- ① Yes ② No

4. Were you born a Christian?

- ① Yes ② No

5. How long have been attending church?

- ① 1-3 years ② 4-9 years ③ 10-14 years ④ Over 15 years

6. Are you attending small group gatherings?

- ① Yes ② No

(Survey on Training Young Adult Leaders)

7. Have you experienced Young Adult Leadership Training?

- ① Yes ② No

8. Do you think there is a need for intensive leadership training?

- ① Yes ② No

9.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leadership training that you participated in?

- ① Very Satisfied ② Satisfied ③ Moderate Scale ④ Not Satisfied

10. What was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leadership training?

- ① Recommendation from others ② To grow in faith
③ I had time to spare ④ I had much curiosity.

11. How much are you participating in service to church and in dedication after leadership training?

- ① Very much ② much ③ Same as before ④ Not much

12. Do you think that you can grow in faith through leadership training?

- ① Definitely Yes ② Yes ③ Moderate Scale ④ Not at all

13. Has your interest in small groups increased since the leadership training?

- ① Definitely Yes ② Yes ③ Moderate Scale ④ Not at all

14. In what aspects have you grown through the leadership training?

- ① Reading the Bible ② Having Quiet Time ③ Evangelism
④ Service ⑤ Worship

15. What do you think is more necessary in leadership training?

- ① Discipline in growing ② Leadership ③ Understandings about small groups
④ Service ⑤ Worship

(General Survey on Small Group Ministry)

16.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small groups within church's Young Adult group?

- ① Very Satisfied ② Satisfied ③ Moderate Scale ④ Not Satisfied

17. Are you attending young adult small groups frequently?

- ① Definitely Yes ② Yes ③ Moderate Scale ④ Not at all

18. Do you think the participation of your small group is active?

- ① Definitely Yes ② Yes ③ Moderate Scale ④ Not at all

19. Do you think vitalization of small groups in the church is needed for church growth?

- ① Definitely Yes ② Yes ③ Moderate Scale ④ Not at all

20. What are the main contents shared in your small group?

- ① Sermons on Sundays ② Sharing Quiet Time that each had
③ Sharing personal lives ④ Sharing Vision

21. What is the reason you can't participate actively in small group gatherings in church?

- ① No time to spare ② Not interested ③ Don't like to be mingled
④ Personal emotional issues ⑤ Others _____

(Survey on Vitalizing Small Groups and Church Growth)

22. How often per week is appropriate regarding participating in small group gatherings?

- ① Once ② Twice ③ Three times ④ More the better

23. In which parts were there changes in your faith after participating in small groups?

- ① Reading the Bible ② Quiet time ③ Evangelism ④ Service

24. Do you think small group activities aid in growing in faith?

- ① Definitely Yes ② Yes ③ Moderate Scale ④ Not at all

25. How well are members of small groups serving the church?

- ① Very well ② Well ③ Moderate Scale ④ Not well

26. How well are small group members participating in Evangelism and Mission ministries?

- ① Very well ② Well ③ Moderate Scale ④ Not well

27. What do you think is needed for small groups in the church to be vitalized?

- ① Direction of Ministry ② The Word of God ③ Prayer
④ Financial Support ⑤ Leadership Training

28. How often should there be small group gatherings?

- ① Once per week ② Twice per month
③ When there is regular training ④ When necessary

(Survey on Small Group Training Textbooks and Plan for Vitalization)

29. What kind of textbooks do you think are beneficial to current young adult small groups?

- ① Textbooks for leaders ② Textbooks for Quiet Time
③ Textbooks for Bible study ④ Materials for sharing Sunday sermons

Thank you for answering the survey questions.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 강주태. 「청년 심리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8.
- 강태훈 외. 「교육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이당, 1998.
-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고직한. 「청년 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서울: 홍성사, 2003.
- 공성식. 「청년 사역자 핸드폰」. 서울: 홍성사, 2003.
- 권성수 외 2인. 「3인 3색 교회성장 진단과 전망」. 서울: 처음, 2004.
- 권영석 외 12인. 「청년 사역자 핸드북」. 서울: 홍성사, 2002.
-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멘토, 2002.
- 김덕수. 「셀 교회 전환관 셀 리더 세우기」. 서울: NCD, 2002.
- 김명룡.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2.
- .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1.
- 김영순. 윤진 공저.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 김원태. 「청년아 영적 부흥을 꿈꾸라」. 서울: 두란노, 2002.
- 김정옥. 「청년 대학부 20·20 비전으로 재건하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 김준곤 외. 「청년 그 희망의 이름」. 서울: 순 출판사, 2004.
- 김찬중. 「구역운영 지침서」. 서울: 솔로몬, 1997.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9.
- 나병술. 「청년 심리학」. 서울: 예일출판사, 1973.

- 네비게이토 선교회. 「성경공부 인도법」. 서울: 네비게이토, 1994.
- 라준석. 「온누리교회 청년부 비전과 사역」. 서울: 두란노, 2000.
-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무학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 「무학교회 60 년사」. 서울: 무학교회, 2009.
- 박상진. 「교회교육 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8.
-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2004.
-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8.
- 박진석 외 무학교회 청년 사역팀. 「청년사역에 미래를 걸라」.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9.
- 박희성. 「청년회 운영과 실제」. 안산: 성광문화사, 1982.
- 손석태. 「두란노 HOW 주석 시리즈 1」.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2.
-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IVP, 2002.
- 송창근 외 13 인. 「성장하는 14 교회 청년대학부 부흥 전략」.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3.
-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 오형국 외 13 인. 「성장하는 14 교회 청년대학부 부흥 전략」. 서울: 기독교 신문사, 1999.
- 육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옥스퍼드 원서성경대전. 「고린도전서」. 서울: 제자원, 2006.
- 유성준.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서울: KMC, 2010.
-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이동원.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 서울: 두란노, 2010.
- . 「지구촌교회의 목장이야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 가지 이유」.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 이성희, 「미래 목회 대예언」. 서울: 도서출판 규장, 1998.
- 이승장 외 7인. 「캠퍼스 부흥을 꿈꾼다」. 서울: 한국복음화협의회, 1999.
- 이흥정. 「제 99 회 총회 회의록」. 한국장로교출판사, 2015.
- 이평강. 「만점짜리 셀리더로 서기」. 서울: 두란노, 2012.
- 임석종.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 2007.
- 임중학. 「청년목자-청년사역 매뉴얼」. 서울: 한국기독교대학인회 출판사(ESP), 2014.
- 장로총회교육부. 「교육과정 이론지침서 1」. 서울: 한국장로교출사, 2001.
- 장병림. 「청년 심리학」. 서울: 법문사, 1969.
- 장휘숙. 「인간 발달」. 서울: 박영사, 2000.
- . 「청년 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8.
- 정숙희.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서울: 홍성사, 2007.
- 정인찬 편. 「성서 대백과」. 서울: 기독지혜사, 1981.
- 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그리심, 2008.
- 조복희 외.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2001.
-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사역 매뉴얼」. 서울: 두란노, 2014.
-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경기도: 소그룹하우스, 2010.
-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기독신문사, 2000.
- 총회교육부. 「21 세기와 청년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최대복. 「청년들이 몰려온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 최동규. 「미셔널 처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하용조.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 학원복음화협의회. 「청년 사역자 핸드북」. 서울: 홍성사, 1999.
- 한국대학생선교회.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법: 순모임은 이렇게 한다」. 서울: 순출판사, 1990.

- 홍명유. 「청년사역 맨 땅에 헤딩하라」. 서울: 기독 신문사, 2002.
- 홍정길 외 14 인. 「청년대학부를 살려라」.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 IVF 자료개발부 편역. 「소그룹 리더 핸드북」. 서울: IVP, 1997.
- Arthur, M. John. 「양무리 모임론」. 장의성 역. 서울: 두란노, 1990.
- Arnold, J. Heinrich. 「공동체 제자도」. 원충연 역. 서울: 홍성사, 2010.
- Bailey, Mark. 「당신의 삶을 세워주는 제자도의 7 가지 핵심」. 양승헌 역. 서울: 디모데, 1998.
- Banks, Robert.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도수 역. 서울: 여수론, 1998.
- Barna, George. 「21 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탁영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3.
- Berkhof, Louis. 「벌코프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101」.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 Roberts, Bob Jr. 「리얼 제자도」. 홍종락 역. 서울: 두란노, 2010.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김충호 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 . 「기독교강요 1」. 김종흡 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 . 「기독교강요 4(상)」.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8.
- Carson, A. D and France, T. R and Motyer, A. J and Wenham, J. G. 「IVP 성경주석」. 신현기 역.
서울: IVP, 2010.
- Cloud, Henry. and Townsend, John.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 가지」. 윤종석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 Cobble, F. James. 「교회성장과 조직의 역동성」. 명성훈 역. 서울: 나단출판사, 1995.
- Coleman, Lyman. 「소그룹성경공부를 위한 스펀디프터 훈련교제」. 조남수 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0.
- Comiskey, Jeol.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NCD 편집부 역. 서울: NCD, 2003.
- Donahue, Bill.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김주성 역. 서울: DMI, 2004.
- Donahue, Bill and Robinson, Russ.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테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Edwards, Jonathan. 「균형잡힌 부흥론」. 양낙홍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 Ericson, H. Erik. 「청년루터」. 최연선 역. 서울: 인간사, 1983.
- . 「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 1988.
- Fields, Doug. 「새들백교회 청소년 사역 이야기」. 최종훈 역. 서울: 디모테, 2002.
- Gareth, Weldon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 George, F. Carl.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박종훈, 정중현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Gibbs, Eddie. 「이머징 교회」. 김도훈 역. 서울: 콤파출판사, 2008.
- Groeschel, Craig. 「생명력 넘치는 교회」. 홍종락 역. 서울: 두란노, 2010.
- Hagner, A. Donald. 「WBC 성경주석 마태복음(하)」.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 Henry, T Blackaby. 「영적 리더십」.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서원, 2003.
- Jean Cadier.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Long, Jimmy. 「소그룹 리더 핸드북」. IVP 자료개발부 역. 서울: IVP, 1998.
- . 「새로운 청년 사역이 온다」. 신현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 Mallison, Joh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메뉴얼」. 신재구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2005.
- Maxwell, C. John. 「관계의 기술」. 활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키우라」. 임유태 역. 서울: 두란노, 1999.
- . 「성경에서 배우는 불변의 리더십」. 채천석 역. 서울: 청우, 2001.
- Mcbride, F. Neal.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토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1.
- . 「성공적인 소그룹 만들기」. 네비게이토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1.
- Muuss, E. Rolf. 「청소년 이론」. 송정두 역. 서울: 계명대학출판사, 1981.
- Neighbour, W. Ralph.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Nelson, C. Ellis. 「신앙교육의 터전」. 박원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Nicholas, Ron.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 Roberta, Hestenes. 「소그룹 성경공부」. 이종록 역. 서울: 두란노, 1991.

- Schwartz, A. Christian. 「지역적 교회성장」. 윤수인 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 「자연적교회성장 패러다임」. 임원주 역. 서울: NCD, 2000.
- Stanley, Andy.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서울: 디모테, 2006.
- Stetzer, Ed. and Dawson, Mike. 「다시 부흥한 324 교회 성장 리포트」. 김광석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12.
- Sweet, Leonard.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열래 역. 도서출판 좋은 씨앗, 2002.
- Thiessen, C. Henry. 「조직신학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Watson, David. 「제자훈련」. 권성수 역. 서울: CLC, 1993.
- Wenham, J. Gordon. 「WBC 성경주석 창세기(상)」.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1.

2. 정기간행물

- 고직한. “목회자가 변하면 청년목회가 산다.” 「목회와 신학」. 2003년 6월.
- 교갱협. “한국 교회 성장둔화에 대한 예장총회 교역자들의 의식현황과 과제.” 「교회 갱신소식」. 1997년 3월.
- 권혁률. “청년, 학생 선교,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기독교 사상」. 2014년 4월.
- 김광덕. “청년을 위한 맞춤 예배를 시작하자.” 「교회 성장」. 2012년 3월.
- 김한옥. “전통적인 교회성장학과 자연적 교회성장학의 신학적 패러다임 연구.” 「신학과 실천」. 2008년.
- 김현진. “공동체적 교회의 회복” 「기독교 사상」. 1999년 4월.
- 남용우. “오늘 한국교회 청년문화의 문제점과 대안.” 「월간 목회」. 2003년 4월.
- 남정길. “청년 목회와 프로그램.” 「월간 목회」. 1972년 2월.
- 박영철.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회복.” 「목회와 신학」. 2001년 4월.
- . “한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
- 박용규. “사랑의교회가 한국복음주의에 끼친 영향.” 「목회와 신학」. 1998년 11월.
- . “한국 교회사적 측면에서 본 제자 훈련 운동.” 「교회와 제자훈련」. 2003년.

- 서정오. “오늘의 한국 교회 청년 문화는 건강한가?” 「월간 목회」. 2003 년 4 월.
- 송태근. “담임 목회자가 바라본 청년 목회의 비전.” 「목회와 신학」. 2003 년 6 월.
- 송태근, 김창근. “한국교회와 21 세기 청년목회.” 「 목회와 신학 」. 2003 년 6 월.
-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 기독교 사상 」. 2001 년 7 월.
- 이홍정. “제 99 회 총회 회의록.” 「목회와 신학」. 1999 년 3 월.
- 임상빈. “청년들의 개인주의와 공동체의식.” 「기독교 사상」. 제 511 호. 2001.
- 정웅섭. “그룹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 제 156 호. 1980 년.
- 하정완. “새 시대 청년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 기독교 사상 」. 2001 년 7 월.

3. 학위논문

- 김영태. “소그룹 목회 시스템을 통한 교회성장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9.
- 민병욱.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교회성장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7
- 민용기. “청년 목회 리더십 갱신을 위한 전략들: 일심교회 청년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 이상갑. “청년 사역 활성화 방안-무학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 유재길. “지역 교회에서의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대전 성남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 조현락. “청년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용호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4. 온라인 자료

- 사랑의교회. “청년부 비전” [온라인자료] <http://yos.sarang.org/vision/>. 2020 년 2 월 18 일 접속.

- . “청년부 양육” [온라인자료] <http://yos.sarang.org/nurturation>. 2020년 2월 18일 접속.
- . “교육훈련” [온라인자료] https://www.sarang.org/ministry/div_sitemap.asp. 2020년 2월 18일 접속.
- . “청년부 제자훈련” [온라인자료] <http://yos.sarang.org/disciple>. 2020년 2월 18일 접속.
- . “청년부 사역소개” [온라인자료] <http://yos.sarang.org/ministry/>. 2020년 2월 18일 접속.
- 동안교회. “청년부” [온라인자료] <http://www.dongan.org/cell/cell06.asp>. 2020년 2월 24일 접속.
- . “대학부” [온라인자료] <http://dongan.org/cell/cell05.asp>. 2020년 2월 24일 접속.
- . “사명과 비전” [온라인자료] <http://www.dongan.org/church/vision.asp>. 2020년 2월 24일 접속.
- 안양제일교회. “청년부” [온라인자료] http://www.anyangjeil.org:8080/page_hEuw80. 2020년 2월 28일 접속.
- . “Ye 청년부” [온라인자료] <https://www.facebook.com/AnyangjeilChurch/>. 2020년 2월 28일 접속.
- . “새가족등록” [온라인자료] http://www.anyangjeil.org:8080/page_IoXu48. 2020년 2월 28일 접속.
- . “청년부 양육” [온라인자료] http://www.anyangjeil.org:8080/page_qqxF. 2020년 2월 28일 접속.
- 무학교회. “무학 12 사명” [온라인자료] <http://www.moohak.net>. 2020년 3월 2일 접속.
- . “청년부” [온라인자료] http://www.moohak.net/bbs/board.php?bo_table=sub0305. 2020년 3월 2일 접속.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March 31, 2020

Jongkil Park

IRB Exemption 4087.033120: A Study on the Small Groups for the Vitalization of Young Adult With a Focus on Dang-II Church

Dear Jongkil Park,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exemption category 46.101(b)(2),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101(b):

(2) Research that only includes interactions involving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including visual or auditory recording) if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met:

(i) The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by the investigator in such a manner that the identity of the human subjects cannot readily be ascertain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change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submitting a change in protocol form or a new application to the IRB and referencing the above IRB Exemption numb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change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Research Ethics Office

LIBERTY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since 1971